



8

1996

문학예술종합출판사

조선문학

조선작가동맹 중앙위원회 기관지

1996. 8호

(루게 586)



◇◇◇◇◇◇◇◇◇◇ 차 례 ◇◇◇◇◇◇◇◇◇◇

8. 15-해방의 날이여	4
8월의 푸른 하늘	5
개선문을 찾아서	6
사상찬가	8
가장 고결한 인정미를 지니시고	9
랭천골	11
조 선	12
룡문대굴에 들어서며	13
명 언 (외 2 편)	13
래일을 위한 오늘	13
개선문앞에 서보라	14
평론문학이 선도적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여	15
김정일 그이는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	16
금반지	17
병사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	18
유격구의 메아리	20

명언해설	21
나의 걸음은	21
영원한 녀	22
영웅의 모교에서 우리 자랐네	26
로시인의 모습에서	27
이 가슴 뜨거워	28
명 의	29
래일을 안고산 사람들	38
투사여 나도 그대처럼...	46
꼭 필요한 사람	47
생활의 시작점에서	52
이 땅의 아름다운 성품은	57
허균과 《홍길동전》	58
조 국	62
《로동의 새벽》과 열리는 새 시대의 지평	64
우리는 붉은기의 기수들이다	73
영원한 나의 손님	74
약 속	75
더 작은것이라도	77
보통날의 퇴근길에서도	77
틀어진 주먹속엔 하얀 손수건 (외 1 편)	78
사실 나는 지각생이었다	78
통일의 붓을 들어	79
아아! 우리 농민회	80

8. 15-해방의 날이여

리건구

우리의 삶과 우리 사는 이 땅위에
얼마나 큰자옥을 남기였는가
8.15-해방의 날이여
내 이날을 처음으로 맞던 그때는
철부지 어린 시절

너무도 꿈갈던 일이어서
오늘도 눈에 선한 모습들
눈물해픈 어머니와 할머니만이던가
할아버지와 아버지들이
흐르는 눈물을 감추지 않고
울던 그날이었다

밤이면 이웃들 모여앉아
귀속말로 주고받던
김일성장군님의 전설같은 이야기
바로 그 장군님이 해방을 안아오셨다고
거리로 달려나가 조선독립만세를
목이 터지게 부르던 날이었다

그날부터 이 땅엔 암흑이 가셔지고
눈부신 광명이 따사로이 비쳐왔고
그날부터 인민은 노예의 사슬을 풀었던지
당당한 나라의 주인이 되었어라
사람마다 얼굴에 그늘을 가지고
환희로운 웃음을 찾았어라

이날을 위하여
장백산 즐기 즐기마다에
압록강 굽이굽이마다에
붉고붉은 피의 자옥을 남기며
우리 수령님 헤쳐오신 그 길을 따라
이 나라의 성스러운 아들딸들이
얼마나 많은 청춘과 목숨을 바쳤던가

이처럼 피흘려 찾아진 날이기에
우리는 목숨처럼 소중히 여기건만

이날을 다시 앗아내려 날뛰는 원쑤
광복된 내 조국을 짓밟으려
호시탐탐 노리며 발악하거니

해방의 그날엔 철부지이던 나도
이날을 지키려 싸움에 나섰다
쏟아지는 탄우와 포연을 헤치며
락동강물결위에 더운피도 뿌렸고
불속에서도 연기속에서도 조국의 고지를 지켜
수많은 전우들 영생의 꽃으로 피어
제2의 해방의 날을 안아왔어라

오늘도 미제야수들은
우리를 봉쇄와 압살로
사회주의진지를 허물려 날뛰어도
조국은 철의 성벽으로 솟아있고
인민은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일떠섰나니

우리 어찌 승리하지 않으랴
그이 모시면 영광이 있고
그이 따르면 우리가 이기는
위대한 **김정일**동지
최고사령관으로 진두에 계시여라

꿈결에도 광복의 봄을 그렸듯이
8.15를 맞이한 우리 인민
준엄한 전화의 불비속을 헤쳐
전승의 봄 제2해방을 맞이한 인민
원쑤들 또다시 이 땅을 짓밟으려 발광하여도
하나된 삼천리
그날은 반드시 오리라

오, 그날이 오면
내 어릴적 8.15를 맞던 그날처럼
감격과 환희의 눈물을 뿌리며
김정일장군 만세를 높이높이 부르리라
자주의 내 조국을 영원히 빛내가리라

8월의 푸른 하늘

리 석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던 날이었던가
얼마나 목청껏 웨치고싶던 만세였던가

-**김일성**장군님께서
-일본놈들을 꺼꾸러뜨렸다
-우리 나라가 해방되었다

이 나라의 거리와 거리
마을과 마을들에
바람같이 전해지던
온 삼천리강토를 진감하던
인민의 감격이여
뜨거운 환희여

반생을 머슴으로 허리굽은 아버지도
눈물로 얼룩진 치마폭에 나를 감싸안던
나의 어머니도
목청껏 만세를 웨치며
읍으로 달려가던
오, 신한해전의 그날이여

김일성장군님에 대한 전설같은 이야기로
세파에 찢기고 부대끼던
온 강토가 잠들지 못하며
열풍처럼 설레이던 그날 그밤

자본가의 채찍에 피흘리며 쓰러지던
로동자들의 그 모습
좁쌀 한되박에 이국땅으로 팔려가던
이 나라 녀인들의 가궁한 그 모습
아, 조국의 모습이 그리도 가슴아프시여
조국진군의 작전도앞에서
밤을 지새우시던
우리 수령님

백두의 줄기줄기에

압록의 굽이굽이에 자욱을 새기시며
그 차거운 눈비를 다 맞으시며
혈전만리를 헤쳐
조국광복을 안아오신
민족의 은인이신
김일성장군님

아, 가없이 높고 푸른
8월의 하늘
이날은 조국광복의 소원을 이룩하신
우리 수령님품에
내가 안기고 우리 인민이 안기고
온 삼천만이 안긴 날

한생을 압제의 쇠사슬에 묶인 우리를
운명의 주인
새 조선의 당당한 주인으로 내세워주신
조국청사에 길이 새기고 빛내인
새 력사의 날이었거니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신
력사의 이날이 있어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과
혼연일체가 된 우리 조국은
희망의 등대로
세계에 찬란히 빛을 뿌려라

오, 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대를 이어 빛내여가시는
우리 조국의 앞날은 창창하여라
검은 구름 몰아친다해도
가없이 푸른 8월의 저 하늘처럼
우리의 하늘만은
티 한점없이 가없이 푸르리라
신한해전의 그날처럼

개선문을 찾아서

최성진

편집부로부터 조국해방기념일을 맞으며 글을 써달라는 청탁을 받고 나는 개선문을 찾아갔다. 앞으로 조국땅 방방곡곡을 편답하면서 장편기행이나 기행문집을 특색있게 내보려는 계획을 가지고있는 나로서는 맞춤형 기회이기도 했다. 21세기를 눈앞에 둔 현대 우리 조국의 진면모를 알자면 우리 당과 혁명이 걸어온 역사의 자취를 따라 나의 조국기행 로정도 정해져야 하겠는데 그러자면 조국해방이라는 역사의 분수령에 서서 지나온 역사를 더듬어보는것도 필요할것이기때문이다.

개선문은 **김일성** 경기장앞에 있다. 지금은 여기를 개선거리라고 부른다.

김일성 경기장이 웅장하게 들어앉은 그자리는 역사에 그 이름이 올라있는 공설운동장 자리이다.

우리 조국이 일제통치의 기반에서 해방된 그해 10월, 바로 여기에서 영명하신 **김일성** 장군님의 조국개선을 환영하는 평양시 군중대회가 성대히 열리였던것이다. 지금 **김일성** 경기장앞에는 평양의 십여만 군중의 열광적인 환호에 답례를 보내시며 개선연설을 하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영상을 모신 기념벽화와 함께 개선연설친필기념비가 있다. 모란봉의 무성한 숲이 진록색을 띠고 한여름의 햇빛을 받아 번쩍이는 활력의 계절이었다. 나는 개선문을 찾아가는 길에 먼저 개선연설친필기념비를 찾았다. 화강암을 다듬어세운 친필기념비에는 온 민족을 새 조국 건설에로 불러일으킨 위대한 수령님의 개선연설 내용이 새겨져있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우리 조선민족이 민주주의 새 조선을 건설하기 위하여 힘을 합칠 때는 왔습니다. 각계각층 인민들은 누구나 다 애국적열성을 발휘하여 새 조선건설에 떨쳐나서야 합니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건국사업에 적극 이바지하여야 하며 참으로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민주를 사랑하는 전민족이 굳게 단결하여 민주주의자주독립국가를 건설해나가야 하겠습니다.》

개선의 광장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의 자애로운 영상을 우러르는 나의 귀전에는 젊으신 그이의 육성이 들려오는것만 같았다. 개선문은 이 뜻깊은 역사의 지점에 서있는것이였다.

조국해방기념일이 가까와오는 때여서 개선문은 어느때보다도 참관자들이 많은것 같았다. 그들중에는 해외동포들과 함께 대양과 대륙을 넘어온

외국손님들도 있었다. 나는 참관자들속에 섞여 개선문을 찾았다.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거연히 솟아있는 역사의 기념비-개선문은 현대적건축물이면서도 민족적형식을 구현하고있다. 늘 보아오는 개선문이지만은세공품마냥 정교하게 다듬어진 거창한 기념비앞에 서니 새삼스럽게도 인간의 무궁한 환상과 지혜와 창조력앞에 감탄을 금할수 없게 된다.

연한 하늘색 조선회마저고리를 입은 아름다운 녀해설원이 참관자들앞에서 해설하고있었다.

《이 개선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새봄을 안아오신 불멸의 업적을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그이의 탄생 70돐을 앞둔 1982년 4월 14일에 제막되었습니다...》

개선문의 높이는 60미터로서 지금까지 세계에서 제일 높은것으로 알려져있는 프랑스 빠리의 《에투알》개선문보다 10미터나 더 높다고, 지난날의 건설경험으로 보면 6년은 실히 걸려야 했던것을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현명한 가르치심에 의하여 1년 남짓한 기간에 완공되었다고 한다. 그러고보면 세계에 자랑높은 이 대기념비는 단순히 인간의 환상과 지혜와 창조력이 낳은 산물이기전에 위대한 수령님을 높이 받들어 모시고 친애하는 **김정일** 동지의 령도를 심장으로 받들어나가는 우리 인민의 총의로 받아들여올린 기념탑이라고 해야 할것이다.

나는 개선문을 올라다보았다. 제일먼저 눈에 안겨오는것은 개선문우에 부각되어있는 《1925~1945》라는 글발이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광복의 큰뜻을 품으시고 만경대의 사립문을 나서신그때로부터 해방년에 이르는 장장 스무해의 역사가 글발에 집대성되어있는것이였다.

세상에는 기념비들이 적지 않다. 무릇 기념비란 인류와 역사앞에 공헌한 위인들을 후세에 전하기 위하여 세워지는것이다. 하지만 평양의 개선문만큼 깊은 뜻을 담고있는 그러한 기념비는 세상에 더는 없다.

여기 개선문에서 위대한 수령님께서 걸어오신 역사의 자욱을 되새겨보면 그길은 얼마나 멀고 간고한 길인것인가. 탄우속을 헤쳐가야 했던 불의의 길, 굶주림을 참으며 혹한과 싸워야 했던 고난의 행군길들... 전투에서 희생된 사랑하는 전사를 옆에 두고 한지에서 친히 영결사를 쓰시던 가슴아픔도 그 길우에서 겪으셔야 했고 이국의 거친 땅에서 세상을 떠나신 어머니의 령전에 하직인사마저 변변히 올릴새 없이 싸움의 먼길을

떠나서야 했던 눈물의 사연도 그 길우에 있다.

그 사연많은 길들중에 로야령과 잇닿은 그 길을 생각하면 가슴이 얼어드는것만 같다. 간고한 행군길에 축한을 만나시여 생명의 경각에 이르신 장군님께서 눈물을 흘리는 대원들에게 빼앗긴 조국을 기어이 찾아야 한다고 혁명의 노래를 들려주시던 그 나날은 력사의 갈피에 새겨져있다.

뼈아픈 상실도 많으시고 고난과 시련도 많으셨던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의 길! 그 길이 여기 개선문과 이어져있는것이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로고의 자옥을 새겨오신 력사의 지점들에 기념탑을 쌓아올린다고 한들 어찌 그 거대한 업적을 다 전할수 있겠는가.

바벨의 탑에 대한 이야기가 생각난다. 하늘의 신에 못지 않는 권력을 꿈꾸던 고대 바빌로니아의 어느 왕은 수많은 노예들을 내몰아 하늘에 닿는 탑을 쌓았다. 하지만 지상과 천상의 절대 권력자가 되려고 권력의 상징으로 쌓아올린 바벨의 탑은 세월의 비바람에 속절없이 무너져버리었다.

그것은 《성서》에 근원을 둔 이야기로서 사실여부조차 묘연한 야담이다. 하지만 설사 그러한 탑이 존재했다고 해도 력사와 인민들의 기억속에 오래갈수는 없다. 사실 세상에는 력사의 반동들이 영원을 꿈꾸며 제놈들이 일으킨 침략전쟁과 독재와 전횡을 미화하여 세운 탑들도 있는것이다.

그러나 혁명의 수도 평양의 한복판에 거연히 솟아 빛나는 개선문은 거기에 새겨져있는 위인의 사상과 업적의 위대함으로 하여 이 세상의 어느 기념비와도 비길수 없는 불멸의 탑이며 우리 인민의 더없는 자랑이다. 참다운 위인의 기념탑은 결코 단순한 로동이나 물질적재부로 쌓이는것이 아니다. 그것은 위인의 사상과 업적으로 쌓아지는것이다.

나는 개선문을 돌아보았다. 볼수록 생각이 깊어졌다.

일제를 때려부시고 해방된 조국땅에서 《조국해방 만세!》를 목메여 웨치는 조선인민혁명군대원들을 형상한 부각상이며 위대한 장군님을 개선의 광장에 모신 조국인민들의 환호하는 장면을 형상한 부각상 **《김일성장군 만세!》**편이 나의 걸음을 오래도록 멈추게 했다.

개선문의 랑쪽 측면에는 우리 당과 혁명의 력사적뿌리이며 만년초석인 백두산이 형상되어있다. 그런가하면 장군님에 의한 민족해방의 격동적인 장면과 새 조국 건설에 떨쳐나선 근로자들의 힘찬 투쟁모습을 형상한 부각상도 볼수 있다. 개선문에 새겨진 진달래무늬 하나하나에도 다 위인의

업적을 전하기 위한 깊은 뜻이 숨배여있다.

해설원처너는 말한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개선문을 만대에 빛나는 력사의 기념비로 일떠세우시려고 그 형성도안과 설계도면을 보아주신것만도 50여차례에 달한다고, 위대한 수령님께서 이룩하신 불멸의 혁명업적을 더욱 빛내이며 만대에 길이 전하기 위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개선문건설에 바쳐오신 로고를 헤아릴수록 가슴은 뜨거워온다. 해설원동무의 설명을 들으며 나는 개선문의 기본주제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했다. 개선문의 앞면과 뒤편에는 위대한 수령님의 투쟁력사와 불멸의 혁명업적을 구가하는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가 새겨져있다.

친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바로 개선문건설을 발기하시고 그 전과정을 지도하여주시면서 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개선문의 기본주제로 되게 하여주시였다. 그리하여 평양의 개선문은 그 사상적내용에서 혁명적수령관이 확고히 구현되고 건축형식에 있어서도 우리 민족의 슬기를 자랑하는 걸작으로, 후손만대에 길이 빛날 시대의 기념비로 일떠설수 있었다.

나는 취재용무로 갔던지라 해설원동무를 통하여 개선문 참관자들이 남기고 간 글들을 볼 기회를 가지였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이 이렇게 훌륭한 개선문을 건립하게 된것은 세상을 놀래울만한 일입니다. 세계의 그 어느 기념비보다도 가장 훌륭합니다...

...세계의 어느곳을 다 돌아다녀보아도 이런 건축물은 없습니다. 오직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를 수령으로 높이 모시고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를 령도자로 높이 모신 우리 나라에서만 이 날을수 있는 기적이며 위대한 창조입니다...

개선문을 찾아오는 해외동포들과 세계 여러 나라의 사회계, 정계인사들, 학자들이 위대한 령도자를 모신 조선을 부러워하며 경탄을 금치 못하고있다.

나는 위대한 조국에서 사는 크나큰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그자리를 뒀다. 나는 모란봉에 올라갔다. 푸른 이끼에 덮인 옛 성벽을 돌아 올밀대에 오르니 유구한 력사의 도시 평양의 일각이 한눈에 안겨왔다. 개선문은 노을빛에 물들어 더욱 웅장하고 신비롭게 보였다. 금시 하늘로 솟구쳐 오를것만 같은 모습이었다. 태양의 빛발속에 잠긴 불멸의 기념비-위대한 수령님께서 광복의 새봄을 안고오신 개선문아래로 오늘은 세계의 방방곡곡에서 떠난 각이한 사람들이 물결처럼 흘러든다.

빛나라, 개선문이여! 위대한 력사의 기념비여!

사상찬가

주광남

어떻게 생겨났던가
물에 빠진 제자식 옆에 두고서도
남의 자식 먼저 살린 그런 아버지
부모 잃은 아이들의 어머니가 되는 처녀
한몸 영예군인의 지평이를 대신하여
한생을 다 바치는 그런 청춘들이

어디서 생겨났던가
터지는 수류탄을 몸으로 덮어
동지들을 구원하는 영웅의 희생성
적진속에 빠졌다가도
원수를 전율시키고 돌아오는
도도한 그 기상이...

격동으로 가슴 들먹이며
나는 노래하련다
한톨의 영웅호걸 아닌 인민모두를
자주의 인간으로
기적의 화신으로 키우는
사상

혁명의 태양 **김정일** 동지
세계를 밝혀 찬란히 뿌리신
사회주의 해빛
그 위대한 사상을!

우리 보지 않았더나
강력한 경제
강대한 군사를 가졌던 대국도
사상, 그것을 버린탓에
모래성같이 무너져내리는것을

우리 듣지 않았더나
사회주의 한품속에 화목했던 형제들이
붉은기를 내던지고 제 한몸 향락에 미쳐
혈육을 참살하는 비극의 아우성을
피흘리며 싸우는
가슴찡는 충포성을...

사상은
사회주의생명
사회주의 우월성은
사상의 우월성
필승의 자양도 불패의 영양소도
오직 사상

그것없이 우리 꿈엔들 생각하랴
제 하나만 위해 살던 어제날의 사람들이
집단주의생명관을 하나같이 지니고
너도나도 사회주의 주인으로 자란것을

들어보라
서로 다른 부모 피줄 타고난 사람들이
하나의 사상을 삶의 피줄 삼아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온 나라가 화목한 대가정 이룬
내 조국에 차넘치는 웃음소리 노래소리

《나》라는 말보다
《우리》라는 말을 더 즐겨쓰며
집단의 행복속에
개인의 기쁨도 꽃피우는
우리의 일심단결은
사상의 단결!

인민위한 우리 당의 천만가지 사랑중에
사회주의 투사되게 사상으로 키워주는
그보다 더 큰 은혜 세상에 또 있으랴

노래하노라
자부하노라
모진 광풍 세계를 휩쓸어도
거연히 머리들고 나가는
조선의 존엄 사회주의 존엄을!
사회주의 존엄 사상의 존엄을!

아, 자주적인간의 성장의 요람
나서부터 한생
사회주의생활을 체질화시켜주는
주체조국이어
그 모습 인류리상의 거울로 비쳐주며
우리를 밝히는 해빛이어

노래하노라
해빛이 눈부시여 밝아진 세계
사회주의 부활로 번창할 21세기
사회주의사상-그 한빛으로 붉게 물들
자주화세계의 희한한 모습을
우리 시대에 비로소
인류가 받아안은 영원한 복
아, 위대한 령도자의 위대한 사상을!



가장 고결한 인정미를 지니시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평범한 노동자인 김옥순, 백현철동무들이 부모없는 새 아이의 부모가 된 소행을 그러도 기록해하시며 그들에게 한없이 뜨거운 사랑과 배려를 돌려주신것은 우리 인민모두가 잘 알고있는 사실이다. 그리하여 오늘 우리 인민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인민에 대한 다함없는 사랑의 감정이 꼭 차있다는것을 또다시 깊이 절감하게 되었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우리들에게 인정미가 없는 사람은 참다운 혁명가로도, 공산주의자로도 될수 없다고 가르치시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인민을 사랑할줄 모르고 인민의 리익을 외면하며 양심과 의리가 없고 인정미도 없는 사람은 공산주의자로도, 혁명가로도 될수 없습니다.》

로동계급의 수령은 혁명의 최고녀수이며 령도자일뿐아니라 가장 고결한 인정미를 지니고 인민을 사랑하고 인민대중의 자주위업을 위하여 모든 힘을 다하여 투쟁한다.

눈보라 세찬 깊은 밤과 소낙비 쏟아져내리는 날에는 창밖을 내다보시며 총잡고 한지에 서있을 초소의 전사들을 생각하고 아이들의 소리높은 웃음을 들으시면 만시름을 놓으시다가도 혹시나 뉘집에 부모없는 아이들이나 있지 않는가고 생각에 잠겨계시는 우리 장군님.

인간이 지닐수 있는 인정미를 가장 숭고한 경지에서 지니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부모없는 아이들을 부모있는 아이들보다 더 잘 키우고 내세워주고 싶어하는것이며 부모가 일생을 살면서도 다해줄수 없는 은정으로 그들을 지켜주고계시는것이다.

그래서 우리 인민은 래일을 걱정하지 않고 락관적으로 살고있다.

우리 장군님만 계시면 된다! 경애하는 장군님만 계시면 세상이 열백번 변한다해도 우리는 얼마든지 견딜수 있다!

이 절대적인 신뢰,

날이 가고 세월이 흐를수록 인민의 이 믿음은 더욱더 강렬해지고있다.

백두광명성으로 하늘높이 솟아오른 그 첫 기슭에서부터 천품으로 지니신 이런 위대한 인간적품모로 하여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우리 인민들과 세계 인민들을 완전히 매혹시키시였다.

인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을 지니지 않고서는 혁명을 바로 할수 없다는것은 생활의 진리이다.

이런 숭고한 리념을 혁명철학으로 내세우고계시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일군들에게 위대한 정치가, 위대한 령장은 먼저 참다운 인간이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참다운 인간은 감정이 풍부하여야 하며 인민들에 대한 사랑의 감정을 뜨겁게 지녀야 한다고 하시였다.

위대한 정치가, 위대하고 탁월한 령장이기전에 참다운 인간이신 우리 장군님으로부터 아버이의 따뜻한 체온을 느낀 사람들은 그 모두가 얼마이며 정치적생명을 보호받는 사람들은 또 그 얼마인가.

어느해 비오는 깊은 밤에 차안에서까지 문건을 보시며 가시던 아버지장군님께서서는 한 초소앞을 지나시였다. 그런데 얼마후 우산을 받쳐드신 그이께서 방금 지나치신 그 초소로 다가가시는것이였다. 초소앞에 이른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초병의 군복자락을 만져보시고 한곳이 좀 젖어있는것을 보시자 걱정하시였다.

자애에 넘치신 장군님의 눈길에서 초병은 어린 시절을 지켜주던 다심한 고향어머니의 모습을 그려보았다.

학교에서 돌아오던 길에 비를 맞으면 마른수건으로 얼굴에서 흐르는 비물을 간간히 닦아주고 새옷을 갈아입혀주면서 혀를 끝끝 차군하던 어머니...

잠시 생각에 잠겨계시던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오시던 길로 다시 가시여 새 비옷을 들고 나오시였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비에 젖은 옷을 입고 서있는 동무를 두고가면 마음이 편안하지 않다고, 그동안 자신께서 초소를 지킬테니 어서 들어가 비옷을 갈아입고 오라고 다정히 이르시였다.

이런 비오는 날 친어머니만이 아들이 비를 맞지 않을가 마음쓰기 마련이다.

우리 장군님께서서는 자식들을 조국보위초소에 내보낸 온 나라 어머니들의 마음을 다 합치여 이처럼 전사들을 따듯이 보살피주고계시는것이다.

현지도의 길에서 부모없는 한 젊은 노동자를 만나시였을 때 돌아간 그의 어머니를 대신하여 생일음식도 보내주신 경애하는 장군님이시기에 어느해 노동자들의 합숙에 들리시였을 때에는 고향의 어머니들이 와봐도 마음이 놓이게 이불도

비단이불을 해주고 베개도 조선베개를 해주라고 일군들에게 말씀하시었던것이다.

1974년 정월 어느날 자정이 훨씬 넘은 깊은 밤이었다.

어느 한 기관의 당조직을 책임진 일군은 전 화중소리에 깨어났다. 수화기에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자애로운 음성이 울려나왔다. 단잠을 깨워서 안됐다고 하시면서 장군님께서 결함을 범한일부 당원들에게 책벌을 주려고 한단데 꼭 책벌을 주어야 그 동무들이 결함을 고칠수 있겠는가고 물으시었다.

그 순간 일군은 대답을 드리지 못하고 머뭇거리었다.

그의 심중을 헤아리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내가 언제인가 동무들에게 당일군들은 인간의 정치적생명의 기사가 되어야 한다고 말한적이 있지 않는가, 처벌하기는 쉽다, 그러나 정치적생명에는 흠집이 생긴다, 설사 흠집은 아물어도 자리가 남는 법이다, 당일군은 이것을 가슴아파하여야 한다고 간곡히 말씀하시었다.

그 일군은 자신의 그릇된 처사를 심각히 뉘우치며 가르치심을 명심하겠다고 말씀올리었다.

어느새 동녘이 희붉히 밝아오고있었다.

그 일군은 이제 다문 얼마만이라도 장군님께서 좀 쉬시였으면 하는 자신의 간절한 심정을 말씀드렸다.

그러자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없다고 잠을 덜자면 뭐라는가고 하시며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책임진 당일군들은 남보다 잠도 덜자고 새벽도 먼저 맞아야 한다고 자애에 넘친 음성으로 말씀하시었다.

창밖에서 내리는 함박눈을 바라보며 일군은 사람들의 정치적생명을 흰눈같이 깨끗이 보호해주는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계시기에 우리 인민모두는 영원한 정치적생명을 빛내일수 있다는것을 뜨겁게 느끼었다.

실로 우리 장군님의 불보다 더 뜨거운 인정미를 잘 알고있는 우리 인민이기에 장군님의 인정미를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것으로 여기는것이며 죽으면서도 경애하는 장군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안고가려 하는것이다.

한 전사가 생의 마지막순간에 있다는 통보를 받으신 장군님께서는 중대한 회의를 도중에 중지하시고 우리가 가지 않는다면 그가 눈인들 제대로 감을수 있겠는가고 하시며 곧 그에게로 가시었다.

혁명전사의 침상곁에 이르신 장군님께서는 갈

리신 음성으로 안타까이 전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왔노라고 하시며 그를 조용히 품에 안으시었다.

살아서 떨어질수 없고 죽어서도 안기고싶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사랑의 체온을 느낀 전사는 간신히 의식을 차리고 그이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그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으시며 우리 장군님께서 동무는 꼭 일어나야 한다고 말씀하시었다.

전사는 따사로운 그이의 품에 안겨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일찌기 부모를 여의고 외롭게 살아온 전사에게 살아있을 때 친부모가 되시여 세심히 보살펴주시고도 그가 세상을 떠나자 그의 부모를 대신하여 더 줄수 있는 사랑을 주지 못한것만 같다고 하시며 집무실에서 밤을 밝히신 경애하는 장군님.

인정이란 말이 생겨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던가, 하지만 이 말이 경애하는 우리 장군님에 의하여 오늘처럼 시대의 정수리를 올린 때가 과연 력사에 있었던가.

력사가 알지 못하는 인간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에 대하여 생각할 때 우리 인민은 그 위대한 천품의 시원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돌이켜보게 된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의 탄생 40돐에 아버지 수령님께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지나는 생활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추억하시었다.

김정일동지는 어렸을 때 고생도 많이 하였다고, 그처럼 고생을 하면서 자란 사람은 많지 않을것이라고...

1988년 어느날에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김정일**동지는 백두의 눈바람속에서 태어난 때부터 고생스럽게 자라났다고 뜨겁게 회고하시었다.

사랑의 화신, 의리의 화신, 덕망의 화신으로 만민을 대혹시키시는 우리 장군님의 그 숭고한 인정미는 바로 이런 산 체험에서부터 기인된것이다.

배워두어서 의무감으로 하는 일에는 끝이 있는 법이다.

하지만 천품은 영원성을 띤다.

인간에 대한 가장 고결한 사랑의 정을 백두산 시절에서부터 지니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우리 인민모두를 따뜻이 품어주시고 지켜주고계시기에 우리는 누구나 그 품에 운명도 미래도 맡기는것이다.

본사기자

랭천골

묘향산등산안내도를 보면 신향산지구에 상원골, 만폭골, 문수골, 천태골, 칠성골과 함께 랭천골이라는 골짜기가 있다.

얼마전까지만 하여도 안내도와 신향산지구지형도에는 이 랭천골이라는 이름이 기록되어있지 않았다.

그러면 랭천골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 이름과 함께 묘향산사람들속에서는 흥미있는 전설이 전해지고있다.

묘향산 하비로지구 옥천동에 있는 금강굴에서 산비탈을 두굽이 돌아오르면 그리 작지 않은 골짜기가 나진다.

바로 이 골짜기가 랭천골이다.

그런데 이 골짜기는 몇해전까지만 하여도 무명의 골짜기였다.

어느해 봄 묘향산을 찾으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그날 등산로정을 금강굴로 해서 형제폭포(오늘의 이선남폭포)로 오르는것으로 정하시였다.

그이께서는 칠성동천으로 난 평탄한 길을 택하지 않으시고 금강굴로 해서 산비탈을 오르고 내리면서 등산하는것이 좋다고 하시면서 일부러 멀고 험한 길을 택하시였다.

등산길에 오른 수원들은 후더워오르는 가슴을 안고 전형의 산골짜기를 헤쳐갔다.

이날 등산길은 참으로 간고한 길이었다.

그이께서는 것처럼 간고한 등산길을 헤쳐나가시면서도 어디에다는 안전사다리를 놓고 또 어디에다는 휴식장을 만들어야 하겠다고 하시는 등산길을 꾸리기 위한 구체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였다.

산비탈을 타고 비로문터에서 1.5키로메터지점에 있는 금강굴에 올라가본후 다시 산비탈고개길을 세번씩이나 넘자니 수원들은 지칠대로 지치였다. 이날따라 날씨는 몹시 무더웠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입으신 등산복에도 땀발이 흥건히 배어있었다.

수원들은 벌써 몇번이나 그이께 휴식하자고 말씀드리였다.

《일없소. 조금만 더 가서 쉽시다.》

그이께서는 매번 이렇게 대답하시며 앞서 걸으시였다.

수원들은 바람한점 불지 않는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걷고 또 걸었다.

《바람이라도 좀 불지.》

어떤 사람들은 입속으로 중얼거리며 무더운 날씨를 원망하기도 하였다.

얼마를 못가 나무그늘이 나지자 한 일꾼이 또 그이께 말씀드리였다.

《저... 여기서 잠간 휴식을 하고 떠나십시다.》

《조금만 참으시오. 좀 더 가서 쉽시다. 자, 힘들면 내 손을 잡으시오.》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오히려 아래일군들을 내려하시여 그들의 손을 잡아 이끌어주시였다.

찌는듯 무더운 날씨는 그들의 온몸을 땀으로 미역을 감게 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밤에 흠뻑 젖으신 친애하는 그이께서 잠시라도 휴식을 하셨으면 하는 마음이 더 간절하였다. 바람이라도 좀 불었으면 좋으련만 어찌나 물쿠는지 미풍에 풀잎하나 까딱하지 않았다.

얼마후 작은 등성이를 하나 넘어서니 돌이 듭성듬성 놓여있는 널찍한 장소가 나지였다.

안내자와 수행일군들은 경애하는 그이께 여기서 쉬고 가자고 말씀드리려고 하였다.

그런데 그이께서 먼저 《자, 여기서 땀을 들이고갑시다.》 하고 말씀하시였다.

피로가 몰릴대로 몰린 일군들은 기뻐하면서 그이께서 앉으시자 저마다 자기들이 앉을 자리를 골라 바위에 걸터앉았다.

바로 이때였다. 여적 바람한점 불지 않던 골짜기에서 갑자기 나무숲이 설레이더니 차고 시원한 바람이 불어왔다.

그 바람은 마치 늦게 도착하여 죄스럽다는듯이 서둘러 수행성원들의 땀발을 깨끗이 씻어주었다.

《랭천바람이 불어오누만!》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께서는 샹츠단추를 풀어헤치시면서 불어오는 바람을 마주 향하여 돌아앉으시였다.

순간에 땀을 거두고 피곤을 푼 일군들은 점차 이상한 생각이 들었다.

(랭천바람이라니? 우리가 오르자마자 어디서 이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올까? 어떻게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이런 좋은 휴식장소를 아셨을까?)

의문은 한두가지가 아니였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조용히 떠있던 뭉게구름이 갑자기 뒤설레이였다. 그리고 온 골짜기의 숲이 췌-췌- 소리를 지르며 가지를 흔들어들었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인가?

수원들은 그이를 경건한 마음으로 우러러보았다.

그이께서는 안내자에게 조용한 어조로 여기가 무슨 골짜기인가고 물으시였다.

안내자는 아직까지 이 골짜기에는 이름이 없다고 말씀드리였다.

《이런 아름다운 골짜기에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묘향산에는 하도 아름다운곳이 많다니 이름을 미처 짓지 못한것 같습니다. 이 골짜기에 도 좋은 이름을 달아줘야 하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서느러운 바람에 땀을 들이시면서 땃새동안의 등산체험에 기초하여 묘향산의 등산로정을 결론하시였다.

참으로 이 이름없던 골짜기는 세기의 위인을 맞아 그이께서 등산로정과 방법에 대한 가르치심을 주신 유서깊은곳으로 되였다.

사람들은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땀발을 들이여 드린 그 바람은 칠성동천에 있는 큰 룡이 그이의 덕망에 감동되어 조화를 부린것이라고 말하

였다.

또 어떤 이들은 하늘이 감복하여 바람을 불게 하였다고도 하고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 직접 시원한 바람을 불어오게 조화를 부리시였다고도 하였다.

하여간 그 랭천바람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전설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였다.

그래서인지 그이후 이 골짜기의 이름은 스스로 사람들속에서 랭천골이라고 부르게 되였다.

랭천골이라는 이름에는 천문지리에 능통하신 경애하는 **김정일** 동지에 대한 이 고장 사람들의 뜨거운 경모의 마음이 깃들어있다.

조 선

박호범

나는 이 땅에서 살만큼 살면서
조선말도 알만큼 안다했건만
내가 알기에 우리 력사 반만년에
이런 말은 처음이여라
조선말 그 한마디에 조선을 다 담은
우리 장군님의 말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멀리 흘러간 세월
세상사는 다난다변 곡절도 많아
어디까지가 인간의 가능이고
어디까지가 인간의 불가능이나
인간의 한생은 기쁨과 슬픔으로 엮여지고
혁명도 피눈물의 강을 건너야 했기에
세상에 불가능이란 말이 생겨났더냐

불가능의 황무지를 가능한 보습으로 갈아엮은
그런 나라가 이 세상에 있나니
그런 세상을 알려거던 세계여
여기 조선으로 오라
이민위천의 뜻으로 정치를 하고
무적필승의 강군으로 나라를 지키고
일심단결의 기둥으로 나라를 받드는 우리 조선

우리 력사 어느 굽이 어느 구석에
순종에 무릎꿇고 숙명에 자기를 맡긴
그런 시대 그런 눈물이 있었다더냐
피는 흘릴지언정 굽어들줄 모르며

봉쇄는 악착해도 물러설줄 모르며
하늘땅을 제세상으로 만들어가는
우리 조선이 여기에 있음을 세계여 알라

알라 세계여
사람이 만이여도 몇억 몇천만이여도
자기를 잃어버리면 불가능의 함정에 울고
사람이 하나여도 세상을 틀어쥐면
만물의 승리를 안아오나니
아, 주체! 그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는
우리의 천출위인 **김정일**장군님!

말이란 그 누구도
만들어낼수도 꾸며낼수도 없는 그런것
말이란 존재에 따르는 인간의 녀
창조의 탄생이며 그 열매
위훈의 가슴마다 안겨지는 꽃목걸이
조선말을 다 합친 반만년의 력사우에 올려가는
우리 장군님의 그 정치철학 그 영원한 선언이여

들으라 세계여
조선이 없는 지구가 우리에게 무슨 소용이라
우리 장군님의 이 선언속에
조선의 어제와 있고 오늘이 있고 래일이 있나니
의지의 장검이다 승리의 붉은 기발이다
아, 우리 장군님의 말씀
-무엇이 불가능하다면 그것은 조선말이 아니다

룡문대굴에 들어서며

한원희

장군님 다녀가신 자욱을 따라
룡문대굴에 들어서서는 이 마음
걸음걸음 눈시울 뜨겁네

원썩들의 준동을 눌러버리시며
전선동부와 중부 그리고 서부
최전연고지를 찾으셨던 장군님

휴식도 없이 소문도 없이
여기에 오실줄 곧바로 오실줄
그 누가 알았던가

한자국 옮겨도
장군님생각
가슴 가득 떠오르는 그 영상

내 나라는 땅우에도 땅속에도
천하절경 금수강산이라고

밝게 웃으시며 하신 말씀

그 음성에 실려있었네
빼앗겨서는 아니될
우리 조국이!

전쟁전야를 방불케 하는
이 준엄한 나날에
후방천리를 찾으신 장군님
인민의 가슴에 안겨주셨네
내 나라의 아름다움을
내 나라를 사랑하는 한마음을

아, 경애하는 그이는
최전연고지를 내리신것 아니시네
가시는곳 계시는곳 그 어디나
조국을 지켜주시는 최전연이라네!

짧은시

명 언 외 2 편

안정기

그리도 짧은 말속에
우리가 사는 뜻 다 담았습니다
이 세상 아무도 못찾은 참된 인생관을
몇마디 단어를 이어 빛내인 명언입니다

그리도 쉬운 글속에
혁명의 수뇌부가 인민의 운명임을 풀었습니다

누구나 알수 있는 수수한 어휘들로
수령관의 절정에 우릴 세운 명언입니다

말씀은 짧아도 세기를 이어가고
문장은 쉬워도 우주를 깨쳐줍니다
아, 위대한 스승 인류의 천재
우리 장군님만 줄수 있는 명언입니다

래일을 위한 오늘

나이 많아 눈정기 흐릴세라
인생의 천리경을 주셨구나
오늘에 살아 래일을 내다보고
래일을 위해 오늘에 살라는 명언

어려움앞에 주저앉을세라
마음의 철기둥도 세워주셨구나

오늘에 살아 래일을 락관하고
《고난의 행군》길 웃으며 견게 한 명언

아, 오늘에 사는 의미를 안겨주고
래일에 맞을 행복을 당겨오는 명언이여
장군님 따라 창창한 미래로 가는 길
아무리 멀어도 날개 돋쳐라

이 명언 새겨안아

꽃을 보고 꺾다 느끼기전에
태양의 은혜를 먼저 알라는
혁명의 승리를 말하기전에
수령의 위대성을 먼저 알라는
아, 우리 장군님 명언이여

이 명언 새겨안아

청춘은 백두의 7련대 대으로 살고

로인은 백발에 속대 푸른 충신이 되어
한마음 장군님 받들고
먼길 험한 길 끝까지 걸나니

이 명언 새겨안아

우리의 수령관은 폭풍에 드놀지 않고
붉은기는 주먹이 타들어도 놓지 않노라
아, 주체혁명의 위대한 무기여
걸음걸음 새겨갈 필생의 경륜이여

개신문앞에 서보라

박 철

하늘도 푸른

8월의 이 아침

개신문에 다가서 뜨거운 마음 없으니

아, 가슴치는 한생각

저 크나큰 은빛지붕아래서

사십몇해 나의 복된 삶이 흘러갔구나

몰랐노라

나의 부모 아직도 어제런듯 기억하고

이 땅이 오늘까지도 아파 몸부림치는

그 채찍소리 그 언뱃덩이...

나라를 빼앗기고 들쓰던

그 모든 수모와 멸시를 모르고 살았노라

수십년 지나긴 세월

끝이 없을듯싶었던 그 차거운 눈비는

어디서 멎었는가

무엇이 깨버렸는가

남의 집 문을 두드리며

모멸감에 머리숙이고 내밀던 그 동냥쪽박은

다시다시 쳐다보노라

흰눈을 인 백두산을 추녀아래 새긴

저 산악같은 웅좌가

나의 머리우에도 쏟아져내릴번한

그 천대와 박해의 소나기를 다 막아줬구나

노예의 무거운 쇠사슬을 영영 끊어버렸구나

아 20여성상

위대한 **김일성**동지 만년신고를 치르시며

조국을 찾아서 안겨주신

그 크나큰것 그 고귀한것을

만주벌 눈보라속에 이 몸을 세워

심장깊이 새겨주는 수령님 개신문이여

경애하는 장군님의 손길아래

전진하고 번영하는

내 조국의 시작과 끝은 어디인가

영원하리라, 나의 삶, 인민의 삶의 터전은

저 웅장한 개신문 은빛지붕- 내 나라의 하늘에서

무궁토록 해와 달이 솟고솟아



평론문학이 선도적역할을 다하도록 이끌어주시어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우리 시대의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평론은 철두철미 당의 주체적문예사상과 리론을 견결히 옹호고수하고 널리 해설선전하는 위력한 무기로 되어야 합니다.》

오늘 문학예술작품에 대한 평론은 당의 주체적 문예 사상과 리론을 옹호고수하고 해설선전하는 철저한 사상리론적무기로 되고있다.

여기에는 평론이 자기의 선도적역할을 다하도록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신 위대한 평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어있다.

1967년 2월 초 어느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일군들에게 당보에 실린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 대한 관평 《미제침략자에 대한 준엄한 단죄》에서는 제기된 기본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하여 정확히 분석되었다고 하시면서 관평에서는 최목사의 비극적인 운명을 통하여 미제의 본성이 무엇이며 사람들은 미제에 대하여 어떤 립장을 견지하여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심오한 예술적해답을 주었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는 미제를 비롯한 제국주의에 대하여서는 그 어떤 사소한 기대나 환상을 가져서는 안되며 오직 제국주의를 반대하여 원칙적인 립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견결히 투쟁하여야 한다는 사상을 힘있게 강조하고있다고 하시였다.

이 관평에서는 미제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서는 개인이나 집단이나간에 그들이 아무리 주관적으로는 민족을 위하고 나라를 위한다고 하여도 그것은 한갓 자기 기만에 불과하며 결국 자신과 나라를 망치고 민족을 팔아먹는 매국배족의 구렁텅이에 빠지고 만다는 사상을 밝혔다.

그리고 40년동안을 예수를 믿으면서 숭미사상이 골수에 배인 최목사의 성격적특징을 그의 모순되고 복잡한 내면세계와 어리석고 미련한 행동과 밀접히 결부하여 분석하였다.

그런데도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과분하게도 관평을 이처럼 높이 평가해주신것이다.

일군들은 한없는 걱정으로 마음이 뚫어올라 어찌할바를 몰랐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계속하시어 우리가 이 영화의 창조사업을 지도하는 과정에도 말하였지만 피뢰군장교인 최성근은 아버지와는 달리 미제가 자기 한몸과 이남사회 전체를 휘감고 숨통을 조이는 독사로 알면서도 그것을 감수해야 하는것이 《약소》 민족의 슬픔이라고 여기는 공미분자였

다고 하시면서 이러한 그가 어찌하여 쏘라고 하는 종지기 할아버지는 쏘지 않고 살인자인 킹그스터에게 총부리를 돌리게 되는가 하는 성격변화과정을 설득력있게 밝혀냈다고 하시였다.

그러시면서 그이께서는 한마디로 말하여 관평 《미제침략자에 대한 준엄한 단죄》는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서 말하려고 하는 사상주제적내용을 논리성있고 설득력있는 필치로 잘 분석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사실 이 관평이 논리성있게 잘 되게 된 가장 중요한 문제는 글에서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와 같은 훌륭한 작품을 만들수 있도록 친히 생활소재를 찾아주시고 영화문학과 연출대본 그리고 영화의 첫 필림도 보아주시면서 하신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와 영화창조과정에 당에서 준 지도내용을 철저히 구현하여 만든 영화에 대하여 여러모로 깊이 연구한 바로 그때문이었다. 여기에 바로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 대한 관평이 성과를 거둔 비결이 있는것이다.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또한 문학예술작품평론은 논리성이 있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고 하시면서 평론의 논리는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의 논리로 되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에 기초한 논리만이 가장 정당하고 심오한 평론의 논리로 될수 있으며 설득력있고 건인력있는 평론의 논리로 될수 있다.

그렇다고 하여 평론집필에서 당의 문예 사상과 리론을 기계적으로 그대로 옮겨놓는것으로 하여서는 안된다.

평론을 쓰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적문예 사상과 리론에 담겨진 심오한 철학과 미학사상을 깊이 체득하고 그의 논리전개 원칙과 방법을 구현하는것이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문학예술작품평론은 예리하고 날카로와야 할뿐아니라 뜨겁고 동지적이어야 한다고 하시였다. 친애하는 그이의 말씀을 깊이 되새기는 일군들은 문학예술작품평론에서 비판이 무엇때문에 중요하며 평론에서는 왜 동지적이어야 하는가를 뜨겁게 감수하게 되었다.

참으로 우리의 문학예술작품평론은 부르조아적이며 수정주의적인 온갖 이색적인 사상조류와 그 사소한 경향과 요소에 대하여서도 예리하고 날카롭게 폭로비판하고 철저히 깃부셔버려야 하는것이다. 날카로운 비판이 없이는 진정한 의미에서의 문학예술평론의 건전한 발전에 대하여 기대할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 문학예술이 이룩한 성과와 긍정적인 싸에 대하여서는 열렬한 공감과 뜨겁게 대하여 사랑하고 적극 내세워야 한다.

공정에 대한 열렬한 공감과 뜨거운 사랑이 없는 평론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릴수 없고 우리 문학예술의 발전에 도움을 줄수 없다. 평론은 어디까지나 단결의 원칙에서 동지적인 의리와 믿음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이께서는 또한 문학예술작품평론은 재미있고 감칠맛이 나게 써야 함에도 불구하고 어떤 작가들은 문학예술작품을 쓰는것보다 훨씬 쉬운것으로 여기는데 그것은 잘못이라고 하시면서 평론도 소설이나 희곡에 못지 않은 창작이라고 하시었다.

크나큰 믿음을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말씀을 받아안은 일군들은 우리 평론가들이 쓰고 있는 평론에 대하여 깊이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었다. 지금 일부 평론들이 딱딱하고 무미건조한 것은 평론가들의 사색의 빈곤과 창작적재능의 부족에 그 원인이 있었다. 잘된 평론은 형상성이 부족한 소설을 보는것보다 훨씬 재미있고 읽을 맛도 있지 않는가, 또 세상에는 작품에 대한 론평이나 관평을 잘하여 유명하여진 사람들이 그 얼마나 많은가, 평론가들이 자기의 평론이 실제로 작가들에게 도움을 주고 독자들에게 읽히게 하려면 론리만 앙상한 글이 아니라 론리도 있고 정서도 있으며 재미도 있는 그런 글을 써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세심한 가르치심을 받으면서 일군들은 문학창작을 선도하는 평론을 잘 쓰는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것을 깊이 절감하였다.

이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만일 작가가 열을 알고 하나를 글에 옮긴다면 평론가는 백을 알고 하나를 글에 옮겨야 문학예술을 옳바른 길로 이끄는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작가, 예술인들의 친근한 길동무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할수 있다고 말씀하시었다.

일군들의 생각은 더없이 깊어졌다.

평론가들은 문학예술운동을 옳바른 길로 이끄는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작가, 예술인들을 훌륭한 작품창작으로 고무하는 친근한 벗이다. 평론가들은 자신이 창작하는 평론의 사상에술적 수준을 높이려면 학습을 많이 하여야 한다. 평론이 우리 당 문예전선의 믿음직한 방조자이며 작가, 예술인들의 벗으로서의 사명과 역할을 다하도록 하려면 평론가들은 누구보다도 우리 당의 주체적문예 정책과 로선으로 튼튼히 무장하여야 할뿐아니라 정치, 경제, 문화, 군사의 모든 분야에 대한 다방면적인 지식을 소유하여야 하며 생활에 대한 풍부한 체험이 있어야 한다고 그들은 생각하였다.

실로 당보에 실린 예술영화 《최학신의 일가》에 대한 관평 《미제침략자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보시고 하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말씀은 지난 시기 우리 평론가들이 제나름의 견해를 가지고 당의 문예정책을 깊이 연구하지 않고 쓰던 평론으로부터 우리 당의 문예 사상과 리론을 옹호하고 해설선전하며 당의 지도밑에 이룩된 문학예술적성과를 분석하고 일반화하는 힘있는 평론을 집필할수 있게 한 불멸의 지도적지침으로 되었다.

본사기자

김정일 그이는 사회주의의 불패의 성새

알리 후두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주의가 무너졌어도
조선은 끄떡없이
사회주의의 등대로 솟아있다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위업을 이어가시는
김정일동지는 용감한 투사
그이께서 이끄시는
주체의 사회주의는 승승장구한다네

리론실천적으로

사회주의를 건결히 고수해가시는 **김정일**동지
불후의 로작들을 발표하시여
원수들을 전롭게 하시었네

불패의 사회주의성새 되시여
기회주의와 건결히 싸우시는 **김정일**동지
주체의 락원을 공고발전시키기 위한 투쟁으로
인민을 령도하시며
세계인민들에게 국제주의적지원도 아낌없이
주신다네

(필자는 베닌건설로동당 총비서임)

금반지

김 영

반지 낀
어머니의 손을
쫓아보느라니
왜 이리 생각은 깊어지느냐

봄철에 꽃철에
버들가지 꺾어든
너인의 희디흰 손에 끼워진
금반지라면

길게도 살자고
백년해로를 하라고
끼워주는 반지
그런 금은반지라면

아니여라
나의 어머니의 금반지
해빛 눈부시던 그날
마디마디를 쫓아주시고 또 쫓아주시며
장군님 끼워주신 금반지...

광복의 길이 십만리만 된다면
걸어서라도 그 길을 가당으련만
기약할수 없는 혈전의 수천만리길
그 길을 가야 하기에
칠혹같은 머리도 자르고
남의 집 문전에 갓 난 자식을 떼어놓고
돌아서며 눈물젖던 손에

미시가루 한흙이
강냉이 몇알이
온 대오의 군량이였던
그 남패자의 겨울에
차디찬 생눈을 움켜 삼키던
그 손에

오, 눈에 열고 불에 타고
바람에 터지고 비에 씻기며
이 나라 장장력사에
가장 간고한 준령을 넘어온
백두산의 꽃

그대들의 손과 손에
장군님은 끼워주셨더라

너투사들
장군님 두손을 부여잡고
장군님은 너대원들의 손을 못놓으시는데
장군님도 우시고
너전사들도 울고 또 울고...

승고하여라
이제! 그들이 가면
이 세상에 다시 없을
이 나라 항일의 너전사들

그대들의 생을
금옥처럼 빛내주시려
장군님 끼워주신 금반지
금강의 옥돌에 닦고
천지의 맑은 물에 씻어 빛나나

부러웁구나
장군님을 옹위하고
목메여 울고 웃던
백발의 너투사들 모습
백두산 신선들 같아라

부러워
그 신선의 금반지 부러워
나도 끼워보는데
아니구나!
너투사의 친딸이 껴도
나는 것처럼 아름답질 않으니

순간
내 심장의 메아리
이 세상에 금은반지 낀 너인은 많아도
백두산에서 내려온
항일의 너충신들
태양의 반지를 간직한
그대들처럼 고결하고 아름답게 빛나는
너인들의 생은 없구나

병사들이 부르는 행복의 노래

끈적끈적한 장마철날씨도 물러가고 어느덧 아침저녁으로 선들선들 건바람이 뜨문히 불어오군 한다.

터질듯 물이 오른 산과 들의 온갖 열매가 서서히 향기를 머금어가는 계절에 들어서고있다.

이즈음에 우리는 류다른 걱정을 안고 또 하루의 명절을 맞았다.

조국광복의 날.

대대로 머슴살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녹녹한 풀방에서 뛰쳐나와 목이 터지라 만세를 부르고 슬픔과 원한의 눈물이 마를새 없던 초가마을들에 처음으로 기쁨이 찾아들었던 날.

감회속에 그날을 그려보노라면 인민의 머리위에 무겁게 드리웠던 망국의 설움을 가져주시려 항일의 혈전만리를 헤쳐가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만고풍상의 자옥자옥이 밝혀온다.

참으로 우리 수령님 나라찾을 큰뜻 품으시고 만경대고향집을 나서신 그날부터 걸으신 혁명의 길은 걸음걸음이 혈로였고 하루하루가 풍찬로숙의 날이었다.

스무해 긴긴세월 력사에 류례없는 간난신고를 다 겪으시며 어버이수령님께서 찾아주시고 한평생을 바치시여 꽃피워주신 조국.

오늘은 우리의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께서 한 품에 안으시고 빛내가시며 그 어떤 원썬들도 건드리지 못하게 지켜가고계신다.

얼마나 격동적인 소식들이 전해지며 이 땅의 하루하루가 흘러가고있는가.

년초부터 끊임없이 《인민행렬차》를 타시고 동부와 중부, 서부에 이르기까지 최전연고지의 산발들을 누벼가시며 인민이 안겨있는 행복의 요람을 지켜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보살피심속에 날과 달이 이어지는 우리 생활.

감격의 이날을 맞으니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멀고 험한 설령길을 헤치시던 어버이수령님의 로고의 자옥이 뜨겁게 안겨지고 인민의 행복을 가꾸시며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걸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숭엄한 모습이 가슴에 미쳐온다.

지금은 어느 초소의 병사들을 찾으셨을가. 적들의 아성이 지척인 어느 고지우에서 적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시며 병사들을 품에 안고 명절의 하루를 보내고계실가.

이런 생각에 부쳐 우리는 뜻깊은 이 아침 다박술 덮인 초소에서 병사들의 노래를 듣고있다.

맑은 시내가에 버들꽃 피는

화창한 이른봄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

초소에 오셨네

아 - 인자하신 그이 모시고

중대가 모여앉았네 행복이 꽃폈네

그들이 부르는 노래의 여운에 잠겨들수록 내 나라를 지켜선 인민군병사들을 제일로 여기시며 그들의 다심한 아버지가 되시여 어버이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께서 찾으셨던 잊을수 없는 그날이 또다시 떠오른다.

1966년 3월의 어느날.

그날은 날씨도 푸근한 일요일이었다.

이날 인민군 어느 한 녀성중대에서는 봄철위생 문화사업을 진행하는 한편 부업밭에서 씨불임작업을 하였다.

한낮이 되어 밭에서 모두 일손을 떼고 들어간 지 퍼그나 되어서야 한 녀병사는 일하던 뒤거두매를 해놓고 들어가고있었다.

봄바람에 생기에 넘친듯 단발머리를 나풀거리며 걸어오던 그의 경쾌한 걸음이 중대가 내려다 보이는 둔덕에 미쳐 그만 멎어섰다.

(웬 승용차들일가?)

운동장마당에는 전에없이 승용차들이 줄지어 서있었다. 중대군인들은 한사람도 보이지 않고 사랑도 조용했다.

고개를 기웃거리며 운동장에 다달은 그는 운전사인듯싶은 한 사람에게 물었다.

《우리 중대에 누가 오셨나요?》

《전사동무는 아직 모르고있구만. 현지지도의 길을 가시던 어버이수령님께서 초소에 선 동무들이 보고싶다시며 들리셨소.》

《예, 어버이수령님께서요?》

그는 너무 기뻐 발까지 동동 구르며 돌아가다가 병실로 나는듯이 달려갔다.

한초라도 더 빨리 수령님의 품에 안기고싶은 심정으로 병실앞에까지 다달은 그는 그만 못박힌듯 그자리에 서버리었다.

갑자기 자기 옷차림에 눈이 갔던것이다.

일하고 오던 참이라 차림새는 험했다.

입고있는 솜옷에는 여기저기 진흙이 시뻘겔게 발려있었고 신고있는 투박한 솜신발에는 진흙이 덕지로 매닥질되어있었다.

(아이, 어떤담.)

안타까움으로 그의 가슴은 세차게 방망이질하였다.

새옷을 병실안 침대맡에 보관해두었으니 이를 어쩔단 말인가.

타들어가는 가슴을 팍 붙잡고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병실창문에 다가간 그는 높은 창문을 발돋움하여 가웃이 들여다보았다.

얼마나 뵈고싶은 어버이수령님이신가. 간절한 소원을 그렇게라도 이루고싶은 심정이 불같이 타올랐던것이다.

손바닥을 눈가에 오그려붙이고 살그머니 들여다보니 만면에 환하게 웃음을 담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한창 중대동무들속에 싸이시여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고계시는것이였다.

수령님을 모시고 앉은 동무들의 얼굴엔 웃음꽃이 한껏 피어있었고 간간이 즐겁게 웃음도 터뜨리곤하였다.

(야, 얼마나 행복할까. 옥이, 경심아.)

그는 너무도 속이 상해 눈물까지 그렇그렇고 여가지고 창문안에 대고 손을 저어보았다.

그러나 어버이수령님을 우러르고있는 중대성원들은 누구도 창밖에 얼굴을 돌려주지 않았다.

그럴수록 속은 더욱 바질바질 타들어 창문에 더 바투 다가서는데 등뒤에서 다정한 음성이 들리는것이였다.

《전사동무, 왜 울고있소?》

뜻밖에도 자애로운 미소를 담으시고 젊으신분이 그에게로 다가오시였다.

너병사는 누구신지 몰랐으나 인차 친근감이 가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였다.

《아, 그렇구만!》

그의 대답을 듣고나신 그이께서는 가볍게 웃으시며 머리를 끄덕이시였다.

《정말 그 옷이 말이 아니구만! 그래 갈아입을 옷이 어디에 있소?》

《저...》

《미안해하지 말고 어서 말하십시오.》

《저... 사실은 제옷이 어버이수령님께서 계시는...》

《그렇다?!》

그이께서는 잠시 무엇인가 생각하시더니 부드럽게 말씀하시였다.

《수령님을 만나뵈워야지. 여기까지 오신 수령님을 만나뵈지 못한다면 평생을 두고 서운해할텐데...》

전사동무, 여기서 잠깐 기다리시오.》

그분께서는 급히 병실로 들어가시는것이였다.

너무도 송구스럽고 죄스러워 그는 얼굴을 싸쥐고 주저앉고 말았다.

조금있어 그는 그분께서 가지고 나오신 새 군복을 받아들였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는 치밀어오르는 걱정을 누르며 새옷을 갈아입었다.

그가 입은 새옷을 일일이 보아주시던 그이께서는 미처 신발을 갈아신지 못하여 안절부절하고있는 그에게 숨신발에는 바지가 더 어울린다고 위로해주시며 옷때무시를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시였다. 그러시고는 그의 등을 가볍게 밀어 병실로 이끄시더니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있는 동무들속에 끼여앉게 해주시였다.

소원은 풀렸다. 그의 영광과 기쁨은 하늘가에 닿을것만 같았다.

그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너병사들과 담화를 끝내신 다음 그들의 소원대로 기념사진을 찍어주겠다고 하시였다.

모두가 기쁨에 함뿔 취하여있는데 그 너병사만은 딱한 일로 가슴이 죄여들었다. 자기만 바지를 입은 차림새였던것이다. 옷을 갈아입을새가 없지, 그렇다고 시간을 놓친다는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었다.

다시 울상이 되어있는 그에게 또다시 그분께서 다가오시였다.

《일없소, 어서 나가자구.》

그의 마음을 다 들여다보신듯 그이께서는 너그럽게 웃으시며 그를 데리시고 몸소 그가 설 자리까지 잡아 세워주시였다.

《동무, 앞줄에 서지 못한다고 너무 섭섭해하지 마오.》

그자리에 서니 신통히도 앞동무, 옆동무에 가리워져 아래부분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는 이렇게 중대동무들과 함께 어버이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진까지 찍으며 뜻깊은 하루를 보내였던것이다.

하지만 그날 너병사는 자기의 일생소원을 그렇듯 훌륭히 풀어주신 고마운 그분이 누구이시였는지 미처 몰랐었다.

그리도 너그럽고 너무나도 스스럼없으시여 인생의 영광을 다 받아안으면서도 위대한 장군님을 알아뵈지 못하였으니...

인민을 찾으시면 자식을 세간엔 어머니의 심정으로 생활의 구석구석을 돌봐주시고 병사들을 찾으시면 살뜰한 만형, 만누이가 되시여 마음속 사연과 소원까지 헤아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

경애하는 그이께서 다녀가시는 일당백병사들의 초소마다에서 태어난 이런 감동깊은 일화들을 어찌 다 꼽을수 있으랴.

최고사령관이시기에 앞서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는분.

하늘길 배길도 함께 가시며 멸적의 투지와 힘을 키워주시는 친근한 령장.

그래서 저렇게 우리의 병사들 노래를 불러도 장군님의 그 사랑 노래부르고 맹세를 다져도 장군님 사수해갈 하나의 일념으로 심장을 불태우는 것 아니라.

만나뵈온 기쁨 심장마다에
행복의 노래가 되고
다정하게 하신 그이의 말씀
영원한 힘을 주셨네
...

우리는 병사들이 틀어잡은 총검이 번쩍이는 이
산정우에서 웨치고싶다.

사람들이여 새겨보시라.

세상에 널리 알려진 녀성해안포병과 약크림에
깃든 사연들, 전연초소의 이름없는 전사들과 허
물없이 나누시던 우리 장군님의 야전점심식사에
대한 이야기며 철령의 병사를 껴안으시고 찍어주
신 기념사진, 방선의 전사들과 함께 있을 때가
제일 좋다시며 해군절의 하루도 바다가초소에서
보내시고 병사들이 일떠세우는 창조물들을 일일
이 돌아보시며 조국청사에 아로새길 업적이라 일

려주시는 경애하는 장군님의 크나큰 믿음을...

그러면 알수 있으리라.

행복의 노래 부르고 부르는 저 병사들의 눈
가에 비긴 자랑과 궁지에 대하여,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를 결사옹위하여 한목숨바쳐 싸우
려는 그들의 신념과 의지가 어디에 뿌리박고있고
그들이 지켜선 내 나라 금성철벽의 요새가 무엇
으로 다져져있는가를.

정녕 우리 장군님께서 찾으시는 초소마다에선
적들의 숨통을 거머쥐신 그이의 담대한 기상과
지략에 먼저 전사들을 위하여 바치시는 사랑의
세계가 펼쳐져 사람들의 심장을 울려주거니.

하기에 감격을 안고 저들이 부르는 노래소리에
우리의 신심도 백배에 넘치는것이여라.

본사기자 로창일

유격구의 메아리

리동후

낮에는 씨앗을 뿌리고
밤에는 총칼을 버리고
가난서린 유격구마을에도
엄혹한 겨울넘어 봄이 왔어라

풀무야 뽕뽕 세차게 불어라
쇠메야 팡팡 단쇠를 두드려라

촌락에 온통 불타버린 수난속에
쓰러진 형제들 그 얼마나
간악한 일제원췌 복수를 위해
야장간의 불 심장에 타번져라

이밤도 높은 령 저 너머
밀림속 숙영지로 마음은 나래치나니
유격대원들 잠못들며 얼마나 기다리랴
분노와 원한서린 총칼과 작탄을

끓주리고 쓰러지면서도
유격구를 수호하는 높뛰는 심장의 박동
풀무소리 메질소리와 하나로 어울려
끝안을 찡찡 뒤흔들어라

하늘의 번개라도 휘여잡을듯
기세충천한 사나이 대장부들
획획- 장단맞춰 후려치는 메질소리

반일전에 불리세우는 혁명의 메아리여

그 메아리속에 들려와라
총검의 숲을 헤쳐
일제놈들 머리우에 불벼락 안기는
만세소리 환호소리

승리의 진군길 따라
붉은기 날리는 유격구마을에
삶이 약동하는 봄의 숨결
새날의 아침노을로 비껴오거니

불어라 풀무야
울려라 쇠메야

낮에는 씨앗을 뿌리고
밤에는 총칼을 버리고
모진 횡포와 시련을 맞받아
날을 따라 높아지는 야장간의 메아리는
울려 끝없는 투쟁의 노래

그 메아리
식민지 예측의 철쇄를 부시는
불우뢰 불우뢰 되여
광복의 봄 불려오는
장엄한 승전고로 울리였어라

명언해설

《충효는 혁명가의 최고인격이다》

김정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이 명언은 수령에 대한 충성과 효성이 혁명가의 기본품성이며 가장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라는 깊은 뜻을 담고있다.

인격이란 인간으로서 가지는 품위와 자격을 말한다.

사람의 인격에서 기본을 이루는것은 그의 정신도덕적풍모이다.

혁명가의 인격은 혁명가로서 지니는 품모와 품격이며 그것은 혁명에 대한 충실성에 의해 평가된다.

혁명에 대한 충실성은 수령에 대한 충실성과 효성에서 가장 높이 발양된다.

수령은 혁명의 최고뇌수이며 통일단결의 중심, 령도의 중심이다. 그러므로 혁명가의 인격은 수령을 모시는 자세와 립장, 수령의 위업에 대한 태도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

혁명가의 충효는 수령을 해와 달이 다하도록 영원히 높이 받들어모시는것을 혁명적의리로 여기는 가장 깨끗한 량심이며 수령이 개척한 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하려는 확고한 신념과 의지이다.

혁명가의 정신도덕적풍모에서 이보다 더 순결하고 숭고한것은 없다.

그러므로 충효는 혁명가의 최고인격으로 된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에 대한 숭고한 충효심을 최상의 높이에서 체현하고계시는 최고의 인격자이시다.

우리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경애하는 장군님의 충효심의 숭고한 모범을 따라배워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에 대한 충실성을 신념화, 량심화, 도덕화, 생활화해나감으로써 혁명가의 고상한 풍격을 끊임없이 완성해나가야 한다.

나의 걸음은

최명철

어서 떠나라 통근렬차여
수놓은 완장을 팔에 낀
렬차원치너야
어서 승강대에 올라서
푸른 기발을 들어라

나는 걸어서 가련다
바다를 향해 떠나는 걸음
땅을 더 많이 밟고싶다
이 거리를 가슴에 새기며
이 아침을 한번 더 가슴에 안으며

이제 떠나면 먼먼 바다
하늘빛도 땅모양도 낮이 선
남의 나라 항구
어지러운 거리

눈길들이 자석처럼 돈에만 끌려
서로서로가 남이고 원쑤인

생존경쟁의 그 각박한 세상에
이런 아침이 있던가
내 고향도시의 이런 밝은 웃음

보고보아도 다시 보고픈
정든 내 거리 화목한 한가정
창가에 꽃이 핀 생활의 웃음
먼바다 무역의 길 떠나는 이 아침
나는 하나라도 더 안고가련다
학교가는 아이들의 저 맑은 눈동자도
마음에 새겨안고 가련다

어서 떠나라 통근렬차여
잇달아 들어서며 문을 여는
빠스여 어서 떠나라
나는 걸어서 가련다
이 아침 나의 이 활기찬 걸음까지도
마음속에 다 안고 가련다

영원한 녀

김도환

남행려객렬차는 사람들로 붐비었다.
 《쳐너동무, 여기 와서 앉소.》
 《아니, 이쪽에 자리가 있소!》
 《그러지 말구 이 손님이 다음역에서 내리는데 이 자리에 앉지.》
 중간역에 서 오른 한 녀성을(쳐너갈아 보였다.) 향하여 사방에서 자리를 권하였다.
 무척 아름답게 생긴 녀성이었다.
 무용수처럼 곡선미가 흐르는 몸매에 까만 양복을 단정하게 차려입었는데 닭알형의 흰 얼굴에서 호수같이 그윽해보이는 두눈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녀인은 얼마전까지 XX전적지관리소 해설강사로 일해온 정시내였다. 한달전에 결혼한 그는 지금 해외에서 외교일군으로 사업하는 남편을 따라 떠난 길이었다.
 사람들에게 항일선렬들의 숭고한 녀을 안겨주던 보람찼던 강사생활은 벌써 아득한 옛일처럼 돼버리고 정든 사람들과 정든 교장을 떠나 낯선 이국땅, 미지의 생활을 향해 가는 길이었다.
 《이쪽에 오십시오. 여기에 자리가 있다질 않습니까!》
 곱슬머리에 몸이 딱 바라진 청년이 목청을 한 옥타브 높이며 지긋게 자기쪽으로 불러댔다. 시내는 웬일인지 주저하게 되었다.
 시내가 주춤거리자 청년의 옆에 앉은 눈이 큰 할머니까지 결따라 빈자리를 손으로 툭툭 치며 청하였다.
 《새애기, 왜 그리구 섰나? 어서 여기와 앉으라는데 두...》
 교수머리청년은 움쭉 자리에서 일어나 시내의 손에서 려행용가방을 빼앗다싶이 받아서는 머리의 선반에 넉넉 올려놓아주기까지 했다.
 시내는 랑미간에 알릴듯말듯 주름살을 지었다.
 《고마워요.》
 시내는 할수없이 교수머리청년이 권하는 자리에 앉았다. 희속희속한 머리에 안경을 낀 오십대의 점잖은 사람이 차창결에서 새로 나온 문예잡지를 뒤적이다가 머리를 돌려 눈인사를 하며 자리를 고쳐앉았다.
 선반우에 가방을 엮고난 교수머리청년은 웬일인지 시내를 찬찬히 살펴보면서 무슨 말을 할듯 머뭇머뭇했다.
 《어디서 본것 같은데...》

시내는 눈길을 돌려 낯선 청년의 얼굴을 의아하게 쳐다보았다.
 《저 혹시...갑령무명렬사묘앞에서... 해설강의를 하던 강사동지가 아닙니까?》
 교수머리청년의 두눈은 벌써 반가움에 번쩍이 고있었다. 그러나 시내는 아무리 더듬어보아도 면목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리거나 말거나 교수머리청년은 활기에 넘쳐 떠들어댔다.
 《글쎄 어디선가 딱 본 모습같다고 생각했는데... 강사동지가 틀림없구만요. 강의할 때처럼 군복차림이요으면 인차 알아봤겠는데... 양복차림을 하니 어쩐지 좀 달라져보입니다. 강사동지에겐 군복차림이 더 어울리던데...》
 교수머리청년은 시내의 양복차림을 보며 서운한 표정을 지었다.
 시내는 가끔 이렇게 낯선 사람들로부터 인사를 받을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친근한 웃음을 지어보이곤 했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했다. 어쩐지 교수머리청년의 지나친 호의와 아는체하며 너스레를 떠는것이 별로 달갑지 않았던것이었다.
 《절 모르겠습니까?》
 교수머리청년은 입귀에 금이를 반짝이며 인상 좋게 웃었다. 시내는 도리머리를 저었다.
 《누구신지?...》
 《작년 8월초에 우리 영산신발공장에서 그곳에 답사를 갔었지요.
 발바닥에 물집이 생겨 제가 절룩거리는데 강사동지가 곁에 와서 령마루까지 함께 걷지 않았습니까?》
 《그래요?》
 시내는 례외적인 어조로 대답했다.
 《왜 생각나지 않습니까?》
 청년은 머리를 기웃거리며 말을 이었다.
 《그때 걸으면서 강사동지가 갑령의 나무 한그루, 풀 한포기에 깃들어있는 항일혁명투사들의 발자취에 대해 얼마나 감명깊게 이야기해주던지... 참, 그렇게도 기억되지 않는단 말입니까?...》
 아, 그렇지, 그때 내가 강사동지가 신은 신발을 보고 우리 공장에서 만든것이라고 하자 질이 썩다라고 칭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호, 그런 일이 있었던가요... 하루에도 답사생이 몇백명씩 되다니...》
 시내는 변명하듯 말했다.

《하 참...》

고수머리청년은 몹시 섭섭해하였다.

이때 곁에 앉아있던 할머니가 청년을 나무랬다.

《참 답답두 하지, 하루에도 몇백명씩 되는 답사자들을 어찌 다 기억한단말인가... 글썄 자네가 유명한 박사나 이름을 떨친 영웅이라면 몰라두...》

《차, 이 할머니가...》

시내는 두사람의 악의없는 싱갱이질을 웃음을 머금고 지켜보았다. 보매 차를 타고오면서 이미 여러차례 싱갱이질을 벌려온것 같았다.

고수머리청년은 시내에게 눈길을 돌리며 말을 계속했다.

《강사동지는 저를 기억하지 못해도 저는 정말 잊혀지지 않습니다.

태고연한 밀림속 한복판에 솟아있는 렬사묘앞에서 강의하던 강사동지의 그 모습말입니다.》

수다스럽게 느껴지던 첫 인상과는 달리 어딘가 모르게 진실성이 보이는 청년이었다. 시내는 입가에 미소를 그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기억력이 꽤 좋은데요.》

《고마운 처녀의 모습이니 잊혀지지 않았겠지.》

할머니가 능청스러운 눈길로 청년을 보았다.

고수머리청년은 할머니의 그 말에는 별로 개의치 않았으나 기억력이 좋다는 시내의 말에는 매우 언짢은 표정을 지었다.

차창밖으로 가없이 푸른 바다가 펼쳐지고 갈매기들이 희끗희끗 날아예는것이 보였다. 잠시 수평선 그 어딘지를 응시하고있던 청년은 혼자소리처럼 말했다.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지요.》

시내는 그 어조가 별로 의미심장하게 들리었다.

청년은 방금 수다를 떨던 사람같지 않게 심중한 표정을 하고있었다.

《그때의 일을 제가 어찌 잊을수 있겠습니까?》

청년의 음성은 낮으나 격정에 차있었다.

《렬사의 령혼이 서리서리 영켜있는듯한 밀림의 그 숭엄한 정적, 바람도 새들도 밀림과 속삭이는데 강사동지는 군복차림에 한손을 경건히 쳐들고 강의를 해주었지요. 열정에 빛나던 그 눈동자, 그 은근한 목소리, 그것은 정말 렬사들의 숭고한 넋을 불러내는듯한 신비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시내는 한순간 어리둥절하였다.

《시적인데요.》

《참 말도 잘하는구만. 거 방송원을 몇해 하지 않았나?》

할머니가 감탄하였다.

《웃지 마십시오. 룡담이 아닙니다.》

청년이 성난것 같아보였다. 시내는 입가에 떠오르던 미소를 거두며 청년을 주시했다.

그의 약간 조프려진 두눈은 깊은 추억에 잠긴듯했고 얼굴표정은 어찌보면 숭엄해보이기까지했다. 시내는 침을 꿀꺽 삼키었다.

고수머리청년은 가라앉은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때 렬사묘앞에서 묘비에 새겨진 글발을 읽던 강사동지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귀전에 그대로 울려오는것만 같습니다.

<영원한 명복을 빌어 그대의 령혼을 조국땅에 안치하노라.

조국이여! 그대품에 영원히 안아주라! 김...>

진정 잊을수 없는 비문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우리 후대들에게 전하는 렬사들의 잊지 못할 유언이라고도 할수 있지요.》

시내는 그만 놀라움에 넘친 눈길로 고수머리청년을 바라보았다.

방금 《기억력이 좋아서가 아니지요.》 하고 언짢은 표정을 짓던 그 말이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귀전을 때리며 가슴속에 커다란 파문을 일으켰다.

할머니도 이 순간에는 눈을 크게 뜨고 청년을 바라볼뿐이었다.

안경을 낀 사람이 머리를 쳐들었다.

《거 묘비내용이 아주 의미심장하구만요. 나는 지질연구사인데...》 그는 자기 소개부터 하면서 말을 이었다.

《갑령지구에 매장된 광물의 가지수를 빠짐없이 알아내면서도 렬사묘부터 알아볼 생각을 미처 못했구만.》

연구사는 큰 실책이라도 범한듯이 넓은 이마를 천천히 문질렀다.

그는 시내에게 기대어린 눈길을 주며 말했다.

《묘비에 분명 깊은 사연이 깃들어있는것 같구만.》

할머니도 커다란 눈에 호기심을 담고 시내를 쳐다보았다.

시내는 말없이 차창밖을 내다보았다.

넓고넓은 바다 어딘가 멀리서 흰 이랑을 지으며 파도가 끊임없이 밀려와서는 바다가에 빈틈없이 깔려있는 조약돌을 철썩철썩 때리었다.

시내는 문득 지난날의 강사시절로 되돌아온듯한 자신을 느꼈다.

저멀리 수평선너머로 가물가물 사라져가는 기선처럼 멀어져간다고 생각했던 그 강사생활속에 다시금 험싸이게 되지 않았는가.

시내는 습관적으로 옷매무시를 바로잡고 목청을 가다듬었다.

《몇해전 전국도처에서 구호나무들이 발굴될 때
갑령의 밀림속에서 진대나무에 씌여진 묘비를
발견하였습니다.

금방 이 동무가 외운 그 비문이지요. 그래서
그 묘비 주변을 살펴보니 락엽밑으로 약간 두드러
진곳이 있었습니다. 헤쳐보니 군복차림에 이마에
봉대를 감은 흔적이 있는 키가 큰분의 유해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비문에 있는 그 렬사의 유해
였습니다.》

《원, 기차가두… 그러니 수십여년세월 인적도
없는 그 산중에서 임자도 없이 홀로 묻혀있었던
말인가?》

할머니의 목소리는 눈물에 젖어 떨고있었다.

《부모들도 모르겠지… 총각인지… 장가간분인
지…》

《할머니, 세월이 하도 오래다보니 진대나무가
눈비에 삭아서 렬사의 이름을 알아볼수 없게 되
었습니다.》

《저런, 쫓쫓…》

《강사동지, 아직도 그 렬사의 이름을 찾지 못
했습니다까?》

고수머리청년은 안타까운 눈길로 쳐다보았다.

시내는 말없이 그들을 둘러보았다.

렬사의 이름을 알고싶어하는 사람이 어찌 고수
머리청년 하나뿐이라. 무명렬사묘에 답사오는 사
람이면 너나없이 묻군하지 않았던가.

그래서 시내도 더욱 렬사의 이름을 알아보려고
그처럼 마음을 썼는지도 몰랐다.

한번은 갑령지구쪽으로 자주 지하공작을 나왔
다는 로투사를 찾아가 만나기까지 했었다.

투사는 갑령전적지 해설강사라고 시내가 자기
소개를 하자 마치 친딸을 만난듯 반겨맞아주었
다.

거뿔거뿔한 얼굴에 깊숙이 패여진 주름살, 험
난했던 세월의 눈비속을 헤쳐온 자취런가, 로투
사는 눈가에 추연한 빛을 띠고 말했다.

《그래, 내손으로 전우를 묻었겠지.》

그때 시내는 렬사의 이름을 찾게 되었다는 기
쁨에 숨이 팍 막히는것 같았다.

《이름을 찾았습니까?!》

고수머리청년은 흥분하여 웨쳤다. 할머니는 더
욱 눈을 크게 떴고 연구사도 숨을 죽이고 그를
쳐다보고있었다.

시내는 입술을 감쌀고나서 말을 이었다.

《로투사는 기억을 더듬어가며 자기 손으로 안
장한 전우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대오를 이끄시고 무산지구
에로 진출하신 때였어요. 바로 렬사의 그 시각에
울기강이 소란스레 흐르는 골짜기를 따라 세명
의 조선인민혁명군 대원이 총소리를 높이 울리며

달리고있었습니다.

조국에 진군한 주력부대의 뒤에 달린 적들을
유인해가는 소부대성원들이였어요. 마구 쏘아대
는 적탄에 나무껍질이 찢겨져 떨어지고 바위돌이
부서져 튕겼답니다.

그때 앞장에서 성큼성큼 뛰어가던 키가 큰 대
원이 두만강이 발밑에 굽어보이는 츠령바위우에
서 그만 가슴에 치명상을 입고 쓰러졌습니다. 그
는 전우의 무릎을 베고 마지막 숨을 토폴으며 <나
를…조국땅에… 묻어주오.>하고 유언을 남기었습
니다.

장군님따라 조국땅에 안길 그날을 그리며 그치
럼 사신을 헤쳐온 전사는 이렇게 이역땅에서 숨
을 거두었습니다.

렬사의 유언을 지켜 투사는 그의 시체를 업고
두만강을 건너와 조국땅 어느 이름없는 골짜기에
안장하였답니다.》

《음- 얼마나 조국땅에 안기고싶었으면 죽으면
서까지 그렇게…》

할머니는 코를 훌쩍이며 저고리고름을 눈가에
가져갔다.

《그래서 살아서 못가면 죽어서도 묻히고싶은
조국이라고 하지 않습니다까.》

연구사는 깊은 생각에 잠겨 말했다.

《그럼 그 대원이 바로 갑령의 그 렬사였단말이
지요? 이름을 어떻게 부른답니까?》

고수머리청년은 초조한 눈길로 시내를 쳐다보
았다. 시내는 그의 눈길을 피하며 호-한숨을 내
쉬었다.

《아니였습니다. 묘지의 위치를 확정해보니 로
투사가 묻은 렬사의 묘는 갑령이 아니라 배나무
골짜기였습니다. 그리고 투사는 그때의 급한 정
황으로 하여 비문도 쓰지 못했다는겁니다.》

《예?!》

《아니?...》

《그럼 그 렬사는 누구란 말인가?》

세사람은 시내를 안타까운 눈길로 쳐다보다가
그만 락심해서 어깨를 떨어뜨렸다.

《그때 저도 얼마나 실망했던지...》

시내는 한동안 말없이 그들을 지켜보다가 입을
열었다.

《로투사는 묵묵히 방안을 거닐더니 저의 어깨
우에 묵직한 손을 얹었어요.

<강사동무, 물론 그 무명렬사의 이름을 찾으면
얼마나 좋겠소...》

그러나 더 찾으려고 하지 마오. 그 두만강기슭
에 이름없이 묻힌 렬사가 어디 한두명인줄 아
오?... 그들은 결코 자기들의 이름을 남기자고 싸
운 사람들이 아니었지...>

그때 그 투사의 말이 얼마나 가슴을 치던지...》

시내는 묵묵히 차창밖을 바라보았다.

울긋불긋 단풍이 한창인 높고낮은 산들이 회전 무대처럼 빙 돌아지나갔다. 참나무와 소나무의 혼성림이 널려있는 산비탈과 기묘한 벼랑중턱에는 연보라색의 들국화가 한벌 깔렸다. 저기 깊은 계곡아래, 물의 흐름이 가늘어진곳에 이동양봉장의 하얀 천막이 언뜻 보였다.

그들은 말없이 흘러가는 풍경을 바라보고있었다.

이때 침묵을 깨뜨리며 연구사가 뜻밖에도 조용히 시를 읊기 시작했다.

장백의 높고낮은 고개고개에
이 무덤이 첫무덤 아닌줄이야
우리 어찌 모르랴!
침략의 피 서린 밤이
이 나라에 칭칭 걸치였거니
새날을 위해 싸우다 죽은이
헤어보라 몇만이나 되는고?
어느 고개 어느 골짜기에
어느 나무 어느 돌밑에
이름도 없이 그들이 묻히었노?

연구사는 잠시 말을 끊고 멀리 어딘가를 바라보았다.

고수머리청년은 침을 꿀꺽 삼키었다. 할머니는 입을 하 벌리고 연구사를 쳐다보았다.

이 나라 초부들이여
부디 삼가 나무를 베이라-
우리 선렬의 평을
그 나무 고이 지키는지 어이 알리
부디 삼가 길옆에 놓인 돌 차지 말라
우리 선렬의 해골이
그 돌밑에 잠들었는지 어이 알리!

시내는 젖어드는 눈을 습벽이며 연구사에게 머리숙여 인사했다. 할머니도 저고리고름을 눈에서 떼지 못하고있었다.

고수머리청년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아, 그래서 더욱 무명렬사의 넋이 것처럼 가슴을 치는것일가.》

할머니가 눈물에 젖어 떠듬떠듬 하소연했다.

《그 렐사의 자손이라도 찾았으면... 묘주인도 없겠으니...》

《왜 자손들이 없다고 그럼니까?》

고수머리청년이 불쑥 머리를 쳐들며 격하게 부르짖었다.

《그 렐사의 자손이 바로 납니다.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할머니는 썩한 눈길로 청년을 보았다.

《옳은 말이요. 참으로 옳은 말이...》

연구사의 말이었다.

《할머니, 명절날이 오면 렐사묘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지어 찾아간답니다.》

시내의 말에 할머니는 아무말도 못하고 그저 머리만 끄덕일뿐이었다.

×

한동안 말없이 짓물린 두눈을 훔치고 난 할머니는 시내를 별로 찬찬히 여겨보더니 불쑥 《강사는 아직 시집을 안갔소?》 하고 물었다.

그런데 그 소리에 웬일인지 고수머리청년이 제 쪽에서 더 바빠하며 할머니를 못마땅한 눈길로 흘겨보았다.

《아니 자넌 왜 그러나? 녀자야 시집을 가게 마련인데...》

《헛 참, 됐습니다, 됐어요.》

청년은 시내를 보기 면구해했다. 시내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그들을 바라보았다.

《할머니, 전 시집을 갔습니다. 지금 남편이 있는곳으로 가는 길이랍니다.》

고수머리청년은 눈을 크게 뜨고 시내를 보았다.

《보게나, 글썄 내 시집갔다 생각했지.》

할머니가 의기양양해하였다.

《아니, 강사동지도 시집을 간단 말입니까?!》

고수머리청년은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다는 눈길로 시내를 직시했다.

《저도 녀성이 아니냐요.》

《하지만... 강사동지가 아십니까?!》

고수머리청년은 답답한듯 목깃을 헤치며 웨치듯 말했다. 시내는 자기를 뚫어지게 쳐다보는 고수머리청년의 쏘는듯한 눈길을 마주보는 순간 그의 상상속에 자신의 모습이 얼마나 숭고한 높이에 서있는가를 깨달았다.

그러자 방금전 고수머리청년이 한 그 말이 다시금 귀전을 때리며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가슴을 세차게 울리었다.

《렬사의 령혼이 서리서리 엉켜있는듯한 밀림의 그 숭엄한 정적, 바람도, 새들도 밀림과 속삭이는데 강사동지는 군복차림에 혁띠를 짝 조여매고 한손을 경건히 쳐들고 강의를 해주었지요. 열정에 빛나던 그 눈동자, 그 은근한 목소리, 그것은 정말 렐사들의 숭고한 넋을 불러내는듯한 신비로운 모습이였습니다.》

시내는 크나큰 충격을 안은채 청년을 바라보았다. 그토록 숭고한 높이에 서있던 자신을 되찾아준 청년이 더없이 고맙게 생각되었다.

지난날에는 사람들에게 선렬들의 넋을 심어주는 것으로 하여 교양자로서의 은근한 보람과 자부심을 느끼던 자기, 그런데 오늘은 이 낯모를 청년에게서 반대로 열사들의 숭고한 넋에 대한 의미를 새삼스레 받아안게 되다니!!

하루에도 수십번씩 답사자들앞에서 강의하면서 뜬금으로 외웠건만 그 내용이 이다지도 절절하고 강렬하게 충격을 안겨주는것은 무슨 까닭인가.

(오, 선렬들의 숭고한 넋이여! 영원불멸할 백두의 혁명정신이여!

사람들을 아름다운 미래으로 끝없이 떠밀어주는 삶의 원천이여!)

아마도 그 숭고한 넋이 빗발쳤기에 고수머리청년도, 연구사도, 할머니도 이처럼 돋보이고 나자신도 사람들의 기억속에 남아있는것이 아닐가...

고수머리청년은 어느 크지 않은 산간역에서 내리었다. 할머니는 친손자라도 되는듯이 그의 잔등을 두드리며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했고 연구사는 친형님처럼 그의 등에 배낭을 지워주면서 다심한 걱정을 했다.

《짐이 무겁겠는데...》

시내는 승강대까지 따라나갔다. 고수머리청년은 마치 친누이에게 하듯 제속을 털어놓았다.

《사실 나는 얼마전까지 공장에서 제 이름이나 날려볼가 해서 무던히도 동분서주했습니다. 그런데 갑령에 갔다온 다음부터 생각이 얼마나 깊어지던지...

지금은 새로 개발한 탄광으로 자원해가는 길입니다. 제 이름을 위해서 아니라 당의 부름을 관

철하기 위해 찾아가지요.》

렬차가 서서히 움직였다. 청년은 따라오면서 손을 쳐들었다.

《잘 가십시오, 강사동지! 무명렬사의 그 넋을 영원히 잊지 않겠습니다!》

《나도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시내는 멀어져가는 고수머리청년을 향해 손을 저었다. 그는 정든 사람과 헤어질 때처럼 절절한 감정이 북받쳐 연신 눈굽을 적시었다. 기억밖에 있던 저 수수한 청년이 자기 가슴에 이리도 큰 파문을 일으키게 할줄이야. 시내는 모든것이 새롭게 느껴졌다.

하마터면 자신의 생명같은것을 잊어버릴뻔하지 않았는가. 몸은 비록 떠나가지만 강사생활과 련결되었던 그 모든것들과 한순간도 떨어질수 없는 자기였다.

《영원히 잊지 않겠어요!》

시내는 점점 멀어져가는 고수머리청년을 향해 다시한번 힘껏 웨쳤다.

그렇다. 그 숭고한 넋을 영원히 간직하는것. 그것이 바로 자기의 신념이 아니였던가. 그것을 신념으로 간직한 이상 이 세상 그 어디에 간다해도 두려울것이 없었다. 설사 찾아가는곳에서 그 어떤 황색바람, 회색바람이 불어친대도...

시내는 승강대손잡이를 틀어잡고 렬차가 달리는 앞쪽에 눈길을 주었다. 바람에 옷자락이 펄럭이고 머리카락이 훅날렸다.

시내의 가슴은 억척같이 든든해졌다. 그의 심정을 대변하듯 《붉은기》호 전기기관차는 봉-기적을 울리며 궤도우를 질풍처럼 내달렸다.

가사

영웅의 묘교에서 우리 자랐네

리명근

온 나라가 다 아는 영웅의 이름
자랑속에 지니고 선 나의 학교여
여기서 병사될 꿈을 키우고
오늘은 군복입고 초소로 가네

장군님 세워주신 영웅의 동상
영광속에 빛나는 나의 학교여

영웅이 배우던 창가에 앉아
어린 가슴 불태우며 우리 자랐네

영생하는 참된 삶이 무엇인가를
값높이 가르쳐준 나의 학교여
장군님 전사로 위훈 떨치고
우리도 영웅되어 너를 찾으리

로시인의 모습에서

박영이

글은 곧 사람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중학교에 다니던 소녀시절에 나를 배워준 문학선생님에게서 처음으로 들었다.

인생의 리치를 알수 없었던 철없는 시절에는 그 말 뜻을 다 새기지 못했다. 그저 글씨를 정성 들여 곱게 쓰라는 말이겠지 하고 범상하게 생각했다.

세월이 퍼그나 흘러 다 자란 자식을 거느린 지금에 와서야 나는 그 말이 담고있는 깊은 뜻을 가끔 깨닫게 되는 때가 있다.

어느 따뜻한 이른 봄날에 나는 시인 조령출선생과 함께 길을 간적이 있었다. 이미 우리결을 떠나간 조령출선생은 그가 써낸 수많은 훌륭한 작품들로 하여 우리 인민들속에 널리 알려져있는 시인이다. 우리는 그때 옥류교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옥류교를 절반쯤 건너 오는데 종로거리쪽에서 방송차를 앞세운 버스대렬이 마주왔다. 마침 그 방송차에서는 노래 《어머니 우리 당이 바라다면》이 은근하게 울려나왔다. 조령출선생이 가사를 지은 노래였다. 그때로 말하면 당의 높은 평가를 받은 그 노래가 새로 나와 인민들속에 한창 불리워지던 시기였다.

작가도 아니고 그저 평범한 가정부인에 불과한 나를 상대로 하여 교훈적인 생활담도 조용조용 들려주며 길을 가던 로시인은 자기의 노래가 들려오자 하던 말을 그치고 슬그머니 귀를 기울여 듣는것 같았다. 어딘가 감회에 잠긴 표정이었다. 나는 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가사작가라면 누구나 자기의 노래가 사람들속에 불리워지는것을 듣는 때가 제일 기쁠것이다.

그런데 나 자신도 어느덧 가사의 구절을 따라가며 은근하고도 깊고 뜨거운 노래의 깊은 세계에 끌려들어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어머니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라면
나는야 한마음 진달래로 피리라
저 하늘의 노을처럼 이 강산을 물들이며
우리 당을 우러러 우리 당을 우러러
붉게만 피리라

부르면 부를수록 또 부르고싶고 들으면 들을수록 어머니당을 따르려는 충성의 감정이 마음속에

노을처럼 피어오르게 하는 노래였다.

훌륭한 노래를 두고 사람들은 흔히 주옥같은 글들로 엮어졌다고들 한다.

나는 로시인에게 어쩌면 그렇게 주옥같은 문구들을 찾아내어 가사를 재간있게 써냈는가고 물었다. 지금 생각하면 이 범박한 아낙네의 질문이 얼마나 천박했는가 하고 여겨져 부끄럽기 그지없다.

하지만 사람좋은 로시인은 조금도 탓하지 않고 너그러이 웃었다.

《재간이란말이지, 글이야 재간 하나만 가지고 쓰는게 아니지.》 그러면서 로시인은 지기의 지나온 인생담을 들려주었다.

우리가 다 아는 조령출선생은 자그마한 키에 눈매가 상냥하고 걸음씨조차도 곧으며 말씨 또한 무척 부드럽고 차근차근한분이다. 언제봐야 조용하고 정직한 사람이였다.

하지만 로시인의 한생은 결코 순탄한것이 아니었다.

해방전 나라없던 그 세월에는 망국노의 피눈물을 뿌리며 《진주라 천리길》도 노래했다. 그 시절에 시인은 열혈의 높뛰는 심장을 안고서도 참다운 인생의 길을 찾지 못하고 모진 천대와 민족적멸시를 당하면서 몸부림치던 청년이었다. 시인의 그 애타는 갈망과 몸부림이 바로 그가 해방전에 쓴 시와 가사들에 그대로 어려있었던것이다.

해방이 되어서야 시인은 인생의 참된 길에 들어섰다.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를 시인은 자신의 체험으로 절감했다. 인간의 참다운 존엄과 진정한 행복-그것은 조국이었다. 해방전에는 그 조국이 없었던탓에 쓰고싶었던것을 쓸수 없었고 웨치고싶었던것도 마음껏 웨칠수 없었으며 천대와 멸시를 묵묵히 감수해야만 했다.

하여 시인은 《조국보위의 노래》를 썼다. 그것은 시인이 자기의 반생의 체험끝에 이루어진 심혼의 정화였다. 다시는 조국을 원쑤놈들에게 빼앗기지 말아야 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인의 심장속에서 분출한 《조국보위의 노래》를 부르며 총잡고 전선으로 떠나갔으며 조국을 지키는 싸움터에서 귀중한 청춘을 서슴없이 바쳤던가!...

로시인은 대동강을 건너오면서 나에게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그 조국이란 뭐겠나? 그건 곧 우리 수령님과 위대한 **김정일** 동지의 품이지!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수령을 우리가 모시지 못했더라면 오늘의 우리 조국에 대하여 생각할수 있겠나, 그리고보면 결국 우린 수령복을 타고났지! 세상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수령복을 우리 인민만이 타고났으니 이게 복중의 복이 아니고 뭐겠나.》

나는 로시인의 심정이 이해되었다.

전쟁과 전후복구건설의 나날에 붓대로 우리 당을 옹호보위하며 당의 신임속에 정치적생명을 빛내여온 로작가! 그는 영화혁명, 가극혁명의 포성이 울리던 그 보람찬 나날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세심한 지도와 따뜻한 가르치심을 받으며 주체문학예술의 대화원속에 한송이의 꽃으로 피어나지 않았던가!

로작가는 바로 자기의 한생의 총화로 얻은 고귀한 진리와 굳게 다져진 신념을 그대로 가사의 선률에 담은것이였다.

채간만 가지고서야 어떻게 그런 명가사를 써낼수 있겠는가.

글은 사람이라는 말이 참으로 정확한 소리다.

우리 당이 진달래로 피라면 온 강산을 노을로 물들이는 진달래로 피어나고 우리 당이 목란꽃으로 피라고 하면 백두의 흰눈처럼 티없이 깨끗한 목란꽃으로 피고싶은 마음, 어머니 우리 당이 참대같이 살라면 당을 받들어 한마음 변함없이 푸른 참대처럼 살리라는 그것이 그대로 로작가의 신념이고 맹세였던것이다.

나는 지금도 가끔 《어머니 우리 당이 바란다면》 노래를 들을 때마다 로시인의 모습을 생각해 보곤한다. 로시인은 자기가 가사에 담은것처럼 한생을 당을 따라 깨끗하게 그리고 변함없이 살았다.

로작가는 지금 우리곁에 없다.

그러나 노래는 남아있으며 천만의 심장을 울려 당을 따르는 한길에 세워주고있다.

나는 나와 자식들도 그렇게 한생을 티없이 깨끗하고 끝은 마음으로 경애하는 **김정일** 장군님을 높이 받들어나가야 하겠다는 생각을 더욱 가다듬게 된다.

이 가슴 뜨거워

최영희

뜨거워 뜨거워

이 가슴 뜨거워

보면 몇개의 숯덩이건만

내 쉬이 다가왔지를 못해

청봉의 천연이끼속에

영영 잠들수도 있고

눈보라에 흔적없이

영영 사라질수도 있는 우등불자리

조선의 총총한 별빛아래

투사들이 온밤 우등불가에서 피워보던 꿈

이 땅우에 락원으로 다 펼쳐졌건만

무슨 꿈 또 안고 다시금 불타는가

어버이수령님 받들어 싸운

투사들의 뉘이 어린 구호목 하나

뜨거운 숨결어린 가랑잎 하나

쌓이는 세월의 락엽속에서

다 찾아주시고 빛내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뜻이어

아, 천만가슴에

혁명의 뉘으로 다시 피여오른

우등불 우등불 청봉의 우등불!

억만금보다 귀한 혁명의 재보로 타올라

뜨거워 뜨거워 이 가슴에 뜨거워...

명 의

김형지

1

《아니, 이게 어떻게 된 노릇이우? 예?》

정지성은 저으기 놀라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아침에 적십자종합병원으로 떠나갔던 탄광초급당비서가 방에 들어섰던것이다. 실로 뜻밖이었다. 물론 그 성미에 입원치료를 받으리라고는 애당초 생각지 않았었다. 지배인이 인민경제대학 재직반에 가고 없는 지금 형편에서는 더욱 그랬다. 하지만 여러가지 실험검사를 하며 확진을 받자면 적어도 2~3일은 실히 걸릴것으로 짐작했던 그였다. 그런데 당일로 돌아왔으니 어떻게 된 영문인가싶었다.

김영훈비서는 빙그레 웃으며 다가와 응접탁앞에 정지성이와 마주 앉으며 털모자를 벗었다. 만형태로 보기 좋게 벗어진 넓은 이마가 드러났다.

그는 손가락빛으로 머리칼을 얼추 손질하며 말했다.

《내, 기사장동무 말을 듣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을 열번도 더 했수다. 그러지 않았더라면 내가 얼마나 심중한 병에 걸렸는지 정말 모를번했거던요.》

《그러니까 확진을 받았겠수다?》

《예, 만성자만증이라더군요.》

《예?》

정지성은 또한번 놀랐다. 위낙 남들이 시샘할 정도로 건강한 그는 병명이나 약이름에 대해서는 참으로 무식했다. 그런데 협심증때문에 애플 먹는줄로만 알고있던 초급당비서가 난생 처음 들어보는 병에 걸렸다니 자기도 모르게 긴장해지는데였다.

《그 병도 그렇게 심장이 아프답디까?》

《여부가 있나요.》

《아니, 그럼 입원해서 치료를 받지 않구 왜 돌아섰습니까. 참, 비서동무두 원.》

《석탄을 더 많이 캐내면 병이 똑 떨어질것 같아서 돌아섰수다.》

《예?》

《기사장동무, 내 병원으로 가던 길에 인민경제대학에 들렀는데 우리 지배인동무가 뭐했는지 아우? 국가계획이나 한다구 자만할 근거가 하나도 없다는거요.》

우리 경제가 어떻게나 빨리 발전하는지 석탄수요는 나날이 높아만진다는게 아니겠소.》

《허허... 비서동무두 참, 난 정말 만성자만증이란 병이 있는가 했군요.》

정지성은 그제야 초급당비서의 예도는 말수에 걸려들었다는것을 알아차리고 껄껄 웃었다. 항용 느끼는바이지만 해학이 섞인 초급당비서의 예도는 말에서 친근감과 함께 의미심중한 속대사를 읽게 되는것이였다.

그는 오늘도 병원에 갔다온 초급당비서가 왜 그런 이야기부터 하는지 대략 짐작은 하면서도 그의 진짜 속생각을 알고싶어서 탄전을 부렸다.

《우리 경제가 빨리 발전하는거야 아주 좋은 일이 아닌가요?》

정지성은 초급당비서의 눈치를 살피며 담배갑을 밀어놓았다.

김영훈비서는 《제비》를 한대 뽑아 불을 붙여 물고 깊숙이 들이빨았다가 목을 약간 젖히며 담배연기를 천천히 내보냈다.

《우리 경제가 더 빨리 발전하도록 늘어나는 석탄수요를 충족시켜야 하겠는데 그게 슬그머니 걱정되더라말이요.》

《그러게 우리는 작년실적보다 12프로나 더 많은 계획을 받아안지 않았나요. 그리구 새해 첫날부터 일별, 주별로 계획을 꼭꼭 수행하구있구요.》

《그게 바로 만성자만증이라는거우다.》

탄부의 의무는 나라의 석탄수요를 충족시키는 게 아니겠소.》

《좋수다. 그러니까 비서동무는 어떻게 하자는 거요?》

《한톤의 석탄이라도 더 생산하자는거지요.》

《그야 물론 좋은 생각이지만 우리는 지금 작년 실적보다 12프로 장성된 계획을 해내기두 여간 힘겹지 않수다.》

《그래서 당에서는 <고난의 행군>정신으로 살며 싸워나갈것을 요구하고있지 않소.》

《비서동무, 나도 공동사설학습을 했수다. <고난의 행군> 정신은 제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구 아무리 어려운 역경속에서두 패배주의와 동요를 모르구 난관을 맞받아 뚫고나가는 락관주의정신이구 그 어떤 안락도 바람이 없이 간고분투해나가는 불굴의 혁명정신이라는걸.》

《허허... 역시 기사장동문 언제나 학습을 잘하거던. 그렇지만 중요한것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사업성과로써 령도자를 받들줄 아는 김책형의 지휘성원이 되는게 아니겠소.》

《그러니까 국가계획을 수행하는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건가요?》

《그렇지요. 난 오늘 적십자종합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으며 그걸 절감했수다.》

그것은 사실이었다. 의사, 간호원들의 송구스러울 정도의 친절에 접할 때마다 영혼은 지배인의 말이 떠오르면서 자신을 돌이켜보게 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환자들에게 모든 정성을 다하는 의사들처럼 천리마에 속도전을 가한 기세로 내달는 우리 경제를 생각했는가?

부끄럽지만 그러지 못한 김영훈이었다. 탄광앞에 맡겨진 석탄생산계획을 그럭저럭 해낸다고 만족해하면서 석탄만 더 있으면 생산과 건설을 더 빨리, 더 잘해나갈수 있는 인민경제 여러 부문 생각은 못한 그였다.

(당에서는 그래서 석탄공업을 당의 혁명적경제 전략관철을 위한 최전선이구 돌파구라고 했는데 최전선부대의 정치위원이라는게 제한몸 아픈줄은 알면서도 당에서 아파하는 문제는 풀려고 하지 못했으니 내가 무슨 탄광당비서인가...)

김영훈은 입술을 깨물었다. 자기 탄광계획이나 한다고 만세를 부를수 없다. 한톤의 석탄이라도 더 캐서 늘어나는 나라의 석탄수요를 충족시켜야 한다.

김영훈은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내내 석탄을 한쪽이라도 더 캐낼 생각만 하였고 사무실에 들리기전에 기사장부터 찾아온것이였다.

기사장도 당비서의 그런 마음을 읽고 직광 들이됐다.

《비서동무, 흠을 떼러 갔다가 도리어 붙여가지고 온것 같은데 속 시원히 이야기하시구래. 그래야 나도 좀 생각해볼게 아니요.》

《우리 기사장은 이렇게 통짜배기가 돼서 늘 중단니까.

이보, 기사장동무. 우리는 올해에 <ㄷ. ㄷ>결성 70돐을 맞게 되지 않소.》

《그러니까 연간계획을 두달반이나 앞당겨 끝내는건데 그건 어렵도 없습니다.》

《우리아 작년에두 당창건 50돐까지 연간계획을 끝내지 않았겠소.》

《그렇지만 올해에는 작년실적보다 12프로나 더 많은 계획을 받았단말입니다.》

《그걸 뭐 내가 모르우. 알면서도 우리 탄부들을 믿구 다시 한번 용을 써보자는거지요.》

《그건 절대찬성입니다. 다문 한달을 앞당겨 끝낼수 있는 예비를 찾아내도 그게 어딴니까.》

그것은 정지성의 진정이였다. 연간계획을 한달만 앞당겨도 10여만톤의 석탄을 더 생산한다는것을 의미하는것이였다.

초급당비서는 기사장이 동의하자 초급당위원회에서 정식 토론해보자면서 일어섰다.

정지성은 초급당비서를 바래면서 생각했다. 모든 탄광초급당비서들이 우리 비서처럼 일욕심이 많으면 늘어나는 나라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충족시킬수 있으면만...

대한추위를 하느라고 그러는지 어제까지 푸근하던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다.

하지만 정지성은 조금도 추위를 느끼지 않았다. 탄밭에서 나고 탄밭에서 자라고 평생 탄을 캐고 있어서 그런지 여태까지 털모자나 장갑을 모르고 살았다.

오늘도 그는 맨머리바람으로 화장걸음을치고 있었다. 운반갱으로 가는 길이였다. 초급당위원회에서도 진지하게 논의되었지만 《ㄷ. ㄷ》결성 70돐까지 연간계획을 끝내자면 뭐니뭐니해도 운반문제를 풀어야 했다. 운반문제를 풀어야 당면한 생산을 높일수 있었고 굴진과 채탄에서 혁신을 기대할수 있었다. 그래서 초급당위원회에서 분공을 조직할때 자진하여 운반갱을 맡았었다.

한데 해설담화도 하고 협의회도 하고 전차운전공들속에 들어가기도 하였지만 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는 시원하게 나오지 않았다.

정지성은 그래서 오늘은 소대장들을 만나보려고 협의회를 조직해놓고 나가는 길이다.

그는 지름길에 들어섰다. 앞에서는 한무리 처녀들이 가고있었다. 조용치 않은 탄광처녀들이다. 지금도 나무가지를 흔들며 뒤에 오는 동무들이 눈벼락을 맞게 하고는 좋아라 박장대소하고 눈을 뒤집어쓴 처녀는 눈을 한응큼 꿈쳐쥐며 뒤쫓는다. 쫓기던 처녀가 그만에야 미끄러지며 넘어졌다. 또 웃음이 터졌다. 웃음소리에 놀란 동고비가 날아오르면서 나무가지에 쌓여있던 눈을 정지성에게 들썩웠다.

정지성은 허구쁘게 웃었다. 저 철부지들을 데리고 연간계획을 두달반이나 앞당겨 끝낸다는것이 허무하게 생각되였다. 그래서 저쪽 나무가지에 옮겨앉는 동고비의 양정스러운 모습을 얼없이 바라보는데 누군가 숨옷의 눈을 털어주었다. 딸미순이였다. 미순이도 운반갱 전차운전공이였다.

《왜 걸어오면서 눈벼락을 맞아요?》

《이렇게 철이 없다구야. 너는 휘발유가 귀한줄도 모르느냐?》

정지성은 다시금 걸음을 옮겼다.

미순이가 따라서며 그냥 시가슬렸다.

《흥, 아버지가 걸어다닌다고 휘발유문제가 풀리나요뉘.》

《폴리진 않아두 보렘이야 되지 않겠니.》

《탄광기사장의 생각이 고작 그런거예요? 근본문제를 해결할 생각은 못하구 타고다닐 승용차 휘발유를 화물차에 넘겨줄 생각?》

《허참, 못하는 소리가 없구나. 한개 탄광기사장이 어떻게 휘발유문제를 푼단말이나.》

《텔레비존을 보니까 어떤 농장에서는 메탄가스를 생산해서 그걸루 밭갈이를 몽땅 해줬다더군요.》

《우리 실정이 달라.》
 《그럼 우리 실정에 맞게 하지 뭐.》
 《가만, 이거 우리 미순이 덕에 내가 승용차를 타고다니게 되는게 아니냐?》
 《그만두겠어요. 그때두 지금처럼 <애야, 이건 자가용이 아니구 기사장사업용이다.>할걸 뭐.》
 정지성은 웃고말았다. 사실 그랬다. 여러해 기사장사업을 해왔지만 미순이는 물론 다른 식구들도 승용차에 태워본적이 없는 그였다.
 《그러다가 시집갈 땐 어떻게 한다?》
 정지성은 자동차길에 올라서서 미순이앞에 손을 내밀었다.
 미순은 발췌 웃으며 아버지의 손을 잡고 큰길에 올라서면서도 말은 잔뜩 가시가 돋친것을 쏟아놓았다.
 《큰아버지의 차를 타지요 뭐. 저것 보세요. 큰아버지는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승용차를 타고오지 않나.》
 아닌게 아니라 김영훈비서가 승용차에서 내렸다. 수수한 작업복에 안전등이 달린 비닐안전모를 쓰고 축전지까지 찼다. 얼굴을 모르는 사람이 보면 틀림없이 나이지숙한 로동안전원으로 볼차림새였다.
 초급당비서는 미순의 인사에 손을 들어 답례했다.
 《이거야 딸없는 사람 부러워 살겠소?》
 김영훈은 인사대신으로 정지성에게 말을 건넸다. 단순한 통말만은 아니였다.
 아들만 셋을 키워 모두 군대에 내보낸 당비서는 딸가진 부모를 노상 부러워했다.
 정지성은 당비서의 심정이 심분 이해되어 오늘도 미순의 편을 들지 않았다.
 《말마시우. 이런 딸 둘만 키웠다면 본전놓겠습니다.》
 《왜, 우리 미순이가 어떻다구?》
 《오늘 아침엔 글썽 승용차를 안태워준다구 양탈이 아닙니까. 뭐 시집갈때두 내 차는 안타구 비서동무한테 부탁하겠다고나요? 허허 내 참.》
 《허허... 하긴 너의 아버지 승용차에 아무도 태우지 않지. 그렇지만 이 비서령감두 공짜로 태워주진 않아.》
 《다 압니다. 승용차를 잘 태워주는대신 그 값을 꼭 석탄으로 받는데 그것도 어방없이 비싸게 받는다느길.》
 《허허, 그건 누가 그러더냐?》
 《우리 갱 언니들이 다 그러지요 뭐.》
 《그만해라. 꼭 하나같은 참새들이라니까.》
 정지성이 중간에 나서는데 비서가 미순에게 말했다.
 《이런 참새들이 얼마나 좋소. 애, 미순아. 내 3갱에 들어가야 하겠는데 좀 태워주지 않으련? 후날 내 승용차를 태워주기로 하구말이다.》
 미순은 일부러 으쓱대는체하며 말했다.

《운전공외엔 타지 못하게 되어있지만 그런 조건이라면 좀 생각해보겠어요.》
 《고맙다. 그럼 내 분초급당에 들렀다가 저탄장으로 나갈게. 부탁한다.》
 당비서는 미순의 잔등을 두드려준 손을 정지성에게 들어보이고 분초급당으로 들어갔다.
 《아버지, 우리 초급당비서동지 정말 멋있지요?》
 정지성은 미순의 다음말이 듣고싶어 부러바르지 않게 말했다.
 《무엇이 그렇게 멋있냐? 승용차를 태워준대서?》
 《아니예요. 어떤 사람은 소대장만 돼두 이래라저래라 지시하기 좋아하는데 초급당비서아바이는 전차를 좀 타자면서두 고맙다, 부탁한다 하시지 않아요.》
 《그럴 땐 제법 철든 소릴 하는구나.》
 《음, 아버지 내가 몇살이나 먹어야 어른대접을 해줄래요. 벌써 스무살인데.》
 미순은 입을 뻐죽 내밀어보이고는 갱휴계실로 들어갔다.
 정지성은 딸이 귀엽기만해서 그의 뒤모습을 지켜보다가 갱장실로 향했다.

3

무정세월이라는 말이 공연히 생긴것 같지 않았다. 예비를 찾느라고 며칠간 뛰어다니는 사이에 어느새 또 목요일이 돌아왔다.
 정지성은 지령실을 통하여 전차와 선로에 중임을 두고 설비점검을 하라고 지시하였지만 어쩐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기요원이 가져온 문건들을 보아주고나서 내치 운반갱으로 나갔다. 운반갱은 기사장만이 아닌 모든 탄광사람들이 관심하는 그야말로 탄광의 생명선이었다. 석탄과 버력을 실어내는것도 그 외통길이였고 갱목이나 설비를 실어들이는것도 바로 그 한길뿐이었다. 그런만큼 운반갱에서 자그마한 사고라도 난다면 그것은 곧 온 탄광이 막대한 지장을 받게 되는것이였다.
 정지성은 그래서 운반갱에 각별한 관심을 돌리는 것이였다.
 운반갱일꾼들도 자기들이 맡고있는 초소가 가지는 중요성을 잘 알고있어서 오늘도 통계원치녀 한사람만을 남겨놓고 모두 현장에 나가고 없었다.
 정지성은 곧장 저탄장으로 나갔다.
 저탄장에서는 마침 미순이가 전차를 정비하고 있었다.
 정지성은 미순의 일손을 도와 전차정비를 끝내고는 그냥 전차에 올라앉았다. 나왔던김에 선로 점검상태도 돌아보고싶었다.
 운반갱도에는 전에없이 사람이 많았다. 호빠로

떨어진 석탄을 긁어모으는 사람, 그것을 삽으로 한곳에 모아놓는 사람, 비자루로 로반을 쓰는 사람, 망치로 돌기워나온 레루못을 박는 사람, 지레대로 침목자갈을 다지는 사람...

기분이 흠뻑 좋아진 정지성은 후야근을 하고 선로정비에 달라붙은 그들에게 일일이 수고한다고 인사를 했다. 간혹 미순의 전차를 탔다고 통을 거는 사람도 있었다.

정지성은 싫지 않은 그런 통담도 달게 받는데 미순이가 갑자기 전차를 세웠다.

정지성은 탄부들의 결직한 통말에 발끈 성이 나서 전차를 세운것 같아 미순을 돌아보았다.

한데 미순은 방글방글 웃으며 소리치는것이였다.

《비서동지! 또 나오셨어요?》

정지성은 그제야 미순의 눈길을 따라 왼쪽 앞을 보았다. 레루이음나사못을 조이고있었던듯 스파나를 켜 김영훈비서가 손을 들며 병긋 웃었다.

수수한 작업복, 안전모, 안전등... 신통히도 탄부차림과 꼭 같아서 미순이가 전차를 세우지 않았더라면 필경 몰라보고 지나쳤을것이였다.

정지성은 전차에서 뉘큼 뛰어내리며 수인사를 건넸다.

《아니, 비서동문 왜 또 나왔습니까?》

《우리 미순이가 <뽕>이나 <거부기>가 탄차를 물어메칠가봐 무섭대서 좀 잡아보자구 나왔는데 꽤 잡겠는지 모르겠수다.》

(저건 언제나 철이 들겠는지...)

정지성은 이런 생각을 하며 미순에게 눈을 흘겼다.

미순은 아버지의 도끼눈에는 웃음으로 대답하고 당비서에게 까딱까딱 손을 흔들어보이며 전차를 몰았다.

《큰아버지- 수고하시라요!-》

《오냐, 고맙다. 너두 약속을 지켜야 한다-》

당비서도 멀어져가는 미순에게 손을 흔들어주었다.

정지성은 웃고말았다. 미순이 낳기전부터 아랫웃집에서 의종계 살아오기도 하지만 딸이 없는 당비서 내외는 미순을 여간 고와하지 않았다. 더구나 세아들을 모두 군대에 내보내고 량주가 호젓이 지내는 지금 미순에 대한 사랑은 각별했다. 그래서 미순이도 진정으로 큰아버지로 여기고 따르는줄을 정지성도 잘 안다.

하지만 미순이가 공과 사를 가려주었으면 싶었다. 집에서야 아무러면 뭐라랴만 이렇게 사람들이 많을 때는 큰아버지로서 아니라 탄광당비서로 같듯이 섬겨야 할게 아닌가.

《집안망신 고볼통이 시킨다더니 참...》

정지성은 쓰거운 입을 다시는데 김영훈당비서는 웃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냈다. 그 서슬에 두메터짜리 접이자가 떨어졌다.

접이자를 집어든 정지성은 대번 가슴뭉클했다.

오래 써서 감히기도 했지만 여러곳에 탄가루가 묻어있었던것이다.

《철없는 애들의 말을 듣구 <뽕>잡이요 <거부기>잡이요 하지 말구 들어갑시다. 그러다 쓰러지면 지배인도 없는데 나혼자 어찌라는거요?》

정지성은 당비서에게 접이자를 돌려주며 불부는 소리를 했다. 그것은 정지성의 진정이였다. 이렇게 막장에 들어오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만 있어도 정지성에게는 큰 의지가 되는 당비서였다.

《미순이가 철이 없다니. 같이 전차를 타보니 이젠 미순이한테서두 제법 탄냄새가 나던데요.》

《전차를 몇년 탔다구 탄내가 나면 얼마나 나겠소. 아무러면 한가마밥을 먹는 내가 더 잘 알지 비서동무가 더 잘 알겠소?》

《그야 그렇겠지만 얼어진김에 쉬어가랬다구 가두 담배나 한대 피우구 갑시다래.》

김영훈이 《제비》갑을 내밀었다.

정지성은 사양하지 않고 담배를 한대 뽑고 대신 라이타를 꺼내서 당비서에게 불을 붙여주었다.

김영훈은 담배를 한모금 맛스레 빨고나서 입을 열었다. 담배연기에 뒤섞여 답답한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철이 있건없건 우리야 미순이네에 의거해서 운탄문제를 풀밖에 다른 도리는 없지 않수. 석탄 한톤이 귀한 때 생산을 죽이구 운반갱 확장공사를 할수두 없는거구.》

《그것두 못할거야 없지요.》

《아니 뭐요? 생산을 계속하면서 운반갱 확장공사를 한단말이요?》

당비서는 구미가 동하는듯 한결을 다가왔다.

정지성은 할수없이 속으로만 생각해오던것을 터놓았다.

정지성이 기사장사업을 맡은후에 처음으로 느낀 불만이 운반갱이 좁은것이였다. 처음에는 전망이 좋지 못해서 복선이 아니라 단선운반선로를 건설했겠지만 갱이 깊어질수록 탄도 더 좋아지고 전망 또한 확고해졌다. 이런 조건에서 더 많은 석탄을 캐내자면 결정적으로 운반갱을 확장하고 복선을 놓아야 했다. 그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지만 누구도 승인하지는 않았다. 당면생산이 급했던것이다.

정지성은 생각다 못해 당창건기념일까지 년간 계획을 끝내고는 굴진 한개 소대를 푹 떼서 운반갱 확장공사에 돌릴 생각이였다. 발파구멍만 뚫어놓았다가 휴식일을 계기로 발파하고 그날로 버럭 처리를 다 하고 다음주에는 정상적으로 생산하면서 또 발파구멍만 뚫고...

물론 시일은 퍼그나 걸리겠지만 종당에는 운반갱에 복선을 놓게 될것이였다.

한데 새해부터 일관을 벌리자고보니 작년실적보다 12프로나 높아진 올해계획이 정지성으로 하여금 용단을 내릴수 없게 하였다. 그래서 누구한

테 말 한마디 못해보고 당면 석탄생산만 안고 뛰는 그였다.

정지성의 이야기를 듣고난 당비서는 푹푹 소리를 내며 떨어지는 갯천반의 번들거리는 석수를 바라보면서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나도 그런 생각을 왜 안해보았겠소. 하지만 우리가 당면생산을 믿음성있게 내밀지 못하면 연합에서 승인하지 않을것 같아서 속에 묻어두고있었지요.》

《비서동무, 당면생산때문에 너무 신경을 쓰지 말라구요. 올해계획도 일별, 주별로 넘쳐하구있겠다, <ㄷ. ㄷ> 결성 70돐까지 년간계획을 끝내는 것도 오르지 못할 나무는 아니란말이우다.》

《가만, 가만, 그럼 묘술을 찾아냈단말이요?》

《비서동무, 그쯤 알아두구 좀 기다려주구래. 자, 이젠 나갑시다.》

정지성이 당비서의 팔소매를 잡아일으키려하자 김영훈이 도리어 기사장의 손을 잡았다.

《말 꼭지만 떼놓고 가무리니 이거야 감질이 나서 어디 견디겠소. 기사장동무, 내 이거라구야. 어서 이야기하구래.》

《이런건 말부터 앞세우는게 아닌데...》

정지성은 그래서 당비서한테도 말하지 않고있었다. 하지만 말하지 않으면 당비서가 언제까지고 운반갱에 눌러있을것 같아서 할수 없이 터놓았다.

《비서동무두 우리 수령님께서 강선로동계급을 찾아가서 강제 1만톤만 더 있으면 나라가 허리를 펴겠다고 하신 그 력사적인 말씀을 잘 아시지요?》

《알다뿐이요?》

《그때 강선로동계급들이 6만톤압연기를 가지구 어떻게 12만톤을 뽑아냈던가요?》

《그야 두대치기를 했지.》

《바로 그겁니다. 우리도 강선로동계급이 한것처럼 다이야편성을 두배로 늘이자는겁니다. 전차 한대는 앞에서 끌구 한대는 뒤에서 밀구.》

《글쎄 그럴듯하긴 한데 우리한테 그렇게 할 전차는 어데 있구 탄차는 또 어데 있소?》

《아, 그래서 올해 계획을 작성할 때 벌써 다 계획화하지 않았나요.》

《계획화야 했지요. 그런데 작년에 주기로 되어있는 전차, 탄차도 여태까지 다 못받았는데 금년에 계획화한 전차, 탄차는 언제 받는다?》

《어떻게 해서나 받아내야지요.》

《글쎄 받아오면 그땐 강선식으루 두대치기를 합시다. 그런데 그때까진 어떻게 한다?》

정지성은 말문이 막혔다. 그때까지 어떻게 할지 아직은 마련이 없는 그였다.

당비서가 웅색한 처지에 빠진 기사장을 구원해 주려는듯 그의 손을 잡았다.

《기사장동무, <고난의 행군>정신은 제 힘으로 혁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이라구 말하기는 쉽지만 그렇게 살기는 꽤 어려운 일이 아니겠소. 어려운 길을 웃으며 가기때문에 우리는 혁명하는 긍지와 자부심을 느끼는거구.

자, 우리 미순네를 믿구 그들의 지혜와 힘을 발동시켜봅시다. 구두쟁이 셋이 모이면 제갈량이 보다 낫다는데 그까짓 년간계획을 뒤달 앞당길 방도를 못찾겠소. 자, 내 걱정은 말구 어서 나가보우.》

《구급약은 갖고다니시우?》

《원, 참, 걱정두 팔자라더니. 이것보우, 니트로 글리세린, 발리돌 다 있소.》

정지성은 당비서가 주머니에서 꺼내보이는 약병을 보고 안심할수밖에 없었다. 끝장을 보고야 마는 그의 성미를 당해낼 재간이 없었던것이다.

그는 목책에 무엇인가 적기도 하고 때로는 접이차를 꺼내서 운반갱도 바닥을 채보기도 하고 혹은 석탄덩이를 집어들고 갯도벽에 무슨 표식인가를 하며 점점 멀어져가는 당비서를 한참이나 지켜보다가 돌아섰다.

4

정지성은 송수화기를 놓자바람에 물부터 하고 뿌려 파랐다. 련합업무부지배인으로 부터 자재공급소 소장에 이르기까지 한바탕 줄전화를 하느라고 피대를 곤두세웠더니 목이 말랐다.

한데 물 한고뿌를 다 마셨는데도 가슴이 열리는 고사하고 그냥 타드는것만 같았다.

(모두 엉터리들이란 말이야.)

정지성은 속으로 두덜거리며 목단추를 벗겨놓았다. 생각할수록 패심했다.

정지성은 제물에 화가 나서 담배를 신경질적으로 뽕뽕 빨아대고있는데 손기척소리가 나더니 뜻밖에도 미순이가 들어섰다.

《아니, 네가 웬일이냐?》

정지성은 놀라운 눈으로 미순이를 바라보았다. 미순이가 사무실에 찾아온적은 단 한번도 없었던것이다. 간혹 밤을 패야 할 일이 제기되어 저녁밥은 좀 내오래도 좋은 승용차는 두었다 무엇에 쓰려고 종일 일을 한 날더러 저녁밥을 내오라느냐고 반드시 군소리를 하고서야 내오던 미순이었다.

오늘도 미순의 눈은 새물새물 웃고있었지만 입은 바르게 놀리지 않았다.

《왜요? 나도 탄광사람인데 탄광기사장을 찾아오면 안되는가요?》

《너하구 룡질을 할새가 없다. 언제가야 철이 들겠는지 원 쫓쫓...》

정지성은 혀를 차며 담배불을 재털이에 비벼졌다.

《나도 룡을 하려구 온게 아니예요.》

미순은 짐짓 정색하려 했지만 웃는 눈만은 어찌지 못하고있었다.

《그럼 어서 말해라. 난 지금 운반갱에 나가야 한다.》

정지성은 퍼놓았던 사업수첩과 종합된 예비탐구안을 접었다. 탐구된 예비라는게 년간계획을 한달도 앞당길수 없는것이어서 속이 타는 그였다.

미순은 아버지의 약을 올려주려고 일부러 찾아온듯 한술 더 떴다.

《자꾸 나가기만 하면 뭘해요. 예비는 찾지 못하면서.》

《예비를 찾는지 못찾는지 네가 어떻게 아니?》

《왜 몰라요, 나두 운반갱 전차운전공이 아니냐요.》

《허, 내가 큰 실수를 했군. 한다하는 전차운전공도 몰라보구.》

《음- 아버지 나빠요. 전차운전공은 덮어놓고 철부지로 보면서.》

미순은 입을 삐죽 내밀었다. 웅석반, 노염반이다. 그럴 때면 성이 났다가도 웃지 않을수 없는 귀엽고 사랑스러운 딸이다.

《그러게 내가 잘못했다지 않니. 어서 집에 가거라. 어머니가 기다리겠다.》

《이걸 봐주기전에는 안가겠어요.》

미순은 손가방에서 종이장을 꺼냈다.

《그건 뭘데?》

《보시면 알아요.》

정지성은 미순이가 내미는 종이장을 할수 없이 받으며 건성 훑어봤다.

《석탄운반능력을 높이기 위한 방도라.》

정지성의 입가에는 놀라움이 아니라 자식의 소행을 대견하게 여기는 어버이다운 자애의 미소가 어렸다.

《우리 미순이가 제법인걸. 석탄운반문제를 놓고 걱정할줄두 다 알구.》

정지성은 종이장을 책상우에 내려놓았다.

미순은 종이장에 먼지라도 묻을세라 냉큼 집어들고 아버지의 손에 다시 쥐여주었다.

《어서 봐주세요.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우리 작업반의 집체적의견이에요.》

《작업반의 집체적의견? 그런데 요전날 내가 협의회를 조직했을 땐 너희네 소대장이 왜 삐꾸소리 한번 안했느냐?》

《그때 삐꾸 못했으니까 오늘은 피꿀하지 않아요.》

《허허... 그러니까 이게 피꿀하는거겠다?》

정지성은 할수 없이 미순이가 쥐여준 종이장을 퍼들었다. 거기에는 종이장 이쪽끝에서 서쪽끝을 련결한 두개의 직선과 중간쯤 또 짧은 직선이 두개 그어져있었다. 중간중간에 무슨 수자를 적어넣은것 같은데 잘 보이지도 않았거니와 잘 보인데도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무지 알아낼

것 같지 못했다.

정지성은 제격 전술을 바꾸었다.

《내 후에 보지.》

《안돼요! 운반능력을 당장 한배반, 잘하면 두배로 끌어올릴수 있는데두 아버지는 까옥해요?》

《허허... 참 내가 웃고말아야지. 한배반이 뭐 뉘집 아이이름이라고 그렇게 망탕 부르느냐?》

《아이, 답답해라! 그럼 좋아요! 운반갱에 나가 신다니 같이 가자요. 내가 현지에서 구체적으로 설명해드리겠어요.》

미순이가 옷걸이에서 솜옷을 벗겨다가 입혀주었다.

정지성은 사업수첩과 문건들을 서류함에 넣고 쇠를 잠근 다음 미순이를 앞세우고 사무실은 나섰다.

5

간밤 내린 눈이 그대로 있어서 삼라만상이 온통 하얀데 저탄장어름은 형편이 달랐다. 오늘도 수천톤이나 실어내다 쌓아놓아서 석탄산은 여전히 검은자래 그대로이다. 어느 고망 옛날에는 아름드리나무로 설레이던것이 수수만년동안 석탄으로 변모되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것이 스스로도 놀라운지 드문드문 매달아놓은 측수높은 조명등불빛을 받는 석탄은 유난히도 번쩍거렸다.

운반갱에 올라선 정지성은 언제봐도 흐뭇한 석탄산에 눈길을 주고 숨을 돌리는데 미순이가 저탄장쪽을 가리키며 말했다.

《아버지, 저기 전차가 서있는게 보이지요? 저 전차가 몇분이나 서있는지 아버지 알아요?》

《왜, 오래 서있자니 발이 시리더냐?》

정지성은 대한무렵에 전차에 30~40분 앉아있기도 험치 않으리라싶어 진정으로 걱정했다.

미순은 입을 삐죽 내밀었다.

《음- 아버지 참, 누가 발이 시려서 그러나. 혁명의 귀중한 1분1초가 헛되이 흘러가는데 안타까워서 그러지.》

《그야 별수 없는 일이 아니냐.》

《우린 바로 그걸 별수 있게 하자는거예요. 자, 보세요. 2갱에서 석탄을 실고 나오는 전차가 저렇게 저탄장에 도착해야 30~40분이나 기다리던 전차가 3갱으로 들어가지요? 2갱에서 나온 전차는 3갱에서 나오는 전차가 올 때까지 또 30~40분 기다리구. 얼마나 불합리해요.》

《이 철부지야, 석탄운반이란 본시 그런거야.》

정지성은 미순의 이마에 손가락침을 놓았다.

미순은 비명을 지르며 한발 물러섰다.

《아버진 락후해졌어!》

《아니다. 어떤 혁신자도 다른 방법으로 석탄을 운반할수는 없다.》

《있어요!》

《없어요-》

정지성이 룡으로 넘기려하자 미순은 바로 그 종이장을 찢었다.

《자, 보세요. 지금 운반갱길이가 대략 3천 5백미터가 좀 넘지요?》

《그래서?》

《그래서 여기 약 2천미터지점에 중간역을 하나 만든단말이에요.》

《뭘? 중간역?》

《그래요. 그러구 거기에 어김길을 만들거든요.》

《뭘? 어김길?》

《그럼요. 그러구 열차시간표에 따라 움직이는 철도에서처럼 우리도 전차다님표를 만들구 그에 따라서 2갱에서 나오는 전차를 여기 저탄장에서가 아니라 중간역 어김길에서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가만, 가만...》

정지성은 한손을 들어 미순의 말을 막았다. 벌써 더는 아무런 설명도 필요치 않았다. 중간역을 하나 만든다는것은 전차회귀시간을 절반으로 줄인다는것을 의미하며 그것은 곧 석탄생산을 일약 1.5배이상 높이게 한다는것을 대번에 알아차린 기사장이었다.

《우리 미순이가 날 살려주누나 응? 날 살려줘!》

정지성은 미순을 닥침 들어안고 뺨을 돌다가 눈우에 나뭇그라졌다. 하지만 일어설념을 앓고 큰소리로 웃었다. 미순이도 웃었다. 웃음에도 2중창이란것이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몇들어진 혼성 2중창이었다.

정지성은 이윽고 만시름이 놓여 네활개를 펴고 눈우에 편안히 누웠다. 다치면 유리처럼 쨍하니 깨어질것 같은 하늘이 펼쳐졌다. 오늘밤따라 유난히 별이 많아진것 같고 더 밝게 빛나는것 같았다.

《미순아! 참 좋은 밤이구나. 응? 년간계획을 <ㄷ. ㄷ> 결성 70돛까지 죽히 해낼것 같아서 이밤이 그리도 아름다와보이겠지?》

《아니, 아버지, 해낼것 같다는건 뭘예요. 꼭 해내야지. 자, 일어나세요. 예비주머니가 또 하나 있어요.》

미순이가 먼저 일어나 손을 내밀었다.

정지성은 미순의 손을 잡고 일어나며 물었다.

《뭘? 예비주머니가 또 있어?》

《있지 않구요. 어서 갡으로 들어가자요.》

미순이가 아버지의 팔을 끼며 시뚱해서 빼기였다.

《여기서 말해도 다 알아듣는다. 아버지야 기사장이. 아니냐.》

《백문이 불여일견이란 말도 있잖아요.》

미순은 고집스레 아버지의 팔을 잡아끌었다.

운반갱입구까지는 멀지 않았다.

미순은 갡입구에서 한 20~30미터 들어가 멈추

어 서며 말했다.

《자, 보세요.》

《뭘 보라는거냐?》

《운반갱도 말이에요.》

《내가 적게 봐서?》

《수백수천번을 봤으면 뭘해요. 철길이 뺨처럼 우물구불하구 거부기잔등처럼 울퉁불퉁한걸 지금도 못보시면서.》

정지성은 할 말이 없었다. 그도 선로상태가 좋지 못한것을 두고 생각하지 않은것은 아니었다. 바쁜 고비나 넘기고는 《뺨》처럼 구부러진 선로는 곧바로 펴고 《거부기》잔등같은것은 평탄하게 고를 생각을 한 때도 있었다. 하지만 계속되는 《바쁜 고비》를 넘기는 사이에 그런 생각을 감감히 잊어버린 그였다.

그런데 미순네는 그 《뺨》과 《거부기》를 잡아없애면 전차는 완행으로가 아니라 급행으로 달리게 되어 막장이 깊어져서 전차회귀시간이 15~20프로 늘어난것쯤은 간단히 보충할수 있다지 않는가.

정지성은 새삼스레 미순을 여겨보았다. 어느새 저렇게 어엿한 탄광의 주인으로 자라났는가싶었다. 오늘 아침에도 설것이를 하고 들어와서는 손이 시리다고 녹여달라고 어리광을 부리던 미순이었다. 출근길을 함께 가다가 눈덮인 얼음판에 들어서면 끌어달라고 매여달리고. 그런데 어쩌면 이리도 대견한 생각을 한단말인가.

《아니, 왜 그렇게 자세히 보세요?》

《어쩐지 오늘은 우리 미순이가 더 고와진것 같구나.》

《음- 장참 말팔량이라면서.》

《이런 기특한 생각만 하는 말팔량이라면 난 늘 업어주겠다. 자, 업혀라.》

정지성은 정말 업어줄양으로 등을 돌려댔다.

《아버지!》

미순이가 옆으로 나서며 사뭇 진중하게 말했다.

《진짜 업어줘야 할 사람은 제가 아니라 큰아버지예요.》

《뭘? 큰아버지? 그럼 초급당비서가?》

《그래요. 비서아바인 십여일이나 우리와 함께 전차를 타기도 하고 운반갱을 들이훑고 내훑기도 하면서 이 모든걸 생각했었어요.》

《음-》

정지성은 신음비슷한 소리를 냈다. 불현듯 전주 목요일비점검날 운반갱에서 만났던 당비서 생각이 났다. 미순네가 《뺨》이나 《거부기》가 탄차를 물어메칠가봐 무섭대서 좀 잡아보자구 나왔하던 당비서가.

정지성은 갑자기 빈혈이 나는것처럼 눈앞이 어질어질해서 걸음을 멈추었다.

미순이가 팔을 끼며 웅석기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아버지이? 그런데 말이예요. 중간역을 만들구 선로를 끈게 퍼자니까 다른건 다 우리 힘으루 할수 있는데 레루가 몇대 모자라는건 우리 힘으로 해결할수가 없어서 그래요. 좀 도와주지요?》

《도와주구말구. 중간역을 만드는데 드는 레루는 다라도 대주겠다.》

《아이 좋아! 우리 아버지가 제일이야!》

미순은 너무 좋아 쿵당쿵당 뛰었다.

정지성은 어쩐지 눈곱이 저려나 미순이를 때 놓았다.

《이젠 그만하구 어서 집에 가거라.》

《아버진 집에 안가실래요?》

《너희들의 귀중한 발기를 빨리 검토해봐야지. 자재두 타산해보구 로력타산도 해보구.》

그것은 거짓말이었다. 《뱀》을 잡는데는 얼마간의 레루못이면 될것이고 《거부기》 잡는데는 굴진갱에서 나오는 가루버럭 몇차면 될것이며 중간역을 만드는데는 몇대의 레루와 침묵이면 충분하리라는것을 뜯금으로도 환히 알수 있는 정지성이었다. 하지만 어쩐지 혼자 있고싶어서 정지성은 거짓말을 했다.

아버지의 말을 끝이 들은 미순은 저녁밥을 내오라느냐고 물었다.

정지성은 제격 끝내고 들어갈테니 어서 가보라고 미순을 가볍게 떠밀었다.

미순은 아버지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면서 총총히 떠나갔다. 반달음치는 미순의 모습은 어둡속에 사라지고 다져진 눈길을 밟는 뽀드득 소리만 간간이 들려오다가 그 또한 잦아들었다.

6

정지성은 숨웃주머니에 두손을 찌르고 걸었다.

저탄장쪽에서 전차소리가 들려왔다. 뒤이어 탄차 앞는 소리, 저탄장에 석탄 쏟아내리는 소리...

많이도 들어온 저 소리, 잠자리에 들어서도 저 소리가 들려와야 안심하고 깊이 잠들군하던 저 소리가 어이하여 오늘밤은 이다지도 깊은 생각을 몰아오는것인가.

정지성은 무거운 한숨을 지으며 걸음을 옮겼다.

철부지로만 여겨온 미순이가 볼수 있는 그 《뱀》과 《거부기》를 나는 왜 보지 못했는가? 선로상태가 좋아야 한다는것을 너무나 잘 알고있지 않는가. 그래서 목요일비점점날마다 선로와 전차 정비에 중심을 두라고 지령을 주면서 나는 왜 《뱀》과 《거부기》를 잡아치울 생각을 감감 잊어버렸는가? 내가 갱에 덜 나갔기때문인가? 내가 전차운전공들을 덜 만났기때문인가?

아니다! 나는 분명 초급당비서보다 운반갱에 더 자주 나갔다. 전차도 더 많이 탔다.

그런데 왜 초급당비서가 볼수 있는것을 나는

보지 못했고 초급당비서가 들을수 있는 말을 나는 왜 듣지 못했는가?

별안간 운반갱에서 한 초급당비서의 말이 귀전에 울렸다.

《이젠 미순이한테서두 제법 탄냄새가 나던데요.》

정지성은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추었다. 초급당비서와 자기와의 차이는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되는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자기는 미순이를 응석받이 철부지로만 보았는데 초급당비서는 미순이를 탄내가 나는 탄부로 보지 않는가. 바로 그렇기때문에 자기는 미순이가 선로상태를 두고 하는 말을 한갓 투정질로만 여겼고 초급당비서는 우물구불한 《뱀》과 우물불룩한 《거부기》를 잡으면 적어도 전차회귀시간을 10~20프로 앞당길수 있다는 가치있는 제기로 받아들인것이 아니겠는가.

정지성은 무거운 한숨을 지으며 다시 걸음을 옮겼다. 미순이를 철부지로만 여긴것은 그런대로 묵인할수 있을지도 올랐다. 그러나 모든 전차운전공들을 철부지로 여긴것은 얼마나 오만무도한 일인가.

내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는가?

문득 초급당비서가 평양병원에 다녀와서 하던 말이 생각났다.

《만성자만증》

혹시 그것은 초급당비서가 날더러 새겨들으라고 한 말이 아니였을까?

그러고보면 나한테는 확실히 《만성자만증》이 있다. 기사장으로 등용된후 계획을 못하는 탄광이라는 너울을 벗어던지고 해마다 계획을 넘쳐하는 탄광이라는 꽤찮은 옷을 갈아입었다. 그래서 으쓱해진것도 사실이다.

하나 《자만증》때문만이 아니다. 자만할만큼 탄광일이 잘되는것이 아니지 않는가. 달마다 막장은 깊어지고 해마다 계획은 늘어나는데 운반문제가 걸려 얼마나 애를 먹고있는가. 그런데도 미순네들에 의거해서 풀 생각을 못하고 런합에 대고 로력을 안준다, 전차, 탄차를 안준다 투정질이 나 하는것이 과연 《자만증》에 걸렸기때문이었는가?

정지성은 자기가 《자만증》외에 다른 합병증에 걸렸다는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그것을 알고싶었다. 당장 알고싶었다. 그래야 더 쇠기전에 수술받던 약질하던 마련을 볼것이였다.

정지성은 목이 타는것 같아 길썬의 눈을 한웅큼 집어 입에 넣었다. 그래도 자기가 어떤 합병증에 걸렸는지 알수 없었다. 생각이 막혔는지 나지도 들지도 않았다. 초급당비서의 얼굴만 어른거렸다. 그것은 차츰 병원에 갔다오는 길로 들었던 그때의 모습으로 고정되였다.

정지성은 큰숨을 몰아쉬었다. 초급당비서는 육

체적아픔을 견디기 어려워 병원에 갔다가도 자기의 정신적병까지 스스로 알아가지고 왔는데 나는 왜 그러지 못하는가? 초급당비서가 귀뜸해줄 때는 물론 그가 생각조차 못했던 엄청난 예비를 찾아준 지금까지 나는 왜 내가 어떤 사상적병에 걸렸는지 스스로 찾아낼수 없는가? 학습을 게을리했기때문인가?

정지성은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다시금 걸음을 멈추었다. 문득 그날 초급당비서가 하던 말이 떠올랐던것이다.

《역시 기사장동무 언젠나 학습을 잘하거던. 그렇지만 중요한것은 말로써가 아니라 실제적사업성과로써 정도자를 받들줄 아는 김책형의 지휘성원이 되는게 아니겠소.》

정지성은 입술을 깨물었다. 초급당비서가 옮긴 공동시설의 다음 구절이 뇌리를 쳤던것이다.

《경제지도일꾼들은 당이 준 경제과업을 기어이 수행하겠다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경제조직사업을 주인답게 책임적으로 짜고들어야 한다.》

정지성은 자기가 술에 취한 사람처럼 온전히 걸지 못한다는것을 느끼지 못했다. 자기가 얼마나 엄중한 병에 걸렸는가 하는것을 알아차린것이였다.

《만성... 자... 만... 증...》

정지성은 초급당비서가 확정한 병명을 중얼중얼 외워보았다. 그때는 탄광계획이나 그럭저럭 해낸다고 자만하고있다는 나무람으로만 들었었다.

그러나 지금 곰곰히 생각해보니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였다. 자기를 석탄으로 당을 받드는 충신으로 생각하고있는 심중한 자만증이였다.

한데 전차운전공들의 사상을 발동하여 굉장한 예비를 찾아낸 탄광초급당비서의 거울에 비쳐진 자기의 모습은 석탄생산계획을 힘에 좀 부치게 받아안았다고 해서련합에 손부터 내밀며 우는 소리를 하는 탄광기사장의 모습이였다.

그것은 충신의 모습이 아니라 우거지상을 한 패배주의자의 모습이였다.

정지성은 부끄럽기에 앞서 가슴이 아팠다. 지금은 말로 충성할 때가 아니였다. 우리 당의 혁명적경제전략을 관철하느냐 못하느냐, 우리 식 사회주의를 지켜내느냐 지켜내지 못하느냐 하는 판가리싸움이다. 최후의 결전장에서는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 누구에게 도움을 청한다는것부터가 언어도단이다. 필사의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 다 바쳐 싸워야 한다. 싸워서 이겨야 한다. 그래야 우리 당을 지켜낼수 있고 우리 조국을 지켜낼수 있다!

정지성은 바로 자기에게 그것이 부족했다는것을 심심히 뉘우쳤다.

(그러나 당비서가 볼수 있는것을 나는 보지 못했고 당비서가 들을수 있는것도 나는 듣지 못한것이...)

정지성은 가슴저미는 이런 생각에 잠겨 허둥지둥 걷고있는데 누군가 찾는것이였다.

《그게 기사장동무가 아니요?》

초급당비서의 목소리였다.

《어데서 한잔 했소?》

초급당비서가 재차 물어서야 정지성은 자기가 넓디넓은 길을 두고 길옆의 눈속에 서있다는것을 알아차렸다.

《한잔하고 이렇게 정신이 없으면 기분이라도 좋지요.》

《아니, 그럼 어데 아프우?》

《이 가슴이 아픡니다.》

《그럼 기사장동무도 협심증이 아니요?》

《아니요. <만성자만증>에 여러가지 합병증이 왔지요.》

《허허... 우리 참새한테서 무슨 소릴 좀 들은 모양이다-》

《참새라니요? 실제적인 사업성과로써 장군님을 받들줄 아는 일군의 눈에만 예비가 보인다는걸 귀뜸해준 피꿀새인데요.》

《웁소! 우리 미순이두 이젠 석탄으로 당을 받들려는 탄부의 녀이 깃든 진짜 피꿀새가 되었던군.》

그래 그 피꿀새들의 제기를 보니 어땡습디까?

《래일 기술과동무들을 데리고 현장에 나가 구체적으로 타산해보겠습니다만 련합을 쳐다보지 않고도 <ㄷ. ㄷ>결성 70돏까지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낼 자신이 있습니다.》

《참모장이 자신있다니 됐구만 됐어!

자, 어서 갑시다. 빨리 들어오라는 피꿀새의 명령이요.》

《우리 미순이가요!》

《미순이가 아니면 누구겠소. 금시 운반갱에서 같이 나온 아버지가 사무실에 없다면서 나한테 전화를 걸었던군.》

《무슨 일이라우?》

《굉장히 좋은 일이라우. 자, 어서.》

초급당비서가 팔을 겼다.

정지성은 이끌리다싶이 걸음을 뻘었다. 그것을 느끼고는 초급당비서와 발걸음을 맞추었다.

《조심하우. 얼음판이요.》

초급당비서가 주의를 환기시켰다.

정지성은 아침에 미순이가 끌어달라고 매여달리던 바로 그 얼음판이라는것을 알아차렸다.

《넘려마시우! 비서동무같은 명의가 옆에서 살피주는데 얼음판이 아니라 불판우에서라면 쓰러지겠소.》

정지성은 자신있게 걸었다. 뒤에서는 초급당비서 김영훈의 호탕한 웃음소리가 떠밀어주고 앞에서는 좋은 일이 이끌어주는듯싶었다.

정지성의 걸음은 빨라졌다. 차츰차츰 더 빨라질것이였다.

래일을 안고산 사람들

손광영

때목을 타고 탄광지원왔던 산림리용반사람들이 돌아갔다. 마침 제령산쪽으로 가는 뺨스가 있어 지배인은 그들을 거기에 태워보내도록 지시했었다. 지원자들은 자기네 산림보호원에게 보내는 탄부들의 뜨거운 인사도 함께 가지고갔다. 산림보호원은 장마통에 동발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아 석탄생산에 지장을 받게 되었을 때 스무해동안이나 애지중지 키운 울창한 숲을 갱목채벌지로 대준 고마운 사람이었다. 산림리용반사람들로 지원대를 무어 보낼 때 그는 자기의 아들도 함께 달려보냈었다.

이제 갓 중학교를 졸업한 애송이청년이였다. 그런데 며칠전 그 청년이 탄광에 아주 놀러왔겠다고 정식 제기해왔다. 김재봉지배인은 어렵고 힘든 부문에서 자기가 설 자리를 찾으려는 청년의 그 마음이 대견하였지만 선뜻 받아들일수 없었다. 알아본데 의하면 청년은 산림보호원의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이었다. 더우기 그의 아버지는 오래전에 허리를 상한 불편한 놈이라고 했다.

그해 지원자들이 철수할 때 같이 보내도록 하였다. 그들을 태운 뺨스가 이슬내린 포장도로를 따라 버럭산너머로 사라졌으나 지배인은 이윽히 사무실창가에 서있었다.

위대한 장군님의 경도를 받들고 온 나라가 산악같이 일떠서 겹쌓이는 난관을 《고난의 행군》 정신으로 뚫으며 신심과 락관에 넘쳐 나아가는 시기였다. 석탄으로 당을 받들기 위해 전국도처에서 탄원해오는 청년들의 아름다운 소행은 막장사람들의 투쟁을 크게 고무해주고있었다. 자기의 한생 바쳐 동발림을 키운 제령산산림보호원과 탄부가 될 결심을 표명해나섰던 그의 아들의 소행이 바로 그러하였다.

새벽에 지배인은 갡으로 들어갔다가 떠날 시간이 다 되도록 막장에 머물러있는 산림보호원의 아들을 만났었다. 탈선된 광차를 지레대로 떠올리는 운반공의 숨씨가 몹시 서툴기에 거들어주려고 다가가니 뜻밖에도 그 청년이였던것이다. 광차바퀴를 레우에 태우고 마주섰을 때 청년의 절절한 소청이 그의 가슴을 후덥게 하였다. 하지만 그는 딱 잡아땀었다.

《그건 안돼. 너 자신을 막장에 세우기 전에 먼저 아버지부터 생각해야 한다.》

《지배인동지!》

청년은 절망적인 목소리로 웨쳤다. 고개를 돌렸다. 순간 이마우에서 비치는 안전등빛이 두사람의 자태를 확-드러냈는데 김재봉은 분명 젊은

이의 얼굴에서 이미 오래전에 사라져버린 추억의 먼 빛을 보았다. 허나 환영처럼 떠올랐던 그 빛발은 이내 스러져버리고 그의 눈가에는 안타까움과 절망으로 이지러진 모습이 애처롭게 비껴들었다. 그제야 김재봉은 자기가 헤여질 시간이 다 되도록 이 청년에 대하여 아는것이 너무도 적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려운 때에 동발림을 대주어 탄광을 크게 도와준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도... 그리하여 지배인은 청년을 이끌고 운반경도를 걸을 때 한결 누그러진 목소리로 물었다.

《그래 아버지가름이 뭐냐?》

《리정현입니다.》

《리정현이라구?!...》

어쩌면 이름이 신동히도 같은가... 김재봉은 무엇인가 몽클 가슴을 치는듯한 충격을 느끼며 기대어린 눈길로 청년의 모습을 다시금 더듬어보았다. 선이 뚜렷한 얼굴, 어질고 순박해보이는 두눈... 고집스럽게 꼭 다물린 약간 두툼한 입술, 오래전 그의 인생에 지울수 없는 흔적을 남기고 가버린 전우의 초상이 바로 그러했었다. 아버지가 그전에 탄부로 일한적이 없는지?... 언제 허리가?... 의문은 몇갈피로 번져졌으나 청년은 묵묵히 두말만 번갈아 내짚을뿐이었다. 그는 어찌선지 지배인을 꺼리고있었다. 자기의 제의를 단마디로 거절해버렸기때문인지도 모른다. 갡구로 거의 다 나왔을때야야 무뚝뚝하게 대답했다.

《아버진 제가 태어나기전부터 산림보호원이였습니다.》

김재봉은 모처럼 마련된 담화가 너무도 짧게 끝나버리는것이 아쉬웠다.

(참 아버지의 이름이 리정현이라구 했지.)

잊을수 없는 전우, 하지만 이제는 너무도 삭막해진 세월의 저 멀리에서 울려오는 이름이었다.

20여년전의 겨울 어느날... 어버이수령님의 현 지교시를 높이 받들고 새로운 탄광을 개발하기 위해 천동골로 모여드는 청년들속에는 리정현이라 부르는 젊은이도 있었었다. 체격이 거칠지고 승벽이 드셨지만 인정만은 몹시 헤픈 체대군인이었다.

김재봉은 그를 탄광으로 가는 고개길에서 만났다. 훔날리는 눈송이를 꽃보라처럼 맞으며 감개어린 눈길로 련련히 물결처럼 산발을 둘러보던 중사가 바로 한 련대에서 복무한 리정현이었다.

《여보게 재봉이, 도대체 어디에 탄광이 있음직한가? 이건 눈이 어찌나 퍼붓는지 어디 앞을 가려볼수 있어야지.》

반가운 상봉끝에 리정현이 하는 말이였다. 하지만 김재봉도 탄광이 있음직한 골짜기를 자신있게 짚어낼수 없었다. 개발지로 찾아가는 젊은이들의 발길에 다져졌던 소로길조차 쉽없이 내리는 눈속에 자취를 감춰버렸던것이다. 까짓거 걸자구. 천리산발도 단숨에 넘나들던 제대병사가 그래 전국에 소문난 탄광개발지 하나 제대로 찾아내지 못하겠는가... 배심은 든든했으나 방위판정은 왕창갈아 마침내 가지가 부러지게 흰눈을 수북히 떠인 울창한 혼성림과 맞닿게 되었을 때 그들은 실망하기는커녕 오히려 미출하게 자란 나무숲을 바라보며 유쾌한 웃음을 터뜨리였다.

《멋있는 동발감들인데》, 《저 숲을 통채로 둘러메고 탄광으로 갔으면 좋겠어.》

청춘의 랑만은 이처럼 《고난》속에서도 지질줄 모르는 법이여서 그들은 울창한 수림과 눈사태, 쏟아져내리는 골짜기마다에 자기들의 훌륭한 공상과 앞날의 계획을 엮어보는것이였다. 어지간히 지쳤을 때 리정현은 솔직히 실�했었다.

《친구, 사실 난 제대될 때 탄부가 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어. 나의 고향은 강원도 원산이거든, 가보았나?... 아니 못가보았다?!... 휴가를 받으면 한번 가보자구. 파도소리를 지척에서 들을수 있는 경치좋은 고장이야. 고향에선 누이동생이 어머님을 모시고있네. 내가 군대로 나갈적만 해두 어머니 아침이면 미역이며 다시마를 말리우느라고 바다가양식가내반으로 나가군하셨지. 어머니도 퍼그나 달라지셨을거네. 늙으신 어머니를 모시고 동해기슭에서 흘러갈 나의 인생이였지. 그런데 고향으로 가는길에 렬차방송을 들으니 위대한 수령님께서 진논까비 내리는 험한 렬길을 걸으시며 손수 탄광위치까지 잡아주신 천동땅으로 전국의 수많은 청년들이 렬일 탄원해간다고 하더군. 난 어쩐지 자신이 돌이켜졌네. 어제날 일선초소에 섰던 우리 제대군인들이 오늘 서야 할 위치가 어디겠나? 우리 수령님께서 석탄문제는 더는 심려하시지 않도록 해드리는데가 아니겠어. 그래서 여기로 왔다네.》

김재봉은 불현듯 전우가 부러워졌다. 그의 앞날은 얼마나 명확하게 설계되어있는것인가. 자신에 대한 심각한 반성과 충분한 사색을 거친 사람만이 저렇듯 명료하고 스스럼없이 말할수 있는것이다. 그런데 김재봉에게는 래일에 대한 뚜렷한 계획이 없었다. 그는 고향이 평양이였지만 군대로 떠날 때 바래준것은 중등학교의 정다운 동무들과 고마운 선생님들이였으니 전쟁시기 미국놈들의 야만적인 폭격에 부모동생을 잃은 전재고아였던것이다. 석탄전선으로 집단진출하는 전우들의 뒤를 따라 여기로 온 그였다. 하여 김재봉은 좀 뒤늦은 감이 있지만 자기의 한생이 도달해야 할 목표를 리정현의 리상과 나란히 세우기로 했다...

고생한 보람이 있었다. 또 한굽이를 돌아 드디어 청년개척자들이 구름같이 모여든 골짜기를 찾아내었을 때 그들은 벌써 자기의 한생이 흘러갈 천동땅의 지형을 손금보듯 알수 있었던것이다.

런이어 울리는 발과소리가 땅속에 묻힌 광대한 탄맥을 흔들어 깨우며 산발너머로 메아리쳐가고 제대군인들이 펼쳐놓은 생활의 호수가 웅심깊게 설레이며 골짜기를 따라 파도쳐갔다. 천동끝은 젊은이들이 내뿜는 열기에 확확 달아오르는듯했다.

청년개척자들속에 뛰여든 그들은 청춘의 푸른 기슭에 잇을수 없는 자옥을 남기며 흐르는 세월과 함께 성장하였다.

생활에는 준엄한 자연을 상대로 한 불꽃튀는 투쟁만이 있는것이 아니였다. 한눈에도 굽어볼수 있는 좁은 골짜기였지만 그우에 었고사는 사나이들의 자부심은 누구나 다 부러워할만한것이였다.

한번은 갱구앞에 닦아놓은 넓은 공지에서 별치않게 시작된 힘을 겨루는 젊은이들의 내기가 엄청난 규모의 경기로 번져가 온 갱의 이목을 집중시켰었다. 말복이 갓 지난 8월의 어느 휴식일이였다.

씨름, 무릎싸움, 정대꼬나올리기 등 없는 종목이 없었다. 힘이 딸리는 청년들은 장기판에 꼬나판까지 들고나서서 사람들을 웃겼다.

이 모든 종목들에서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한 김재봉은 권입장쪽으로 달려가서 광차바퀴를 힘껏 굴러왔다. 워낙 체육이란 지혜와 의지의 대결이기에 앞서 힘의 대결인것만큼 진정한 승리는 광차바퀴를 들어올리는 사람에게 있다는것이였다. 터무니없는 론조였으나 구경군들의 열광적인 지지를 받았다. 결국 백열전을 이룬 이날의 경기는 력기에서 절정을 이루게 되었다.

자신있는 젊은이들은 모두가 나서는 판이였다. 허나 육중한 광차바퀴를 머리로 버쩍 추켜올린다는것은 말처럼 험한 일이 아니였다. 웃동까지 벗어던지며 걸차게 나섰던 젊은이들이 천신만고하여 무쇠덩이를 가슴노리까지 끌어올렸으나 그만 어깨우로 팔뚝을 꺾지 못하여 떠들썩한 웃음속에 꿈무니를 사리가 일쑤였다.

《자, 더 나설 용사는 없는가?》

이쯤하면 승부는 명백히 결정되는 셈이였다. 처녀들이 들쭉으로 엮은 꽃목걸이가 김재봉의 목에 걸릴것은 불보듯 명백한 사실이였다. 그는 비록 우승하진 못했어도 병사시절 중대를 대표하여 력기경기에 출전한 전적을 가지고있었던것이다.

바로 이때였다. 성벽처럼 둘러선 사람들의 어깨너머에서 《가만!》 하는 목소리가 울렸다. 그 목소리와 함께 경기장의 형세도 순식간에 일변하였다. 김재봉은 광차바퀴우에 굽혔던 허리를 펴고 고개를 들었다. 이런 기막힌 법이라구야... 짹

- 갈라지는 《성벽》사이로 성큼성큼 걸어나오는 사람은 뜻밖에도 리정현이었던 것이다.

그는 한손을 옆구리에 얹고 도전자로 나선 친구를 노려보았다.

(아니, 자네가?…)

(그렇게, 날세.)

(그대 나를 이겨보겠대구?…)

(거야 어디 겨뤄보아야 알 노릇이지.)

헛하하… 갑자기 웃음이 터져올랐다. 김재봉은 손을 내젓고 발까지 구르며 웃었다. 글썽 부디 골라 전우가 도전해나설진 뭐람…

사람들은 성수난 눈길로 거인처럼 마주선 두 힘장사를 지켜보았다. 어느쪽이 이기는지 흐뭇하기는 매한가지였다. 우정으로 치면 쌍둥이형제나 다름없는 그들이 힘의 대결장에 서로 만만치 않은 적수로 나섰으니 어찌 흥취가 나지 않을수 있겠는가. 더우기 두 친구가 겨루는 힘은 청춘의 육체에 깃든 단순한 폭력의 시위가 아니라 엄혹한 자연의 고삐를 거머쥐고 굴진속도로 《휘파람소리》가 나게 밀고나가는 청년개척자들의 충천한 기세와 드높은 열정을 상징하는데야…

구경꾼들조차도 은근히 군함을 쓰게 하는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엿바꾸어 펼쳐지더니 드디어 승리의 꽃목결이가 리정현의 목에 걸렸다. 하지만 김재봉은 자신의 패배를 도대체 인정하지 않았다.

진정한 승부는 석탄증산으로 들끓는 막장에서 겨뤄보아야 알수 있는 일이기때문이었다.

똑똑… 손기척이 울렸다. 김재봉지배인은 책상 위에 퍼놓은 결재문건에서 눈길을 들며 소리쳤다.

《들어오시오.》

조용히 열리는 문가로 한쪽어깨에 배낭을 걸친 낮익은 청년이 머뭇거리며 들어섰다. 한순간 지배인은 자기 눈을 의심했다. 방안에 들어선 그 청년은 뜻밖에도 체령산산림보호원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아니… 네가 어떻게…》

《전… 뺨스에서 도루 내렸습시다.》

낮으나 여독진 목소리였다.

《그건 어째서? …》

《지배인동지, 저는… 탄부가 되기전에는 절대로 집에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그렇다?》

지배인은 입을 꼭 다물며 짐짓 엄한 표정을 지으려고 했으나 그만 눈가위로 배어나오는 미소를 어쩔수 없었다. 새삼스러운 눈길로 이 녹녹치 않은 때군을 여겨보았다. 아직 여물진 못했지만 잘 다스려주면 힘깨나 쓸것 같은 든직한 체구, 정의감에 불타는듯한 어글어글한 눈매… 불현듯 그는 이 청년을 붙들고싶은 욕심이 굴뚝처럼 솟

아오름을 느끼며 넋지시 물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말은 초소가 있는거다. 그런데 넌 어째서 부디 탄부가 되려고 하느냐?》

《그건 저의 결심이기전에 아버지의 소원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소원이었다구…)

순간 주위를 배회하던 예감이 화살처럼 날아와 가슴속에 깊숙이 박히는듯하였다.

청년은 글썽해진 눈길을 치켜들며 입술을 떨었다.

《용서하십시오. 사실 전 지배인동지를 속였습니다. 아버지… 제가 태어나기전에 탄부였습니다. 바로 이 천동골에서…》

《뭘라구, 그럼 산림보호원을 하는 너의 아버지가?》

《네…》

《넌 그 리정현의 아들이구?…》

《지배인동지!》

스무해동안이나 모르고 지낸 전우의 행방을 이렇게 알게 되다니… 김재봉은 그만 격정을 금치 못하며 애끓은 청년의 어깨를 짊 그러쥐었다.

청년의 모습에서 세월과 함께 멀어져간 전우의 얼굴을 또다시 보게 되는듯싶어 오래도록 그의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우정으로 보나 도리를 놓고보아도 그들은 그렇게 헤어져 지낼 사이가 아니었다. 그런데 허구한 세월 전우의 안부조차 모르고 지냈으니 의무를 다 하지 못한 가책이 꿈틀거리며 가슴속에서 서서히 돌아눕는 것이었다.

…갱구 앞 넓은 공지에서 힘을 겨루는 사나이들의 경기가 있는 다음부터 그는 리정현을 볼 때마다 은근히 승벽이 살아올라 견딜수 없었다. 그래서로 다른 마구리에서 일할적에도 설참이면 나 사조이개나 무슨 자질구레한 착암기부속같은것을 얻으러 가는것처럼 전우가 일하는 막장으로 찾아가서는 그날 굴진정형을 눈으로 직접 확인하곤 하였다. 만일 친구가 천공구멍을 한개라도 더 뚫렀을때에는 마음이 조급해져 그냥 건디여배기지 못했다. 교대시간이 좀 지연되더라도 실적을 끌어올려놓고서야 막장을 뜨곤하였다.

리정현은 친구의 이런 심정을 아는지 모르는지 싱글거리는 눈길로 천연스럽게 바라보기만 했다. 막장에서도 끝날줄 모르는 그들의 이러한 승부가 석탄생산에 일정한 기여를 한것만은 사실이었다.

가을에 접어들면서 리정현이 한걸음 앞서나가기 시작했다. 그런데 들리는 말에 의하면 그가 굴진속도를 높일수 있는 새로운 천공방법을 연구했다지 않는가… 하며 폭력보다 머리를 쓸줄 아는 전우앞에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을 때 김재봉은 또다시 본심을 드러내놓았다. 교대를 마치면 줄곧 탄광도서관에만

불박혀있는 이정현을 소공원의 잔디밭으로 끌어내어서는 하다못해 팔씨름이라도 해보자고 성화를 먹인 것이었다. 했으나 너무도 쉽게 승리자가 되자 그는 기뻐하기는커녕 도리어 아연해졌다. 김재봉은 옷자락을 툭툭 털며 일어나 다시 도서관으로 가려는 친구를 붙들고 잠시 망설이다가 요즘 새로 연구했다는 천공방법에 대하여 슬쩍 물어보았다. 이정현은 영문을 알수 없는듯 두눈을 뜨부럭거리며 한참 바라보더니 갑자기 고개를 젓히고 꺾꺾 웃기 시작하였다. 어찌나 크게 웃었던지 그만 김재봉의 웃음집도 흔들거렸다.

《좋아, 대주지. 그런데 한가지 조건부가 있네.》

《그게 뭔데?》

《이건 숙련보다 원리에 기초한 방법이기때문에 자네가 책을 보지 않으면 이해할수 없다는거네.》

《너무 학자연하지 말라구.》

《아니, 차라리 학자가 됐으면 좋겠네. 어버이수령님께서는 우리 탄부들을 나라의 맏아들로 내세워주시는데 더 많은 석탄을 캐내자면 배워야 할 게 아닌가. 재봉이, 우리 약속하자구. 입학준비를 잘해서 내년가을에는 꼭 탄광대학에 들어가자는 것을.》

《그것두 조건부인가?》

《물론이지.》

김재봉은 슬며시 건어올린 팔소매를 내리었다. 전우는 아득히 높은곳에서 손저음하고있었던 것이다.

서둘지 않으면 까마득히 뒤떨어지리라는 불안이 마음을 초조하게 하였다.

눈내리는 겨울 어느날 이정현은 고향을 다녀오게 되었다. 그는 김재봉과 함께 가지 못하는것을 무척 섭섭해하면서 돌아올 때는 그 별충으로 꽃감 한배낭을 가져다주겠노라고 하였다. 그런 말을 할때 그의 얼굴이 약간 붉어지는것을 보았다.

아무렴 감두 따고 님도 봐야지... 떠들썩한 웃음과 결쭉한 톤말들이 려차시간을 대여가느라고 반달음치는 이정현의 잔등을 따라가며 두들겨주었다.

얼마나 가고싶던 고향길인가... 전우를 바래주며 갱구길에 서있노라니 김재봉은 눈곱이 따끔거렸다. 고향에선 머느리감을 정해놓고 기다리는 늙으신 어머니와 사랑하는 누이동생이 그를 반겨 맞아주리라. 하늘도 제대군인탄부의 앞길을 축복하며 하얀 눈송이들을 꽃잎처럼 뿌려주고있었다.

그런데 휴가를 받고 떠나갔던 이정현이 나홀로 못채우고 돌아올줄이야... 강산같이 내린 눈에 길이 막혀 빠스가 움직이지 못하게 되자 시오리나 되는 눈길을 꼬박 걸어서 왔다.

김재봉은 뜻밖에 차례진 꽃감선물앞에서 마음이 흠죽했으나 그렇다고 에누리할수 없었다.

《도대체 어찌된 일인가?》

《젠장, 나두 잘 모르겠어. 갈 때는 보름두 모자랄것 같았는데 정작 가닿으니 못견디게 오구실더란말이요. 꿈을 꾸어두 동발을 떼어나르는 꿈만 꾸니... 합숙에서 친구들의 코고는 소리를 듣고 땀내를 말아야 마음이 편해지는가보네.》

《그러니 그 처녀는?...》

《다 잘됐어.》

이정현은 성급히 밀막으며 쑥스럽게 웃었다.

《그 동문 바다가양식사업소에서 양식공을 하더군. 어머니가 선보려 가자고 다곳기에 그날저녁으로 처녀의 집에 갔댔지. 선을 보려 가긴 했지만 어찌나 뿔하던지 그 처녀 얼굴도 푹푹히 보지 못하고 일어섰네. 어머니가 정한 대상인데 여부가 있을라구. 그런데 그 처녀 오빠가 따라나오며 바빠하더군. 의향을 표시하지 않았다는거야. 그래 탄 의견이 없다구 말해주고 그날밤으로 려차를 탔네.》

전우는 그 어떤 무훈담을 이야기할 때처럼 사랑스러운 어조로 말하였지만 김재봉은 들을수록 허만 내두르게 되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일이었다. 그는 아직 휴가일이 적지 않게 남아있었으나 쉬려고 하지 않았다. 고향에서 돌아온 그날로 막장에 들어가 착암기를 잡았다.

이정현의 누이동생으로부터 편지가 왔다. 두집 어머니들이 모여앉아 합의한 내용을 적어보냈는데 오빠의 결혼식을 당겨서 새해정초에 하였으면 한다는 것이었다.

이정현은 곧 회답을 써서 탄광거리유측에 있는 체신분소에 부치고나서 곧바로 갯목채벌장으로 올라갔다. 다른 의견이 없었던 것이다. 그는 막장시간을 빼앗는 시끄러운것들을 뿔수록이면 빨리 헤어버리려고 서두르는듯싶었다.

그가 산판으로 떠난지 30분도 못되었을 때였다.

교대를 끝낸 김재봉이 방금 합숙편으로 들어 서는데 한 처녀가 다가와 이정현을 좀 찾아달라는 것이었다. 처음 보는 처녀였다. 어디서 왔는가고 물으니 강원도 원산이라고 했다. 순간 잠짝놀란 그는 처녀에게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한 다음 갯으로 뛰어갔다. 마침 림지로 동발을 실으러 가는 자동차가 있었다.

김재봉이 다시 합숙으로 돌아왔을 때 처녀는 몹시 미안해 하였다.

초조하고 불안스러운 시간이 지나갔다. 처녀는 자주 시계를 보았다.

김재봉은 전우를 잔뜩 추켜올리며 이제는 돌아올 때가 되었다고, 운전사한테 신신당부하였으니 아마 지금쯤은 전갈을 받고 막 달려올것이라고 하였다. 그때 고향으로 갔다가 나홀로 못채우고 돌아선 일을 두고 얼마나 후회하였다고... 원래 그렇게 인정이 무른 친구라고, 여기 탄부들은 다 그렇다고 했다. 석탄에 비기면 고열탄이니까...

처녀는 격정스럽던 마음이 조금 달린듯 손으로

입을 가리며 수집게 미소했다. 해풍에 그슬려 가무스름한 얼굴이 후광을 받은듯 밝아졌다. 비로소 그는 처녀의 평범한 얼굴이 웃을 때면 보름달처럼 환해진다는것을 깨달았다. 그만하면 《제수》로 맞는데서 나무랄데가 없는 처녀였다.

갱목채벌장으로 갔던 자동차가 차축이 휘도록 통나무를 가득 싣고 돌아왔다. 자동차가 합숙마당을 스쳐지나갈 때 운전사가 차문을 반쯤 열고 소리쳤는데 《리몽룡》이 저녁에 내려온다고 알려주었다. 김재봉은 더는 순진한 처녀앞에서 자신을 변명할수 없게 되었다. 제길, 방자노릇을 하해도 이긴 손발이 맞아야 하지... 그는 자신없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사실 정현동문 새벽교대를 마치고 예비동발을 마련하러 채벌장으로 올라간겁니다. 어떻게 하나 일을 더 많이 하려 애쓰는걸요.》

《아이... 그렇게들 바쁘신가요?》

《...》

그는 처녀의 물음앞에서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렇다, 아무리 바쁘다한들 수백리길을 찾아온 애인을 만날 여유조차 없겠는가... 자기를 이런 궁지에 빠뜨린 전우를 원망하는수밖에 없었다.

《전... 가야겠어요.》

《조금만 더 기다리십시오. 어차피 내려올테니 까요. 내려오면 내 단단히 버릇을 떼주지요. 아마 혼살날겁니다.》

잘 다스린 두개의 방망이같은 주먹을 위협하듯 흔드는 그를 보고 처녀는 옅은 미소를 띄웠다.

《저도 시간이 없습니다. 이웃탄광으로 지원물자를 싣고 왔다가 들렸했어요. 그 동물 만나면 저의 인사를 전해주세요.》

리정현은 저녁이 다 되어서야 합숙에 나타났다. 동발목을 실은 마지막자동차를 타고왔던것이다. 커다란 기대를 안고왔다가 그냥 돌아간 고향처녀를 두고 그가 얼마나 절망에 빠졌으며 자신을 질책하였는지 구태여 설명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토록 피로와하는 전우앞에서 김재봉의 노여움은 한순간에 날아가버렸다. 리정현은 진정으로 처녀를 사랑하고있었던것이다.

김재봉은 창문을 활짝 연다. 그러자 창유리를 두드리던 새날의 음향들이 문틀이 버그러지게 물려들어온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혼을 받들고 석탄증산으로 들끓는 탄전에서 기적과 위훈으로 불리우는 폐사로운 하루가 또 시작된것이다. 푸른 불꽃을 날리며 선로를 따라 분주히 오가는 전차며 석탄폭포가 쏟아져내리는 저탄장... 콘베아들이 강물처럼 흐르는 거창한 배탄설비들... 저기 인입선이 들어온 저탄장쪽에서는 석탄을 만재한 차량들을 무겁게 단 《붉은기》호 전기기관차가 우렁찬 기적소리로 구내를 들었다놓으며 화력발전소

를 향해 방금 자옥을 떼는데 땅김이 운무처럼 서려도는 전차궤입구로는 빛살같은 안전등을 허리춤에 꽂은 탄부들이 바빠 들어서고있다.

추억이란 얼마나 아름다운가. 자기의 한생을 바쳐 동발림을 키우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탄광으로 떠밀어보내며 바랐을 전우와 같이 훌륭한 사람들의 그 념원에 받들리어 오늘의 탄전은 더욱 세차게 끓어번지고있는것이다.

다음 순간 잠시 밝아졌던 지배인의 얼굴에 어두운 그늘이 언뜻 스쳐지나갔다. 한창나이에 시대의 벽찬 흐름속에서 밀려나지 않으면 안되었던 리정현의 운명을 돌이켜보면 그때의 안타까움이 지금도 심장을 아프게 옥죄이는것만 같았다.

...그날 전우의 교대에서는 경사가 났었다. 소대가 힘을 합쳐 뚫고들어가는 막장에서 드디어 그의 교대가 착탄(탄맥을 잡는것)을 하였던것이다.

아직 도면상으로만 익혔던 거대한 탄층이 마침내 모습을 드러냈다는 희한한 소식이 운반궤도를 따라 마구리들마다에 퍼져가자 그 반향인듯 채탄공들이 막 달려왔다. 그들은 불빛에 번쩍거리는 탄층을 배경으로 서서 탄폭과 탄질을 가늠하기도 하고 큼직한 석탄덩어리를 랑쪽 손에 갈라 쥐고 두발을 번갈아 내짚으며 신이 나서 어깨춤을 추기도 하였다.

하지만 굴진공들은 경사를 뒤에 두고 막장을 떠나야 하였다. 이보다 더 훌륭하고 더욱 번쩍이는 탄맥을 잡기 위해 또다시 준엄한 자연과 겨루는 굴진의 길을 힘겹게 걸어가야 하였다.

기쁨과 아쉬움이 자리바꿈을 하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갑자기 《비켜라!》하는 날카로운 웨침과 함께 김재봉의 몸이 허공 떠서 권입장쪽으로 뿌려졌다. 잇달아 쿵-하는 중중한 음향이 지층을 흔들며 탄맥을 따라 메아리쳐갔다.

머리칼이 쭈뼛 일어서는 무서운 예감을 느끼며 그는 안전등빛들이 일제히 모여진곳을 보았다. 김재봉은 그만 자기 눈을 의심했다. 그가 서있던 자리에 리정현이 우뚝 서있었다. 온몸의 근육들이 금시 터질듯 팽배해진 초인간적인 힘으로 기울어지는 현수동발을 어깨로 떠받들고... 동발우에는 균형상태가 흐트러진 암석들이 끝모를 미궁속으로 무섭게 드리워져있었다. 중력을 받아 사정없이 내리쏘려는 어마어마한 짐을 전우가 어깨로 멈춰세운것이였다. 순간 경악실색한 사람들의 웨침이 일시에 터져나왔다. 김재봉은 안타깝게 두손을 맞잡았다. 여보게, 왜 그러구 섰나? 왜 그러구 섰어? 빨리 피하라구... 어서 피하라는데... 했으나 전우는 산을 떠받드는 동발처럼 영원히 굳어진 자세로 한자리에 억척같이 서있을뿐이였다... 후회는 언제나 때늦게 오는 법이다. 지금도 그순간을 생각하면 어찌하여 자기가 전우한데

로 인차 달려가지 못했던가 하는 자책이 량심의 준절한 채찍이 되어 온몸을 아프게 휘감군다. 전우와 함께 섰더라면... 기울어지는 현수동발아래 자기도 어깨를 들이밀었더라면 전우한테로 사정없이 덮쳐들던 그 위험이 조금이라도 덜어졌을 것이 아닌가.

...눈이 내렸다. 정월의 소담한 눈송이들이 하염없이 내려 새해의 첫 진군길에 펼쳐나선 탄부들의 자랑찬 로력투쟁을 격려해주는듯싶었다. 환영곡이 울리고 꽃보라가 활달했으며 겨울날의 땡땡 언 대기속으로 탄부들의 입김을 축하하는 방송원의 열기띤 목소리가 힘있게 울려갔다.

하지만 이제는 출근길에 오른 탄부들속에서 리정현의 모습을 볼수 없었다. 그는 모든것이 눈처럼 희고 정결한 입원실의 침대우에 누워 아직도 의식을 차리지 못하고있었다.

의사들은 취할수 있는 대책을 다 취하였다. 그 모든 노력에도 불구하고 호흡부전이 오면서 심전도의 푸른빛 곡선들이 점점 미미해지다가 끝내 명계선에 이르렀을 때 김재봉은 그만 어찌할바를 몰라 전우를 덤석 끌어안으며 오열을 터뜨렸다. 정녕 이것으로 끝장이란 말인가...

사경에 처한 탄부의 생명을 소생시키기 위한 당적인 조치들이 취해졌다. 평양의 이름난 병원에서 파견된 강력한 의료진이 천동굴에 도착하였다. 시시각각으로 달라지는 환자의 상태를 두고 하루에도 몇차례나 의사협의회가 열렸다. 밀창난 등불처럼 꺼져가는 생명에 활력을 주며 귀중한 고가약들이 혈관속으로 아낌없이 흘러들어가 육체를 위협하던 죽음을 몰아냈다.

은혜로운 태양의 빛발을 받는 한 삶을 절대로 스러지지 않는다. 마침내 거의다 꺼져가던 생명의 불꽃이 온몸을 후덥히며 기운차게 타오르기 시작하였다...

위기는 이미 지나갔다. 회복기에 이르자 환자의 건강은 몰라보게 호전되기 시작하였다. 한달만에는 지팡이에 의지하여 걸음을 뚝수 있었다.

김재봉이 퇴원수속을 끝낸 리정현을 이끌고 병원을 나서던 그날은 참으로 함박눈이 푸근하게 내렸었다. 날씨도 때를 맞춰준듯 그 이른날 아침은 류달리 잠룡하였는데 학교가는 아이들이 벌려놓은 눈싸움에 어른들이 웃으며 발을 구르기도 하고 어느 굴진공총각은 한개분대나 되는 유치원 조무래기들을 뒤에 달고다니며 갱입구와 마을의 골목마다에 눈사람을 만들어놓아 동네아낙네들의 호평을 받기도 하였다. 그런데 사흘이 되자 한난계의 수은주들이 밑으로 쑥 움츠러들었으며 나흘째되는 날에는 눈보라가 일기 시작하여 《탄부도시》에 켜인 규률과 질서를 주던 《눈병정》들이 모래알처럼 여문 눈가루들의 맹렬한 공격에 여지없이 패우고 뽕뽕 얼어버렸다.

그날저녁 하루일을 끝낸 김재봉은 전차선로를

따라 걷다가 탄차와 공차들이 분주히 엇갈리는 운탄장쪽에서 낮익은 한 자태를 보게 되었다. 리정현이었다. 못사람들의 발밑에서 다져진 눈우에 지팡이를 꼭 박고 서서 뽕뽕 눈발이 연줄연줄 밀려가는 갱구쪽을 하염없이 바라보고있었다. 아마 누군가를 기다리는 모양이었다.

김재봉은 그리로 다가갔다. 아직도 완전히 추서지 못한 전우의 몸이 걱정되었던것이다.

《왜 여기 서있나? 어서 들어가지 않구.》

《응. 자네인가?》

리정현은 허연 입김을 비자루처럼 날리며 반가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서로 헤어져 지낸 이 하루가 한달맛잡이거나 한듯.

《아무런 할 일도 없이 합숙방에 불박혀있자니 어디 답답해서 견딜수가 있어야지. 그래 마중을 나왔뎌네.》

《원, 사람두...》

김재봉은 눈굽이 달아올랐다. 것처럼 승벽세고 분망하던 사람이 불현듯 한가한 날을 맞게 되었으니 얼마나 생각이 많았을텐가...

《너무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구. 난 언젠가는 자네가 막장에 들어설 날이 있으리라고 믿네.》

《다 틀렸어, 이젠 끝장이야.》

그는 지팡이를 들어 허공을 지으려다가 그만 동통이 오는듯 두팔을 허우적거렸다.

김재봉은 전우의 오른팔을 겨드랑이에 꼭 끼고 걸음을 옮기며 걱정스레 물었다.

《왜 그러나? 그새 무슨 일이 있었어?》

《난 자신이 이런 지경에 이르리라고는 생각못했네. 병원에서 퇴원할적만해두 한가닥 미련을 가지고있었지. 그런데 지금에 와서는...》

아침에 협의진단이 있다가에 탄광병원으로 가니 로동능력을 상실한 영예탄부라는거야. 그러니 이제부터 국가에서 주는 보조금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거지. 보조금이라니...어떻게 그럴수 있어, 그 말을 차마 믿을수 없어 막장으로 슬그머니 들어가 착암기를 잡아보았네. 그런데 몸이 이전같지 않으니. ...재봉이, 난 정말 어쩌면 종단말인가. 응?》

리정현의 눈에 분을 이기지 못하는 눈물이 핑-건너갔다. 그의 신상을 두고 예견치 않은바가 아니였지만 정작 전우의 입에서 그런 말을 들으니 가슴이 미여지는듯했다. 애써 걱정을 다잡으며 입을 열었다.

《왜 자기가 지켜낸 막장과 동지들을 생각 못하나. 막장에서 지금 석탄이 팡팡 쏟아져나오고있어. 바로 자네의 이름으로... 그래 친구들은 뭐 바보인줄 아나? 온 탄광이 자네의 위훈을 알고있네. 설사 다시 막장에 서지 못한다해두 어디 가나 똥똥 떠받들고 다닐거란말이야.》

《그러니 나더러 한뉘?...》

《자넨 그럴 권리가 있어.》

《...》

그제야 자기 처지를 더욱 똑똑히 진감한듯 이정현은 낮빛이 창백해졌다.

《고맙네. 깨우쳐주어서...》

그는 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지팡이를 서툴게 내짚으며 전차선로를 따라 걸어갔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침묵에 발부리를 걸친듯 허우대 큰 몸을 또 휘친거렸다. 김재봉이 달려가 부축해주었더니 이번에는 거절하지 못하였다.

그날부터 이정현은 몹시 우울해졌으며 눈에 띄게 축갔다. 동무들의 따뜻한 관심과 위로는 오히려 그의 의기만을 분질러버리는듯싶었다. 그는 별치 않은 일을 가지고도 트집을 걸어 김재봉을 찢찢매매 하였으며 인차 자기의 파격한 행동을 뉘우치며 용서를 비는 것이었다.

《자네 이제부터 나를 친구로 여기지 않을테지. 내가 잘못했어. 두말할것 없이 다 내 탓이야. 하지만... 난 자네가 부러워 죽을 지경이야. 나한테 하루하루 값없이 보내는 오늘이 있지만 자네에겐 래일을 위해 막장에서 마음껏 땀흘리는 보람찬 오늘이 있거든. 아, 자네가 만일 내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수만 있다면... 단 한번만이라도 착암기를 쥐고 막장에 서고싶은 이 심정을 이해할수 있다면...》

리정현의 어머니한테서 편지가 왔다. 고향으로 오라는 편지였다. 어머니는 아들의 신상에 닥친 불행을 두고 가슴아프게 여겼으나 내색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동지들을 위해 자기 한몫을 서슴없이 내댄 숭고한 소행을 자랑으로 간주하는터였다. 그러나 이제는 남들처럼 성한몸이 못되는것만큼 고향으로 돌아와 아주 놀러앉았으면 하였다.

오히려 동지들을 위해 자기 한몫을 서슴없이 내댄 숭고한 소행을 자랑으로 간주하는터였다. 그러나 이제는 남들처럼 성한 몸이 못되는것만큼 고향으로 돌아와 아주 놀러앉았으면 하였다.

리정현은 어머니의 의향을 따르기로 했다. 그리하여 3월초순의 어느날 아침 탄광을 떠나게 되었다.

김재봉이 함께 가려고 했으나 그는 완강하게 거절하였다. 혼자서도 얼마든지 갈수 있다는 것이었다. 지팡이를 고누어 들고 합숙마당을 한바퀴나 돌아 재봉의 눈에 눈물이 글썽거리게 했다. 저렇게 멀정한 사람이 영예탄부라니 어찌보면 거짓말같기도 하였다. 리정현은 척추에 받은 치명적인 타격으로 비록 걸음은 옮길수 있어도 로동능력이 회복될 가망이 전혀 없었던것이다.

전우를 뜨겁게 포옹하였을 때 그는 놓아주고 싶지 않았었다. 어떻게 헤어질수 있단말인가. 이제라도 마음을 돌리라구. 자네의 한생을 우리가 따듯이 돌봐줄테니 어머님을 모셔다가 여기서 함께 살자구. 영원히 떨어지지 말구...

리정현은 고개를 흔들었다. 석별의 정을 금치 못해 눈물지으면서도 굳이 떠나갔다. 그를 태운 자동차가 버럭산골이를 에돌아 사라질 때까지 김재봉은 그냥 손저어주었다.

전우도 마주 손을 흔들었다. 그것은 인생의 가장 보람찼던 나날들에 보내는 마지막 손저음이였다.

...고향으로 떠나간 전우한테서는 어찌된 일인지 소식이 없었다. 무소식은 희소식이라지만 김재봉은 날이 갈수록 걱정스럽기만 했다. 하여 그는 리정현을 돌봐주던 그 이후의 나날들에서 마음의 위안을 얻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오히려 뉘우쳐지는바가 많았다. 동무들의 따듯한 방조는 그의 얼굴에 비낀 그늘을 더욱 짙게 하였으니 리정현이 서둘러 천동땅을 떠나간것이 그때문인지도 모를 일이었다.

김재봉은 아무리 바빠도 시간을 내여 전우의 고향을 한번 다녀오리라 결심했다. 그러자 무겁던 마음이 조금 덜리는것 같았다.

출발을 하루 앞둔 봄날저녁이었다. 누군가가 리정현을 찾는다기에 합숙편관을 나섰던 김재봉은 저으기 놀랐다. 온몸을 석양빛으로 수집게 물들이며 담장옆 움트는 백양나무아래 서있는 처녀는 뜻밖에도 전우의 애인이었다. 처녀는 그를 알아보고 무척 반가와하였다.

《저... 기다리다 못해 떠났어요. 정현동무 어머니의 부탁두 있구 해서...》

자기의 뒤늦은 용단을 부끄러워하는듯한 어조였다. 김재봉은 그만 얼퍼름해졌다.

《아니... 그 친구를 만나지 못했습니까? 그는 고향으로 간다면서 탄광을 떠났는데요.》

《고향으로 가다니요?》

《이젠 한달이 되어옵니다.》

《?!...》

처녀는 영문을 몰라하였다. 고향에선 그의 어머니가 아들이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있었던것이다. 어머니를 대신하여 떠난 절음이었다. 그런데... 처녀는 일순 허둥거리는 눈길로 주위를 둘러보더니 그만 두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돌아섰다.

그러니 전우는 처녀를 피하여 어딘가 다른곳으로 간것이 분명했다. 예익, 못난 친구같으니라구야. ...김재봉은 랑패감을 누를길 없었다.

처녀는 갔다. 한때 그리도 마음끌리던 고향이 건만 행방을 알길없는 런던의 모습으로 하여 우수만을 더해주는 천동의 류다른 산발들을 눈물고인 눈길로 바라보며 갔다.

쉽지 않은 결심을 품고왔던 처녀, 용모도 마음씨도 아름다운 처녀, 영영 잃었다고 생각하니 전우에 대한 노여움이 저절로 터져나왔다. 저런 처녀를 놓치고 어디 가서 일생의 길동무를 구하려고 하는지 리정현의 앞날은 생각할수록 막막하기

만 했다. 그런데 전우는 대체 어디로 갔단말인가?

김재봉은 한가지 생각에만 몰려있을수 없었다.

그러기에는 탄전의 들끓는 현실이 너무도 벅찼다. 전우로 하여 허전해진 가슴속에는 천동의 배부른 산발들이 가득찼다.

그해 가을 그는 대학추천을 받고 탄광을 떠나게 되었다. 착암기소리 우렁차던 막장이며 힘을 겨루는 사나이들의 내기가 절정을 이루었던 갱구 앞 넓은 공지… 고향집처럼 정든 합숙이며 전우의 손에 이끌려 처음으로 들어섰던 탄광도서관… 지난날의 가지가지 추억들이 깃든 탄광거리를 지나 가을빛 완전한 잊을수 없는 그 고개를 넘을 때 그는 훔날리는 눈송이를 꽃보라처럼 맞으며 리정현과 함께 나란히 걷던 그날의 그 고개길을 생각하였으며 자기를 오늘의 이 길로 떠밀어주던 먼곳의 전우를 향해 뜨거운 동지적인사를 보냈던 것이다.

세월은 류수와의 같다더니…

어느덧 대학을 졸업한 김재봉은 도석탄관리국 지도원을 거쳐 부국장의 중책을 지니고 사업하게 되었다. 온 누리에 사회주의기상을 떨치며 나날이 변모되는 조국의 자랑스런 현실을 대할 때마다, 이 땅위에 무성하게 꽃피어나는 공산주의미풍들을 전해들을 때마다 제 한몸 서슴없이 내대며 동지들을 구원한 옛 전우를 추억하곤 하였으며 도리를 지키지 못하는 자책으로 마음이 무겁곤 하였다.

몇해전 어버이수령님의 현지도도 스무뿔을 맞으며 나라의 석탄생산에 크게 기여한 천동탄광에 많은 훈장과 선물들이 전달되었다. 이 뜻깊은 행사에 명예손님으로 초대된 김재봉은 그때도 리정현을 찾았었다. 하지만 어제날의 우정을 감감 잊었는지 전우를 도와줄수 있었던 그 시절에 그는 종시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다.

세월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아물수 없는 눈물과 비애의 흙채기를 깊숙이 켜고 지나갔다. 김재봉은 지금도 피눈물속에 보냈던 1994년을 돌이켜보며 커다란 상실감으로 하여 심장이 터지는 듯한 모진 아픔을 느끼곤 한다.

어버이수령님의 유훈을 높이 받들고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한 위대한 장군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전체 인민들이 산악같이 일떠섰던 그 나날에 그도 온 가족을 데리고 탄광으로 진출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이제는 료원하던 전우의 행방을 여기서 알게 될줄이야…

김재봉은 전우의 모습을 그대로 닮은 애젊은 청년을 이윽히 바라보았다. 눈보라 사납던 그 저녁, 지평이를 서둘러 내짚으며 전차선로를 따라 걸어가던 리정현이가 눈앞에 서있는것만같아 가슴이 뭉클해졌다. 하고보니 전우는 탄광을 영 떠나간것이 아니었다. 나라의 혜택속에 한생을 편안히 살수 있었던 그 나날에도 조국의 번영을 위

해 스스로 걸머진 자기 본분을 잊지 않고 험치 않은 삶의 순간순간을 위훈으로 수놓아온것이였다.

사람두, 멀지 않은곳에 있으면서… 그렇게 살아있으면서도 기별을 보내오지 않다니.

지배인은 청년의 어깨를 두손으로 껴안아 쏘파우에 눌러앉히고 자기도 그 옆에 앉으며 말하였다.

《너의 아버지 한생을 국가의 혜택과 동지들의 방조속에 살아가야 할 영예탄부였다.》

《전… 어머니가 이야기해주어서야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왜 산림보호원이 됐는지… 어머니 제가 탄광으로 떠나기전에 당부하였습니다. 꼭 탄부가 되어 조국의 앞길에 밝은 빛과 열을 주는 석탄을 캐라고… 그것이 아버지의 소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조국의 앞길에 밝은 빛과 열을 주는 석탄을!)

그렇게지, 그랬을테지 김재봉은 뜨겁게 되뇌었다. 거세찬 격랑이 산더미같이 밀려와 가슴에 부딪치는듯 눈앞이 확 흐려졌다. 끝끝내 찾아내여 전우의 안해가 되어준 어제날의 그 처녀를 찾아가 탄부들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리고싶었다.

맑게 개인 가을날이다.

단풍드는 천동계곡을 빠져나온 《갱생》승용차 한대가 제령산이 있는 서북쪽으로 달리고있었다. 차안에는 그리운 전우를 찾아가는 김재봉지배인이 좌석등받이에 잔등을 기대고 조용히 앉아있었다.

차창밖을 내다보는 그의 얼굴은 몹시 지쳐보였다. 그도 그럴것이… 스무해동안이나 모르고 지낸 전우의 행방을 알게 되었던 그날 《로동신문》을 통하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 제령산 산림보호원 리정현의 소행을 료해하시고 높이 평가해주시였으며 친히 감사를 보내주시였다는 격동적인 소식에 또다시 접하였을 때 그의 심장은 세차게 놀뛰었다.

평범한 날에 바쳐온 전우의 숨은 노력을 위훈으로 빛내여주신 위대한 장군님의 다함없는 은정이 온몸을 뜨겁게 달구어주었다. 당장 전우를 찾아가 축하해주고 쌓이고쌓인 회포도 나누고싶었다. 하지만 그는 애써 자제했었다. 자기의 한생바쳐 동발림을 키운 그가 사랑하는 아들까지 탄광으로 떠밀어보내며 바랐을 그 녀원이 무엇이었던지 가슴을 세차게 두드리는 자책속에 돌연 깨닫게 되었기때문이었다.

김재봉은 자부심을 느끼는데 습관된 사람이였다. 나라에서는 그가 맡은 임무수행에서 성과를 거둘 때마다 높은 국가수훈과 은정어린 선물을 가슴벌도록 안겨주었던것이다. 그런데 늘 땃땃하다고 자부하던 자신의 삶을 전우의 한생에 비추어볼때 부끄러움을 느끼지 않을수 없었다. 누가

보건말건 평가해주건말건 조국의 이름없는 한 기
 숭에서 동발됨을 키우며 래일을 위한 오늘의 투
 쟁을 위훈으로 수놓은 전우처럼 남은 여생을 빛
 나게 살아야겠다는 자각이 가슴을 뜨겁게 불태워
 주고있었다. 장마로 하여 긴장되었던 이달계획을
 열흘이나 당겨 마무리짓느라고 막장에서 새웠다.
 때로는 봉락이 온 운반갱도에서 난감해지기도
 하였지만 맥을 놓고 앉아있는 젊은이들에게 옛
 전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더니 그들은 놀랍
 게도 억척같이 일어나 끝내 막혔던 갱도를 열고
 야말았다. 그리하여 더 넓어지고 더욱 튼튼해진
 운반갱도로 탄차들이 쪽쪽 빠져나갈 때 김재봉은
 제령산마루에 우뚝 서서 멀리 천동골안을 바라

보고있을 전우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보내
 였다....

석비레포장을 한 도로옆으로는 수량이 풍만한
 강이 흘렀다. 석양이 황금빛무늬를 수놓은 강물
 우에서는 제령산에서 띄운 떼목들이 유유히 떠내
 려오는데 떼장대를 첫던 탄광사람들이 자기네 지
 배인의 승용차를 알아보고 한손을 높이 흔들어준
 다.

김재봉은 《갱생》을 세우고 강기슭으로 내려섰
 다. 전우가 또 한차례 내려보내는 떼목들을 바라
 우는 그의 가슴은 설레었다. 그것은 이 나라 사
 람들의 앞길에 영생하는 삶의 빛발을 뿌려주는
 고마운 조국에 보내는 전우의 뜨거운 인사였다.

투사여 나도 그대처럼...

-항일혁명투사의 반신상앞에서-

신병문

해빛넘친
 여기 대성산혁명렬사릉
 단발머리 최희숙동지의 반신상앞에 서니
 1930년대가 어제런듯이 가슴 불처럼 뜨겁구나

항일의 나날
 놈들에게 체포되어
 시뻔결게 단 쇠꼬챙이로
 그의 몸 지지며 갇은 고문 다 해도
 수령님의 전사된 영예를 빛내인 투사여

아, 들리여온다
 세월의 언덕을 넘어
 악착한 놈들은 그의 눈알을 뽑으며 발광했어도
 원썩들을 전륜케 하며 웨치던
 그 목소리

-나에게는 지금 눈이 없다
 그러나 나에게는 혁명의 승리가 보인다
 삼천만인민이 만세를 부르며
 해방을 알리는 승리의 그날이 보인다

아, 투사의 아름다운 꿈은
 그 얼마나 찬연했는가
 그 꿈이 하도 소중한기에
 투사는 가슴을 헤치고 심장을 도려내도
 혁명의 지조 끝까지 지켜냈거니

대를 이어 계속되는 혁명의 길에
 승리의 미래를 확신하며 웨치던 그의 목소리
 오늘도 총천 새 세대 이 병사의 가슴을
 세차게 두드린다

혁명의 미래 오늘의 우리 행복을 위해
 청춘의 한목숨 바친 투사의 삶은
 정녕 오늘을 위한 오늘의 삶이 아니라
 래일을 위한 오늘의 삶이었다

사람이 살아 삶이 아니다
 순간을 살아도
 혁명의 래일을 위하여
 오늘에 산 사람은
 죽었어도 천추만대 영생하거니

투사여, 나도 그대처럼
 영생의 언덕에 오르리
 혁명의 찬란한 미래 래일을 위한
 투쟁의 오늘, 락관의 오늘에 살리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
 높이 받들어 모시는 길에
 그 어떤 사나운 폭풍이 몰아쳐와도
 한번 다진 맹세 변함없이
 최후의 순간까지 충성과 효성 다하리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살며

《과학의 요새를 점령하는 사업에서는 거듭되는 실패에도 주저앉지 않으며 온갖 난관앞에서도 동요를 모르고 완강한 의지로 끝까지 투쟁해나가는 사람만이 성공할수 있습니다.》

김정일

실화문학

꼭 필요한 사람

김해월

방직공장 하면 우리는 누구나 다 끝없는 직기 바다를 날으는 갈매기, 천을 짜는 아름다운 직포 공처녀들을 생각하게 된다. 고운 꽃문양옷에 산뜻한 앞치마, 살짝 줄라맨 빨강고 파아란 머리수건을 날리며 무용수들마냥 기대사이를 누비는 활동적인 걸음, 그 걸음을 따라 뿔뿔이 쏟아져흐르는 색깔곱고 문양고운 갖가지 천필들...

방직은 그야말로 예술인것이다.

그러나 이 《방직무대》의 《무용수》인 직포공들의 창조적활동을 위해 남모르게 바쳐지는 《안무가》들의 고심어린 땀이 있다는것을 아는 사람들은 많지 못할것이다.

여기서 이야기하려는 함흥모방직공장기술준비실 기사 김남현동무도 바로 《무용수》들의 아름다운 선물을 창조해내는 이러한 《안무가》들중의 한사람이다.

우리 인민을 세상 그 누구보다도 더 잘 입혀 내세우려는 고마운 당의 구상을 높이 받들고 경공업혁명의 길에서 그가 이루어온 일을 이 짧은 글에서 다 이야기할수는 없다.

그러나 하나를 보고 열을 헤아린다는 말이 있지 않는가.

량심과 명예

하루작업이 끝났다. 멀끔하게 옷을 갈아입은 어떤 젊은이들은 서둘러 회관으로 가기도 하고 더러는 장기관에 둘러앉기도 하였다.

아까부터 휴게실 책상우에 무슨 도면인가를 펼쳐놓고 골똘히 들여다보고있던 남현은 그때야 거기서 눈길을 떼었다. 직장사무실에 갔던 작업반장과 세포비서가 무슨 이야기인가를 나누면서 휴게실에 들어섰던것이다.

《이제사 오누만... 이걸 좀 봐주시오.》

그는 그들의 손목을 잡아 도면앞으로 이끌었다.

《이건 건절기펼침장치도면이 아니요?》

얼핏 도면을 스쳐본 세포비서가 물었다.

《아니? 발명권을 받은지도 오랜 도면을 무엇때문에?...》

작업반장은 리해가 안된다는듯 의문이 실린 눈길을 들었다.

《...얼마전야야 알았는데 자주 고장이 난다더군요. 그래서 이 개조도면을...》

《원 걱정두... 그거야 기대공들 조작탓인데 이제 와서 제작자와 무슨 상관이 있소. 거기 수리공들은 뭐 바지저고린가.》

작업반장은 그저 웃어넘기려는 태도였다.

《그들에게만 맡길 일이 아닌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내가 마저...》

《그럼 지금 안고있는 연구과제는 어떡허구?》

《그걸 하면서 파외에 이걸 해야지요.》

《파외에?...》

남현은 한참 수입제원료를 대용할수 있는 연구를 추진하고있는중이었다. 이것도 한시를 미룰수 없는 중요한 과제였다. 그러니 작업반장의 태도가 리해가 안되는바는 아니였다. 반장앞에 놓여있는 도면을 세포비서가 끄당기며 말하였다.

《나 도면 좀 봅시다.》

잠시 침묵이 흘렀다. 남현은 담배를 붙여물고 한모금 깊이 빨아서는 후- 하고 내뿔었다. 휴게실로 퍼져가는 그 파르스름한 연무를 타고 펼침장치를 만들던 고심어린 나날이 환영처럼 떠올랐다.

그가 비날론견질설비의 펼침장치연구에 성공한것은 몇년전 일이었다.

견질기란 비날론섬유를 장길이 그대로 잡아당기는 방법으로 실을 뽑는 설비다. 이렇게 뽑은 실은 비날론섬유를 토막쳐서 섬유의 미세한 짧은 오리들로 뽑아지는 보통 비날론실에 비할바없이 질긴것이어서 비날론의 인민경제적효과성이 더욱 커진다.

원래 어느 한 자본주의나라의 유신상사에서 이 설비를 들여올 때의 계약조건은 기계를 다 설치한 다음 자기네 기술력량을 투입하여 견질기의 펼침장치를 완성해주는것이였다. 견질기에서 펼침장치는 기계의 요진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였다. 한것은 통짜로 흘러내리는 비날론피를 견절기가 요구하는대로 종이장처럼 얇게 퍼서 공급해야 하는데 이것을 사람의 손으로 하기란 여간만 힘든 일이 아니기때문이다.

이를테면 고급동작을 요구하는 기계장치였다.

계약대로 펼침기를 제작 설치하려고 그 상사의 한다가하는 기술자들이 와서 머리를 싸쥐고 안감힘을 쓰다가 돌아가고 또 왔다가 돌아가기를 세차례... 그들은 아주 기권을 해버렸다.

공장은 이 공정에 기계대신 사람을 배치했다.

기계에서 흘러내리는 비닐론피를 펼쳐주는 어려운 일을 사람이 감당해야 했다.

바로 이러한 때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함흥모방직공장 건설방직직장의 건설피를 펼쳐주는 장치를 완성할데 대한 교시를 주시였으며 남현을 비롯한 《4.15기술혁신돌격대》원들이 그 관철에 떨쳐나섰던것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외국인기술자들이 못한것을 우리 공장 로동계급을 믿고 맡기셨는데 어떻게 하나 풀어야 한다.)

결심하고 달라붙었으나 일은 처음부터 순탄치 않았다. 뒤에서 하는 시비질소리도 귀에 들려왔다. 공명심이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한다느니, 외국 기술자들도 하다가 물러났는데 무슨 수가 있겠느냐니... 그럴수록 그는 입술을 깨물었다.

그는 먼저 며칠동안 현장을 료해하고 문헌조사에 달라붙었다. 공장도서실에서 도도서관으로, 도도서관에서 과학원으로... 발바닥에 물집이 일도록 줄달음치기도 하였다. 《국제특허분류포》여덟책을 다 보아가며 거기에 분류된 부분별로 깊이 파고드는 독파과정도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더러 리해가 안될 때에는 대학의 강좌와 교수, 박사들을 찾아가면서 대학공부를 하지 않은것을 후회하기도 하였다.

그는 고등기술학교 방직과의 우수한 학생이었다.

재학기간 전국적인 수학, 물리 학과경연에서 3등을 한적도 있어 《수재》라고 칭찬을 받아온 그가 대학문을 마다하고 자진 공장으로 나온데는 그로서의 남다른 희망과 포부가 있었다.

어버이수령님께서서는 우리 인민들에게 하루빨리 질 좋은 모직옷감을 안겨주시려 막대한 국가자금을 들여 이 물맑은 호련천기술에 세상에 자랑할 만한 현대적모방직공장을 세워주시지 않았는가. 일하면서 배워 혁신자도 되고 기사도 되어 수령님의 크나큰 뜻을 하루빨리 꽃피우리라... 입직한 후 그는 자기의 결심대로 현장에서 땀흘려 일하는 한편 이악하게 공부도 하였다. 하여 일하면서 동력대학(현재의 함흥수리동력대학)을 졸업하여 어엿한 전기기사로 자라났다. 이러한 그였기에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관철에서 한걸음도 물러설 수는 없었다.

설계... 제작... 시운전... 실패... 또 설계...

2000여번도 더 넘는 실패를 이기고 마침내 완성한 건설기의 자동펼침기였다. 피섬유의 량쪽가늌을 잡고 일정한 거리에서 빠른 속도로 폼다가 놓아주는 동작을 반복하게 만든 이 기계는 참으로 사람의 손이 무색할 정도였다.

펼침공처녀들이 고된 로동에서 해방되었다. 48명의 로력을 절약하면서도 건설사의 질을 훨씬 높이게 되었다.

하여 그는 일부 사람들의 머리속에 자리잡고있는 외국기술에 대한 환상을 깨고 어버이수령님의 뜻을 받드는 주체과학기술의 무궁무진한 힘을

시위하였던것이다. 이로써 처음 그는 발명권을 받았다.

위대한 수령님의 교시를 관철하였다는 공지와 자부로 하여 그 나날 그의 가슴은 얼마나 부풀어 올랐던가,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바로 그 장치가 한번 두번 자주 몇기 시작한다는것이다. 그러나 남현이 설계제작자라하여 오늘에 와서까지 그것을 꼭 책임지라는 법은 없었다. 한것은 펼침장치가 가동하고있는 부분은 숨던지가 많이 날리는 개소로서 덧쌓이는 먼지로 하여 생기는 이러한 고장은 기계장치 그 자체의 성능과는 아무런 관련도 없는것으로 얼마든지 해석할수 있었기때문이었다.

그러나 남현은 그렇게 생각할수가 없었다. 나는 발명권을 받았다. 나에게서는 발명가의 명예가 있다. 그러나 발명권을 받은 기계에 오점이 있다면 나의 명예도 참으로 깨끗한 명예로 될수 없지 않는가. 존엄있는 명예, 깨끗한 명예는 량심으로 담보되는 그런 명예여야 하는것이다...

남현은 그 장치앞에 몇번이고 서보았다. 그때마다 마치 구실을 못하는 자식을 남한테 떠맡긴 듯한 자책감이 온몸에 아프게 파고들어 건딜수 없었다.

그래서 그는 벌써 오래도록 남모르는 고심을 안고 탐구를 거듭하여 펼침장치의 고장을 완전히 없애기 위한 설계를 해왔던것이다.

...도면에서 눈을 떼며 세포비서가 말하였다.

《반장동무, 남현동무는 지금 신중한 문제를 생각하고있는것 같구만요. 이를테면 기술자의 량심이라 할가... 안그렇소, 남현동무?!...》

그는 사람종계 웃으며 도면을 다시 반장앞으로 슬그머니 밀어놓았다.

《그렇습니다. ...난 정말 이따금 벗어나서는 저 펼침기를 보면서는 얼굴을 들고다닐수가 없습니다.》

《글쎄 이 반장도 그걸 리해 못하는건 아니요. 그런데 새 연구과제도 얼마나 긴급한것인가... 좌우간 둘다 밀어보자구.》

일은 시작되었다.

탐구자의 일은 언제나 고행인 법이다.

설계대로 새 장치를 해보았으나 전진이 없었다. 다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았으나 실패가 못했다.

그는 룡성, 홍남, 사포 등 큰 공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아이들의 장난감을 만드는 자그마한 공장에 이르기까지 메주밭듯 찾아다니였다. 입술이 부르토고 다리뼈가 빠근하여 지쳐쓰러지면서도 물러서지 않았다.

그날도 그는 룡성기계련합총공의 기능공들을 찾아가 협의를 하다가 돌아오고있었다.

저녁 퇴근무렵이어서 통근렬차는 붐비었다. 그는 문어구에 선채로 생각을 토포고있었다.

(왜 안될까? 무엇에 걸렸을까?)

차실안쪽 어디에선가 손풍금소리가 울려왔다.

얼핏 시선을 주니 손퐁금연주가는 대어섯살났음직한 어린애였다. 모두들 어린아이의 연주솜씨에 감탄하며 박수에 열을 올리고있었다. 그러나 남현에게는 그렇게 할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그저 무심히 그쪽에 시선을 던지고있을뿐이었다. 그러다가 갑자기 그의 눈빛이 번쩍 빛났다.

(단추?... 다시 튀어오르는 건반?...)

마치 나서 처음보는 손퐁금연주처럼, 누르면 다시 튀어오르는 건반의 작용도 이제사 처음 보는 현상이기라도 한것처럼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어린애앞으로 다가갔다.

《애야, 한국 더 타보렴...》

재청을 받는데 습관이 되어있는듯 그애는 또 다른 곡을 탔다.

(바로 저런식으로 한다면?... 갈구리가 저절로 섬유퍼를 물게 하고... 만약... 그래... 자, 가만가만...)

《정말 잘 타누나, 애야 한국 더...》

그애는 또다시 탔다. 무슨 곡을 연주하는가 하는것은 그가 알바가 아니었다. 그는 다만 그애의 손놀림과 튀어오르는 건반을 온몸이 눈이 되어 지켜보았다. 그렇다. 바로 저것이다. 펠침장치에서 고장을 없애자면 좌우로 이동하면서 띠를 밀어주는 방법이 아니라 그 어떤...

《애야, 고맙다!》

그는 너무도 기쁜김에 손퐁금수소년을 덥석 꺼안았다. 연주는 멎었다. 렬차도 멎어섰다.

《여기가 어딴니까?》

《어디진 어디겠소, 신상역이지...》

《신상?...》

연주에 《심취》하여 그만 함흥역을 지나친것이다. 돌아서는 차를 기다려 타고 함흥역에 내렸을 때는 거의 새벽녘이 되었다. 그러나 남현동무는 피로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길로 공장으로 달려가 일손을 잡았다. 노력은 성공의 어머니라고 그는 드디어 관성의 힘을 리용하는 새로운 장치를 만들어내고야 말았다. 그것은 본래의 안내대와 갈구리를 결고 벗기는 조절력을 없애버리고 그대신 갈구리가 걸려야 할 위치에 가서 그것을 저절로 걸고 띠를 퍼준다음 갈구리를 벗겨줄 때에도 저절로 벗겨지도록 관성의 힘을 리용하는 장치였다. 안내대를 없애니 숨먼지에 의한 고장이 없어지고 조절력을 없애니 조절작업이 필요없게 되었으므로 수리공들이 높은곳에 사다리를 타고 오르내릴 필요도 없어졌다. 간단하면서도 성능이 좋은 기계였다.

남현은 반장에게 약속한대로 본래 말았던 《B방법》에 대한 연구과제도 원만히 수행하여 수입하던 원료를 대용하게 함으로써 몇을번하던 방모기들을 다시 돌리게 하였다. 시운전이 성공한 날 반장은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정말 수고했소, 량심이란게 과연 중요하긴 중요한거구만.》

그옆에 서있던 세포비서도 사람 좋게 웃었다.

그렇다. 일군들의 량심과 명예에 대한 철학을 그는 자기의 실천행동으로, 고르롭게 올리는 건절기펠침장치의 힘찬 동음으로 해명해주었다.

추구하는 명예는 오염된 명예이다.

당과 혁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것을 다 바치는 순결성이 담보된 명예만이 참된 명예이다.

위대한 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크나큰 사랑에 어떻게 하나 보답하려는 량심으로 살때 그러한 명예는 고귀한 명예로 빛을 뿌린다.

오늘도 함흥모방직공장 견질방직직장에서는 인간이 지닌 량심의 귀중함을 끝없이 이야기하는듯 섬세하고 껌싼 기계손으로 비날론띠를 살짝살짝 퍼주면서 견절기자동펠침장치가 만부하, 만가동의 고르로운 동음을 울리고있다.

언제나 필요한 사람으로

오늘 경공업제품에 대한 인민들의 질량적수요는 날을 따라 높아가고있다. 담요에 대한 수요도 마찬가지로일수밖에 없다. 색깔이 약간 어두워도 문양이 조금 곱지 못해도 나무라게 되었다.

(어떻게 하면 더 탄탄하고 문양이 고운 담요를 생산할수 있을까?)

그래서 담요생산자들은 늘쌍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때 공장에서는 박천견직공장에서 생산한 《마안산》담요에 대한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우리 인민들의 생활을 친아버이의 사랑으로 보살펴주시는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한장의 담요마저 공장에 견본으로 보내주시였으며 털내기를 잘하여 새롭게 만들어올린 담요에 《마안산》이란 이름을 친히 달아주시였다...

그래서 이 뜻깊은 《마안산》 담요는 포근할뿐 만아니라 더 화려하여 세상에서 제일 좋은 담요로 되어야 하였다.

남현은 공장기술자들과 함께 《마안산》 담요에 아름다운 무늬를 새길수 없을까 하는 착안을 하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다섯달에 걸치는 철야전투를 벌려 마침내 여러가지 색깔의 무늬를 놓는 방법을 해결하였다.

그런데 또 새로운 문제점이 포착되었다. 기술 일군들속에서 립체무늬담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것이다. 립체무늬-홍분시키는 새로운 착안이였다.

그러나 남현은 그 착안을 두고 주춤하였다. 또 얼마마한 탐구세계를 걸어야 성공의 열쇠를 쥌수 있을것인가. 말그대로 립체적인 무늬를 나타내는 이 담요는 특수한 방직기술을 요구하는것이였기에 이것을 생산하는 나라가 세계적으로도 몇 되지 않았다. 이것을 하자면 우선 특수한 조직의 천설계가 요구되었다.

일반적으로 천이나 담요를 짜려고 하면 어떤 재질의 실을 가지고 어떤 조직으로 짜임을 하며 색깔과 문양은 어떻게 줄것인가 하는 직물설계가

앞서나가야 하는것이다. 그런데 립체무늬담요는 립체감을 주기 위해서 설계에서부터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하였다. 또 설계뿐이 아니였다. 평담요를 짜던 직기로써는 겉층과 안층의 두겹천으로 무늬를 부각시켜 짜수 없으므로 직물의 설계에 따라 직기의 개조를 예견하고 따라서 직기의 개조설계도 동반해야 하는 어려운 과학기술적문제가 제기되는 과제였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겨운 탐구의 길이라는 것을 남현이 모를리 없었다. 시작했다가 마지막까지 걷지 못하고 패배자의 병거지를 쓸수도 있는일이였다. 더구나 자신은 방직에 있어서는 초학도에 불과하지 않는가. 그러나 그는 어버이수령님과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는 사랑의 품속에서 기사로 성장해온 지나온 나날을 돌이켜보며 다시 생각하였다.

착안이 유익한것이고 의의있는것일진대 그 실현의 길이 어렵다고 해서 외면하는것은 당의 품에 자라난 기술자의 자세가 아니다. 로동당시대의 기술자는 착안한 모든것을 실천에 옮겨야 할 의무가 있다. 한번 물려서면 열번 물려서게 된다. 물려서는것은 당과 수령에 대한 배신행위다... 아 내가 어찌하여 잠시라도 주저했던가?!...

이리하여 그는 또다시 립체무늬담요를 맡아안고 탐구의 새로운 행군을 시작하였다.

《어벌이 크다》고 혀를 찰 사람들도 있었고 《기술혁신을 몇건 하더니 하늘 높은줄 모른다》고 은근히 비난하는 측들도 있었다. 그러나 그는 문헌작업을 계속했고 현장에서 기계의 성능을 따져보기도 하였다.

그러나 좀처럼 실마리가 잡히지 않았다.

(정말 내가 경거망동한게 아닐가?)

아닌게 아니라 마음속 동요도 일어났다. 그러던 어느날 초급당비서가 그들의 현장을 찾아왔다.

듬직한 몸매를 가진 당비서는 언제보나 믿음이 가는 মানুষ의 모습이었다.

《남현동무, 수고하누만, ... 쌍둥이들은 잘 자라오?》

남현은 말없이 뒤더수기만 굵적였다.

《립체담요가 힘들지?》

《예... 아직 방도가...》

《새로운것을 만들어내는것이 어찌 쉽겠소! 힘들게 얻어낸것일수록 더 값비싼것이란말이요. 그런걸 얻어내는 사람이 주체시대의 과학자, 기술자지...》

그는 기대공이 어쩔사이 없이 열기대에서 끓어오른 날실을 짚짜게 이어놓고서는 하던 이야기를 계속하였다.

《남현동무. 경애하는 장군님께서는 과학자, 기술자들이 자기 부분에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은 그런 사람들이 될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습니다. 공장에서는 어려운 기술적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남현

동무를 찾곤하는데... 이번에도 꼭 성사시켜 우리 함께 언제나 당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살아가자요.》

당비서는 돌아갔다. 그러나 그의 말은 남현이의 가슴에 남아 심장을 쿵쿵 울려주었다. 힘이 생겼다.

(그렇다. 당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되어야 한다. 어제는 필요하였다해도 오늘에는 필요없는 사람으로 되어서는 안된다....)

그는 이를 악물고 다시 일손을 잡았다.

그날은 또다시 공장에서 침식할 준비를 하려고 어느때보다 일찍 집에 들어섰다.

마당에서 놀던 막내딸애가 아버지를 소리쳐 부르며 달려와 안겼다.

딸 셋을 연거퍼 낳은 안해가 아들을 보겠다고 별러가지고 또다시 낳은 딸 쌍둥이패들이였다. 남현은 그때에는 기가 막혀 입을 딱 벌렸됐으나 차츰 그 쌍둥이들이 무척 재롱스러워져 전에없이 사랑을 기울여왔다.

쌍둥이 형제 가운데서도 동생인 은희는 더하였다. 아마 집안의 막내가 되어서일가. 그만이 아버지가 책을 펼쳐들었을 때에도 무릎에 올라앉아 아양을 떨수 있는 유일한 《권리》를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그애의 응석도 받아줄 경황이 없었다.

《여보, 며칠분 쌀이랑 부식물이랑 좀 준비해주오. 저녁을 먹고 가지고 나가게...》

《또 현장침식으로군요.》

안해의 얼굴에 걱정이 함뿍 실린다.

며칠이라하고 나가서는 몇달씩을 못들어오는 남편의 뒤바라지를 얼마나 많이 해왔던가. 이제 또 관공이 튀어나오고 입술이 말라터지는 남편의 가궁한 모습에 가슴저미는 나날이 시작될것이다....

《여보, 나도 들었어요, 립체담요가 어렵다는걸... 잘 생각해보아요, 지금껏 당신에 대한 평판이 좋았는데 이제 그일에 깊이 빠져들어갔다가 그르치기라도 하면...》

《그만두지 못하겠소? 한다는 소리가...》

이럴 때 안해는 맞불질을 안했다. 남편성미를 잘 아는 그는 자리를 일어 부엌으로 내려갔다.

남편은 또다시 기술문헌을 뒤져보기 시작하였다. 이때 방안에 들어온 은희가 아버지에게로 다가오더니 그의 머리를 쓸어넘기며 재롱을 피웠다.

《아버지, 내 뭐 줄게. 이것봐. 고운 구슬이 달린 리봉...》

《응, 그래그래...》

남현은 건성으로 대답하며 팔애를 밀어놓았다.

어느때는 《오냐, 우리 은희 굵지.》 하고 안아주던 아버지여서 그쯤한 《반격》에 좌절될 은희의 《공격》이 아니였다.

《아버지, 내 옷 좀 봐 굵지, 요거 리봉, 큰 언

니가 만들어서 내 옷에 달아줬어.》

《응응 좋겠다.》

남현은 여전히 글썽에서 눈을 떼지 않았다.

《이것 봐, 꽃처럼 피어난 리본이야.》

그제야 머리를 돌리고 딸애의 옷을 보던 그가 갑자기 딸애를 그러안고 옷에 달린 리본을 들여다보다가 그 우에 달린 구슬을 잡아뜯었다. 그리고 주름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였다.

《난 몰라... 난 몰라...》

딸애가 울음을 터치려 했으나 그는 아랑곳하지 않고 뻘뻘이 솟아오른 주름진 부분을 보고 또 보았다.

그렇다. 이것이다. 담요에 새겨진 꽃이 립체감을 주자면 이렇게 솟아올라야 한다. 이것 보지. 밀도가 뻘뻘한 부분은 더 나갈데가 없으니 우로 솟아오르지 않는가. 그렇지. 무늬털의 털돋움밀도를 바탕털의 털돋움밀도보다 크게 한다면... 그러면 밀도가 큰 무늬부분에서는 어차피 벌러지려는 힘이 생길것 아닌가.

《은희야. 정말 끝구나. 네가 어머니보담 낫다. 날 도와주지...》

그는 서둘러 자리에서 일어섰다.

《여보, 저녁밥이랑... 쌀이랑은...》

안해가 급작스런 그의 행동에 어병병하여 말을 건넌였으나 대답할 겨를도 없었다. 그는 그길로 함숙으로 달려가 자는 동무들을 깨워가지고 현장으로 나갔다.

또다시 탐구와 사색의 낮과 밤이 흘러갔다.

하루가 스물네시간밖에 되지 않는것이 안타까웠다. 그러나 한가지씩 일이 진척될 때마다 가슴이 부풀어올랐다. 우선 바탕털을 형성하기 위한 원리도와 무늬털을 형성하는 원리도를 작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즉 바탕에 비하여 무늬부분의 털돋움밀도를 많게 하여 도드라진 무늬를 얻을수 있게 하였던것이다.

이제는 직기를 개조해야 하였다. 하루에도 수십번씩 기계를 뜯었다 맞추고 여러가지 털실들을 만들어보기도 하였다. 이 과정에 복옷길 잉아장과 아래 복길 잉아장의 높이차를 선정할수 있게 되었고 꽃을 형성하는 털실은 따로 털실들을 만들어 실꾸리에서 공급하게 하는 장치도 만들었다.

또한 제작한 다음에는 그를 짜개는 원형칼식절단장치를 만들어냄으로써 원가를 많이 들이지 않고도 품위높은 제품을 생산하는데 성공할수 있게 되었다.

이리하여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폭신하고 따뜻할뿐더러 아름답고 우아한 꽃문양을 가진 립체 무늬담요를 선물로 올림으로써 공장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감사를 받는 무상의 영광을 받아안

을수 있게 하였다....

탐구와 착안은 계속된다.

실천의 고행과 성공의 기쁨도 계속 이어진다.

이제 그는 다시 새로운 문제점을 찾아낼것이며 그 해결을 위하여 또다시 도전할것이다....

남현은 다섯건의 국가발명과 백수십가지의 창의고안을 생산에 도입하게 한 이름있는 창의고안 명수이며 발명가이다.

그에게는 지금 여러가지 자격증이 있다.

방직기사 2급, 전기설비기사 4급, 자동화설비수리공 7급, 방작기계수리공 7급... 이외에도 설계원급수는 3급, 화학기사급수는 4급 수준에 도달하였고 3개의 외국어를 통달하고있다.

전사들의 자그마한 성과에도 것처럼 기뻐하시는데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서는 그의 공로를 높이 평가해주시여 그를 숨은 공로자로 내세워주시였을뿐아니라 자나깨나 그가 그토록 바라던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의 당원으로 키워주시고 붉은 당원증을 그의 가슴에 안겨주시였다.

어찌 그뿐이라.

친애하는 그이께서는 전국 발명가대회에 불러주시였으며 자신의 존함으로 된 표창장까지 수여하여주시는 크나큰 은정을 베풀어주시였다.

정녕 친애하는 지도자동지의 한없이 넓고 자애로운 품속에서 그는 우리 당에 꼭 필요한 사람으로 자라나게 되었다.

×

수많은 사람들이 물밀듯이 찾아오는 3대혁명전시관 새 기술혁신관에는 함흥모방직공장의 평범한 기사인 김남현동무의 사진이 걸려있다. 담찬의지를 보여주는 다부진 어깨, 사람좋은 미소를 담고있는 눈길에서 영민하게 반짝이는 눈동자가 전시관을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듯싶다.

《저의 일은 아직 시작입니다. 탐구... 노력... 또 탐구...》

주체의 사회주의조국을 과학과 기술로 받들기 위해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충성과 효성을 다하는 그 한길에 나는 마지막 피 한방울까지를 다 바쳐나가겠습니다.》

친애하는 지도자동지께 무한히 충직한 바로 이러한 과학자, 기술자들이 경공업제일주의전선을 맡아안고 우리의 로동계급과 함께 힘찬 행군을 다그치고있기에 제국주의자들이 제아무리 우리를 경제적으로 봉쇄하려고 미쳐날뛰어도 우리 식 사회주의는 끄떡없이 승승장구하고있다.

생활의 시작점에서

한형수

이른아침 해뜰녘에 읍소재지를 떠난 공심리행 뺨스는 해가 중낮이 되었건만 아직 려행길을 절반도 측내지 못하고있었다.

아마 이 산골길을 몇번 다녀본 사람이라면 벌써 퍼그나 지루감을 느꼈을것이다.

그러나 생소한 초행길을 처음 가는 례영이에게는 고산지대의 특유하고 수려한 풍치가 눈길을 끌어서인지 지루감은 고사하고 흥심만 새록새록 더하여갔다.

처음에는 도에서라면 도저히 볼수 없는 동기와와를 인 집들이 설피게나마 눈에 뜨이더니 그마저 수림뒤에 자취를 감추고 이제는 기암과 괴석들을 쌓아올린듯한 벼랑들이 만물상 풍치처럼 안겨오기 시작했다.

지계작시미라도 건너놓을수 있으리만큼 좁은 계곡이었다.

아슬한 바위꼭대기우에 운치를 돌군 소나무 한그루가 기묘하게 버티고 서있는것이 장관이었다.

그 벼랑우로 다래덩굴이 바오래기처럼 뱅뱅 꼬이며 올리뻗었는데 다람쥐 한놈이 정신없이 다래를 따먹다가 들려오는 차소리에 눈이 울롱해서 바위쥬으로 내뺄는 모양이 재미있었다.

길옆으로는 손수건을 담그기 바쁘게 파아란 물감이 들것만 같은 벽계수가 청신한 기분을 돋구어주며 시원스럽게 흘러내리고있었다.

《쩍뻑-》산천어 한마리가 심심산골의 적막함에 반발하듯 물위로 솟구치며 자맥질을 하는데 갑자기 어디서 날아왔는지 등이 파란 물새가 그놈을 겨냥하고 쏜살같이 내리꽂히다가 헛물만 켜고 성난 모양으로 휘익- 날아갔다.

변덕스런 고산지대의 날씨는 쉬임없이 노죽을 부리고있었다.

초가을 피약별이 자글자글 내리쪼이는가싶더니 금시 후두둑후두둑... 굵다란 비방울이 차창을 갈겼다.

온 골안이 비속에 묻히는가싶었는데 신통히도 개울건너편 산비탈에만은 햇빛이 켹켹 내리비치고있었다.

꿀짜기를 벗어나니 수려하면서도 시원한 감을 주는 룡소가 나타났다.

물녘에까지 바투 들어선 활엽수림은 단풍이 든 고운 자래를 물우에 비껴담고 조는듯 마는듯 흐느적이고있었다.

아름다움이 극치를 이룬 완전한 한쪽의 수채화

였다.

룡소를 지나니 가없이 펼쳐진 울울한 바늘이나 무림이 나타났다.

거뭇거뭇한 분비, 가문비, 전나무들 사이사이에 다문다문 박힌 새하얀 봇나무들이 산뜻하면서도 이채로운 정서를 함뿍 안겨주었다.

《허, 산골경치에 흑해버렸군.》 옆에 앉아가는 선옥의 지청구가 례영의 귀전을 울리었다.

그제서야 례영은 차창에서 눈을 떼며 호-하고 나직이 숨을 내쉬었다.

(공심리도 저렇게 아름다운 고장일까?)

교원대학을 최우등으로 졸업한 이 아릿다운 처녀는 지금 궁벽한 심심산골 막바지인 공심리에 인민학교 교원으로 배치되어가는 길이었다.

공심리에 대해서는 그 지명밖에는 전혀 아는것이 없는 례영이었다.

배치담화를 할 때 당에서 보내주는곳이면 그 어디든 마다하지 않고 가겠다는 례영의 결심을 듣고난 도교육부장은 본질만 꿰뚫어볼듯한 예리한 눈초리로 한동안 그를 직시하더니 이윽고 문건에 눈을 주며 이렇게 말했다.

《음, 좋소, 아주 좋소, 동문 아주 재간있는 동무구만. 악기두 잘 타구, 무용두 잘하구... 마침 동무같은 재간둥이를 보내달라는 학교가 있소. 공심인민학교라구...》

《공심인민학교요?》 생전 처음 듣는 귀에 선 이름이었다.

《그렇소. 그곳 교장선생님이 편지로 신신당부해왔소. 예순이 다 된 오늘까지 한생을 그곳에서 교편을 잡고계시는분이신데... 가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오. 거기 가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다시 제길해두 마다하지 않겠소, 의무감에 못이겨 억지로 그곳에 남아있게 된다면 그 이상 피로운 일은 없을테니까...》

담화는 그것으로 끝났다. 교육부장은 친절하게 례영이를 문밖까지 배려주었다.

(그곳 교장선생님은 어떤분이실까... 엄격하구 무뚝뚝한... 아니면 까다로운...)

지금 례영의 마음을 산란하게 만드는것은 생면부지의 그곳 교장선생님에 대한 불안한 호기심과 그의 관심속에 시작될 자기의 첫 교원생활에 대한 우려감이였다.

례영은 끝없는 상념에 잠겨들고싶었으나 또다시 그의 사색을 깨뜨리며 선옥의 목소리가 들려

왔다.

《레영동무, 동문 어째서 말이 없소?》

선옥이는 세계무역시장에서 수요가 높은 송이버섯계약문제때문에 궁심리와 이웃한 사율리에 가기로 출장승인을 받고 지금 레영이와 동행하는 중이었다.

《궁심리도 이렇게 아름다울가요?》

레영이는 별로 하고싶은 말도 없던지라 얼결에 이렇게 물었다.

《허, 우리 나라 어디 가든 경치 나쁜데 있소? 그러나 경치만 보면서 살수야 없지...》 선옥의 말투에는 어째서인지 불만기가 숨배여있었다.

저동문 왜 저렇게 말하는걸가... 레영은 은근히 마음이 언짢아졌다.

누가 들을세라 선옥이는 목소리를 죽여가며 말하기 시작하였다.

《교원을 할바치군 왜 하필 그 궁심골안에 가겠다는거요? 저기가 어떤 심산인지 알기나 하우? 한낫에두 부영이가 울구 겨울이면 한난계의 수는 주가 눈금이 모자라 더 내려가지 못한다는 벽촌중의 벽촌이란 말이요.》

《저기가 그렇게 사람못살 고장인가요?》

그러나 선옥은 도리머리를 했다.

《아니... 손님으로 며칠동안 가있기는 정말 좋은 고장이요. 사람대접이 극진하니까...》

선옥이의 형상력이 풍부한 말들은 생동한 표상을 불러일으켰지만 왜선지 흥미를 잃고 지어 귀찮아지기까지 한 레영은 차창밖으로 눈길을 돌리었다.

선옥은 3년전에 교원대학을 졸업한 레영의 선배였다. 대학시절에 그들은 별로 교제가 없었지만 레영은 소문난 최우등생이며 웅변자이며 이목구비가 번듯한 호남아 선옥이를 잘 알고있었다.

하지만 언제보나 자부심이 강하고 지어 거만스러워보이기까지 하던 그 인기남아가 세월이 흐른 뒤 불쑥 자기의 눈앞에 그것도 교원이 아니라 X X 무역회사지도원의 신분으로 나타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지 못하였다.

더우기 레영이를 놀라게 하고 쑥스럽게 한것은 그와 몇번 만나지도 않았고 별로 주고받은 이야기도 없었는데 동창생들속에서 자기들 사이가 여사여사하다는 소문이 돌고있는것이였다.

다름아닌 선옥이에 의해서 그런 소문이 나돌게 되었다는것을 알았을 때 레영은 어쩐지 기분이 나빴다.

하지만 레영은 선옥이가 찾아올적마다 거울앞에서 옷차림에 신경을 쓰게 되는 자기를 발견하게 되었고 길가에서 선옥이가 다른 처녀와 말을 주고받는것을 보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나눌가고 호기심을 가지게 되는 자신을 느꼈다.

마음은 별로 끌리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영만 나보기 싫은것도 아니였다.

마치도 눈에 보이지 않는 무슨 끈이 레영의 마음을 선옥이한테로 지긋게 끌어당기는것 같은 생각조차 들었다.

여러가지로 박식하고 사림술도 능한 선옥이는 늘 레영이앞에서 선배연하면서 이것저것 가르쳐 주기를 좋아했다. 지금도 그러했다.

《시작을 잘못 때면 한평생 시작, 시작하다가 끝나고마는게 인생이란걸 알아야 하오. 그러니 이제라도 다시 생각해보오. 이왕 내짚은 걸음이라고 자포자기하지 말구... 결심만 달리 서면 그 다음의 일은 내가 맡겠소. 응? 레영동무!》

《전 그럴 생각이 없어요.》

선옥의 얼굴에는 옅은 실망의 그림자가 비끼기까지 했다.

《동문 그 고집때문에 반드시 후회하게 될거요. 이제 가서 보우. 어떤곳인가.》

레영은 그 말에 의문스런 눈길을 선옥의 쪽으로 돌리었다.

《그런데 동문 거길 어떻게 그토록 잘 알아요?》

《거 뭐 그럭저럭...》 선옥은 왜서인지 대답을 피하며 말머리를 돌리었다.

《생활이란 변화무쌍해야지 고여있는 물웅덩이처럼 되어서야 무슨 살 재미가 있겠소? 그 한적하고 궁벽한 촌구석에서 구경거리 하나 없이 어제도 그만 오늘도 그만... 단조롭게 반복되는 수업일과박엔 없는 생활속에 무슨 량만이 있겠대구... 꼼꼼히 생각해보우, 첫수업이 끝나면 두번째수업에 들어가야 하구... 월요일이 지나면 화요일, 그담엔 수요일이 오구... 그렇게 한 학년을 내보내면 또 새로운 장난군들이 차례지니, 똑같은 교과서를 가지구 판에 박은듯한 수업공정을 되풀이하는게 고작인데... 그렇게 살아서야 어느 세월에 자기 존재를 드러내보겠소?! 사람이 난바에야...》

《...》

무어라고 이름할수 없는 막연한 불안이 골짜기를 활으며 서서히 피여오르는 짙은 안개처럼 레영의 마음속 한구석에 지겹게 서리기 시작했다고.

그 까닭모를 불안때문에 실금이 가기 시작한 레영의 마음의 틈새에 선옥은 자기의 든장을 박아넣으려고 검질기게 달라붙었다.

《이 빠스안을 좀 돌려보우. 저 손님들중의 아무하구나 동무가 굳이 하겠다는 그 교원노릇을 감히 견뎌볼수 있겠나 한번 비교해보우.》

저 손님들중의 아무하구나... 그제야 레영은 새삼스러운 눈길로 차안을 둘러보았다. 이 산촌빠스의 손님들중에서 빛다르게 느껴지는 몇몇 행객

들이 눈에 띄었다. 선옥이가 어느 틈에 알아냈는지 유묘하게 드러나는 몇몇 손님들에 대하여 알려주었다.

저 앞자리에 앉아가는 풍채좋은 사람은 지질학 박사이고 그 옆사람은 서해갑문 건설장에서 공화국영웅이 되었다는 인민군대좌이다. 그리고 그뒤에는 스무살안팎에 벌써 세계레슬링선수권보유자로 되어 조국의 영예를 떨친 청년이 깊은 감회에 잠겨 차창밖을 내다보고있다. 어떻게 되어 저런 유명한 사람들이 한낱한시에 나와 한빠스를 타고 갈가... 저분들은 어디까지 가는걸가... 하며 레영은 몹시 알아보고싶은 충동까지 느꼈다.

그러나 선옥이는 레영이한테 알아볼 기회도, 건주어볼 여유도 주지 않고 든장질을 계속해냈다.

《이렇게 말한다고 날 나쁜 사람이라고는 생각지 마오. 솔직히 빼개놓고 말해서 동무가 그 촌구석에서 아까운 청춘시절을 속절없이 흘려보냈대야 동무한테 차례지는게 뭐가 있겠소?! 저 어른들처럼 사회적으로 특별한 존경을 받겠소 우대를 받겠소? 그러게 빛이 있는것 같으면서도 별로 빛을 내지 못하는게 교원의 직업이라구들 하지 않소?! 왜, 내 말이 그런것 같소? 글렀다면 어디 한번 반박해보우. 허허허...》 피근피근하면서도 천연덕스럽게 선옥은 자기 말을 이어갔다.

《동무한테 이런 말들을 꺼리낌없이 솔직히 해주는건 동무가 인연없는 남처럼 느껴지지 않기때문에 그러는거요. 한생을 마무리하는 먼 후날에 가서 뼈아픈 후회를 하지 않으려거든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되돌아서 시작점으로 도루 가는게 좋겠소.》

레영의 마음은 바람앞의 초불처럼 불안스럽게만 했다. 침침한 시름이 밀물처럼 가슴속으로 치밀어올랐다. 빠스는 《아롱- 아롱-》 숨가쁜 소리를 지르며 가파로운 령길을 가가스로 뿔아올라갔다.

어쩐지 속이 메스메스해나며 멀미가 느껴졌다.

×

령넘어 립산상점앞 정류소에서 점간 숨을 돌린 빠스는 열살쯤 나보이는 총각애와 처녀애를 태우고는 또다시 인적드문 산골길을 떠났다.

레영이를 저기압상대에 몰아넣은후 한동안 동무가 없어 무료해하던 선옥이가 애들을 보자마자 다시금 활기를 띄기 시작했다. 처음 만난 사람도 구면지기보다 더한 친화력을 느끼게 하는 그의 유별난 사립술은 아이들에게도 레외가 아니었다.

몇마디 안팎에 선옥이는 총각애와 처녀애가 오

누이이며 그애들이 먼 궁심리에서 왔다는것 그리고 처녀애가 든 빨간 꽃보자기속에는 상점에서 산 안경이 들어있다는것까지 알아냈다.

《참, 니들은 궁심인민학교엘 다니겠구나. 너희네 교장선생을 내 좀 아는데... 그만 이름을 깜박 잊었구나, 거 안경을 낀 령감이지?!》

늘 새물새물 웃는것 같은 인상을 주는 처녀애의 예쁘장한 두눈이 대뜸 울롱해졌다.

《어마나, 우리 교장선생님을 보구 령감이라구 하네.》 《허허허... 령감이 아니문!》

그쯤한 반발에 절대로 게면쩍어할 그가 아니었다. 비위 좋게 웃어넘기며 선옥은 레영이를 돌아보았다.

《그 교장령감 술하에 동무가 들어갈걸 생각하면 참... 고지식하대구 할지 고집불통이라구 해야 할지... 그러다나니 그 산골에 한생을 불박혀살았지, 보나마나 이젠 촌늬은이가 다 됐을거요. 허, 생각하면 정말 허무한 인생이지...》

한숨까지 섞어가며 분명 레영이의 공감을 불러 일으키려고 말한것 같았으나 레영은 그 말을 귀등으로 흘려보내는양싶었다.

《참, 저애들한테 동무를 소개해 줄가? 자기네 선생으로 간다구말이요.》 《그만두세요.》

어지간히 흐려진 레영의 기분상태는 아랑곳없이 그는 다시 오누이쪽으로 돌아왔더니 처녀애의 허락도 받지 않고 꽃보자기를 슬쩍 앗아내어 제 물건처럼 훌훌 풀어제겼다.

대물렌즈를 두개 맞붙여놓은것 같은 두툽한 돋보기안경이 나타났다.

《야, 이거 도수가 굉장히 높은거구나.》

선옥은 스스럼없이 그 돋보기를 꺼보더니 어리해하며 두리번거렸다.

《누가 쓸거냐? 아버지건 아닐테구... 할아버지?...》

그러나 처녀애의 오달지게 다물린 입은 좀처럼 열릴줄 몰랐다.

《히, 산골내기가 돼서 무척 수줍어 하는구나. 왜 내가 어렵게 생각돼서 그래?!》

소금물에 담가서 푹 절구어내야 할것 같은 이 싱겁둥이청년을 깔끔한 눈길로 할것 치며보던 처녀애의 입기가 약간 비죽했다.

《이건 담배불을 붙이는데나 쓰면 좋겠다.》 선옥은 주머니에서 꼬부랑상표가 붙은 외국산려과담배를 꺼내더니 거기에 불을 붙여불뿔인지 안경으로 해빛을 조절해가며 초점을 맞추기 시작했다.

여직껏 아무말없이 입술만 부르르있던 총각애가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굵은 음성으로 의젓하게 말했다.

《안경으로 담배불을 붙이면 돼요? 인달라요,

그러단 깨졌어요..》

《허- 이 친구...》 선옥의 얼굴이 수수떡처럼 지지벌개졌다.

그러거나 말거나 총각애는 선옥의 손에서 던지 시 돋보기를 앓아내어 처녀애한테 돌려주었다.

《단단히 갖구있어, 넌 뭘 아무한테나 내주면 서...》

《내가 줬니 뭐..》 처녀애가 토달거리며 안경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였다.

별안간, 흠채기에 빠졌는지 빠스가 덜커덩하며 요란스럽게 들추덕거렸다.

그 순간 처녀애의 손에서 안경이 제멋대로 튀어나와 차바닥에 철썩 떨어졌다.

《악!》 아연실색한 처녀애의 놀랜 비명에 차안의 손님들이 일시에 돌아다보았다.

총각애가 껌싸게 안경을 집어들었으나 이미 한쪽알은 박살이 나서 테만 남았고 다른쪽은 얼기설기 뻘어내린 강냉이뿌리들같은 실금들이 수없이 생겨나 아예 못쓰게 되고말았다.

한동안 혀를 잃은 사람처럼 아무말도 못하던 처녀애가 갑자기 얼굴을 폭 싸쥐며 흑흑 흐느껴 울기 시작했다.

총각애의 얼굴에도 당장에 먹장구름이 끼었다.

《허 거...》선옥은 어정쩡한 빈소리를 내며 어쩔 줄을 몰라했다.

《흑흑...》 처녀애의 흐느낌소리가 못견디게 신경을 자극했던지 건너편 앞자리에 앉아가던 레스링선수청년이 애들걸로 급히 다가왔다.

《이거 정말 안됐구나, 울지 말아 얘야! 그런데 너희들이 안경은 뭘하러 샀니?》

총각애가 울먹울먹하며 입안소리로 중얼거렸다.

《우리 교장선생님께 드릴려구요..》

《뭐, 교장선생님께?》 레스링선수청년의 청높은 목소리가 집광렌즈처럼 웃손님들의 눈길을 다시 한번 애들한테로 쏠리게 했다.

《교장선생님은 저녁늦게 수업이 끝난 우릴 데려다주느라구 어두운 령길을 넘으시다가 돌부리에 걸쳐어 그만 안경을 깨뜨렸어요. 그래서 우린...》

총각애의 말을 듣는 순간, 왜서인지 레영의 눈앞에는 아직 한번도 만나보은 일이 없으나 어쩐지 선량하고 인정많은 외할아버지처럼 친근하게 느껴지는, 병약하고 체소한 교장선생님이 애들의 손목을 잡고 어두운 밤중에 령길을 넘어가시는 모습이 우렷이 떠올랐다.

저도 모르게 가슴이 뭉클해났다.

처녀애가 흐느끼며 안타까이 말했다.

《래일은... 우리 교장선생님의 예순둑 생일날인데... 우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으음-》 레스링선수청년이 신음비슷한 소리를 냈다.

손님들모두가 무어라고 이름할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 새삼스러운 눈길로 오누이를 바라보았다.

지금껏 묵묵히 오누이를 지켜보기만 하던 지질학박사가 총각애한테서 깨진 안경을 받아들고 이윽도록 유심히 들여다보더니 혼자말처럼 중얼거렸다.

《나이를 많이 잡수시면 안경이 아들맞잡이가 된다는걸 알면서두... 내 그만...》

지질학박사는 어떤 사연을 지니였길래 저렇게 후회하는걸가...

그러는데 영웅대좌가 실눈을 지으며 생각에 잠긴 어조로 말을 했다.

《전쟁시기 미국놈 폭격에 학교가 불타버리구 우리가 반토굴교실에서 공부할 때... 그때 선생님은 폭풍에 다리가 날아난 안경에 실을 동여매쓰시구 우리를 배워주시였지... 난 그제 늘 잊혀지지 않아서 그랬건만...》

레스링선수청년이 젖은듯한 목소리로 말을 하였다.

《정말이지 선생님들은 제자들을 한시도 잊지않구계시는데 제자들은 자기를 배워준 스승을 쉽사리 잊어버리는것 같습니다.》

그의 말에 공감이라도 한듯 차안에는 한동안 숙연한 침묵이 깃들었다.

시간이 흘러 빠스는 이미 립산마을 상점에서도 시오리는 잘되게 왔었다.

안경을 오래동안 매만지작거리면서 무언가 깊은 생각에 잠겼던 지질학박사의 부드러운 저음이 문득 침묵을 깨뜨렸다.

《저... 운전사동무! 미안하지만 차를 좀 세워줄수 없겠소?》

《네? 아니 왜 그러십니까?》

《내 좀 들렸다 갈데가 있어서...》

《아니... 이런 무인지경에 어디 들릴데가 있단구...》

《허, 모르는 소리... 이런 무인지경이야말로 우리 지질쟁이들이 들릴데란말이요.》

《네?》 운전사가 얼떠름해하며 차를 세웠다.

《이거 실례했습니다. 그럼 다들 먼길에 편안히 가십시오.》 박사는 중절모를 약간 들었다놓으며 작듯이 인사하고는 차에서 내렸다.

그리고는 지질마치를 지팡이삼아 활기있게 걸으며 오던 길을 되돌아갔다.

차창밖으로 멀어져가는 박사의 뒤모습을 묵묵히 바라보던 영웅대좌가 서둘러 일어났다.

《가만, 운전사동무! 나두 좀 내립시다. 이거 운행도중에 자꾸 지체시켜서 안됐소.》

《아니?》

《난 여기서 지름길을 타면 목적지까지 차보다 더 빨리 가닿을수 있소. 자 그럼…》

장년의 영웅대좌는 20대의 병사처럼 민첩하게 뛰어내리더니 지질학박사가 간 그길로 강행군보쪽으로 줄달음쳐가는것이였다.

빠스는 또다시 길을 떠났다. 그러나 얼마 못가서 또 멈추어서지 않으면 안되였다.

레스링선수청년이 모두의 심정을 대변했다.

《운전사동무! 차를 좀 돌릴수 없겠습니까?》

《아니 차를 돌리다니?》

《박사선생님이나 대좌동지를 시오리길을 걸어서 갔다오게 하실수야 없지 않습니까? 우리 시간을 좀 지체하더라도 이 애들을 위해서 림산상점에 다시 갔다옵시다.》 절절하게 심중을 터놓는 청년의 두눈은 숯불처럼 이글이글했다.

불은 불에 기름을 끼얹듯 손님들 누구나가 떠들썩 호응해나섰다.

《그럭합시다! 운전사동무!》

《가짓거, 운행규정두 사람이 만든건데 뭘 우물쭈물할게 있소?! 제격 돌리자구!》

그 순간 레영이는 선육이를 돌아보았다. 그래도 남들보다 못지 않게 멋진 말로 열변을 토하며 선뜻 응해나서리라고 기대했던 선육이였다. 그러나 선육은 어찌선지 창백해진 얼굴로 먼산쪽에 초점없는 눈길만 보내고있을뿐이였다.

레영은 조바심이 나도록 안타까와 손톱여물만 썰었다.

운전사청년이 헉헉하게 웃으며 패히 승낙했다.

《허허허… 그럼 돌립시다. 손님들의 요구가 정 그러시다면…》

그리고는 빠스를 후진시켰다가 되돌려세웠다.

그때였다. 레영의 등골에 선뜻 찬물을 끼얹는 듯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선육이였다.

《가만, 가만- 난 여기서 내려야겠습니다. 그만 시간이 바빠서…》

어딘지 모르게 자신을 잃고 기가 빠진것 같은 선육이가 당황해하며 차크가 무수히 달린 외국제 려행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수치감을 느꼈는지 목덜미가 불깃해져서 허둥거리며 레영이를 돌아보았다.

그 순간 레영의 온몸에서는 차갑고도 날카로운 광채가 발산되는듯싶었다. 아련하고 수집음을 잘 타던 처녀에게서 범접하기 어려운 도고한 기품을 보게 된 선육의 온몸은 줄지에 굳어져버렸다.

《그, 그럼 다시 만나지요!》

선육은 혜식은 웃음을 지으며 황황히 빠스에서 내려왔다.

빠스가 얼마쯤 달렸을 때 운전사청년이 혼자말

처럼 중얼거렸다.

《히, 그래두 량심에 가책을 받았는가…》 하며 운전사청년은 레영이를 제열자리로 정했다.

《이자 그 동무와 아는 사이요?》 그것은 마치도 친한 사인가고 묻는 말같았다.

레영은 어색하고 창피스럽기까지 했다.

《아니, 그저 좀…》

《어떻게 알게 되였소?》

《우연히…》 레영은 말끝을 얼버무리었다.

《어려하겠소만… 사람을 걸만 보고 절대로 사귀지 마오.》

《네?》 레영은 가슴이 후두두 했다.

《나두 그 멧쟁이친구가 처음 우리 공심인민학교에 배치받아올 때 정말 훌륭한 청년으로 여겼겠소.》

《아니?》 레영은 놀랐다. 금시 처음 듣는 소리였다.

《그 멧쟁이친구가 처음 여기로 올 때 어쨌는지 아오? 빠스칸이 들썩하게 랑만적이요 시적이요 하면서 무슨 큰일이라도 치를것처럼 사기를 올리더니 한달두 못가서 교장선생님한테 사직서를 내놓구는 바람같이 사라졌지. 그 친구가 촌학교라구 잘보면서 배척한 우리 공심인민학교가 도대체 어떤 학교인지 아오? 공화국영웅만 해두 무려 일곱명이나 키워낸 학교요. 일곱명이나…》

《일곱명씩이나요?!》 레영은 너무도 놀라와 봉긋한 가슴우에 손까지 얹었다.

《그래서 얼마전에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장군님께서 감사까지 보내주셨다오. 나도 공심인민학교졸업생이요.》

운전사청년의 공지는 하늘을 찌를듯했다.

《그래요?!》

이루 형언할수 없는 세찬 감동을 받으며 레영이는 가슴 그들먹이 솟구쳐오르는 걱정을 누를길 없었다.

그렇다! 그들도 다 레영이가 부임해가는 그 공심인민학교 교장선생님의 제자들이였다.

지질학박사며 영웅대좌 그리고 레스링선수청년은 각이한 년대들에 자기들에게 배움의 첫눈을 띄워주었고 원사, 박사로, 영웅으로, 세계선수권보유자로서의 영광을 지닐수 있도록 그 초석을 굳건히 마련해준 옛 스승을 잊지 못해 그의 예술훈 생일날을 계기로 모처럼 휴가를 받고 찾아가는 길이였다.

×

림산마을상점에서 교장선생님께 드릴 돌보기며 선물들을 사는데는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

그 교장선생님의 제자도 아니고 더더구나 한번

도 만나뵈운적 없는 레영이였건만 인민학교시절의 옛 스승을 생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고운 꽃병을 사서 오누이의 가슴에 안겨주었다.

승객들은 또다시 즐거운 여행길에 올랐다.

지질학박사가 옆에 앉힌 처녀애의 머리를 쓰다듬어주며 레영에게 말했다.

《이제 만나보면 알겠지만 우리 교장선생님은 정말로 훌륭한분이시오. 세상엔 저 하나만을 위해서 사는 인간들이 있는것 같은데 그런 속물들이야 우리 선생님같은 고결한분들을 어떻게 리해할수 있겠소?! 사실말이지 우리들이나 이애들을 위해 바치신 선생님의 그 모든 수고와 노력을, 우리들처럼 땅밑을 조사하는 일이나 갑문건설에 이바지했더라면 선생님은 벌써 박사두 되고 영웅이 된지두 췌 오랫동안거요.》

총각애의 어깨를 껴안은 영웅대좌가 동감을 표실했다.

《그렇습니다. 정말 생각되는바가 많습니다. 선생님들이 하시는 일은 날바다속에서 솟아나는 갑

문언제처럼 한두해사이에 눈에 띄우는것두 아니고 저 레스링선수처럼 시상대에 올라 우승컵과 금메달을 받으며 환호와 꽃목걸이속에 묻히는 그런 일도 아니지요. 아름다운 꽃을 피우려고 땅속 깊이 보이지 않는곳에서 온갖 자양분을 애써 마련하는 뿌리에 비유해야 할지...》

《그렇소, 정말 우리 선생님들은 숨은 영웅들중의 숨은 영웅으로 떠받들려 살아야 할분들이요.》

박사가 결론삼아 큰소리로 말했다.

한생의 가치를 론하자면 한생을 다 살아봐야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러나 한생을 살고서도 론하기 어려운 가치를 순간에 깨닫는수도 있는것이다.

레영이는 자기가 생활의 시작점을 결코 그릇되게 떠났다고는 생각지 않았다. 이제 실책을 해서 넘어서는 일도 궤도를 달리 수정하는 일도 절대 없을것이라고 굳게 믿었다.

빠스는 점점 더 속력을 내기 시작하였다.

이 땅의 아름다운 성품은

김정철

내 마음 사뭇 즐거워지더라
인사성 밝은 사람과 마주서면
렬차에서 만난 젊은 병사
나이 많은 로인에게 자리를 권할 때면
다시 보게 되더라 군모의 붉은 별

낯설은 교장에서 만난 처녀
멀리까지 따라서며 길을 대여줄 때면
알고싶어지더라
늙집 딸인지
그가 사는 마을조차 아름다워보이더라

인간이면 누구나 지켜야 할 레절
그다지 품드는 일도 아닌
간단히 나누는 인사말에서조차
그 사람의 인격과
나라의 품격이 다 어려있거니

레절바른 바로 이들속에 있어라
남을 위해 제 피도 서슴없이 갈라주고
남을 위해 사는것을 보람으로 여기는
아름다운 소행의 그 주인공들도

의리를 지켜
지옥의 대문을 부시고 나온
신념의 화신 의지의 그 화신도

아 옷을 입었다고 누구나 사람이라
아들이 아버지를 몰라보고
후배가 혁명선배를 몰라보는
인정이 얼어붙은 그 동토대에서
하루아침에 무너진 《강국》을 보노라

레절을 모르는 충신이 없고
레절을 모르는 강국이 없노라
레절로 지켜지고
도덕으로 빛나는 인간세상
거기서부터 시작되더라
사회의 화목도 나라의 존망도

아, 위대한 장군님을 어버이로 모시고
온 나라가 행복한 대가정을 이루고 사는 내 나라
반만년 오랜 레의지국의
아름다운 그 성품은
날을 따라 활짝 꽃피나리라

허균과 《홍길동전》

박병식

허균의 자는 단보, 호는 교산이라고 한다.

그는 얼핏 보기에 환계의 사대부라기보다 호탕한 풍류객같이 보인다. 인물은 그다지 볼게 없으나 희멀끔한 얼굴이 명랑하고 옷이 항상 화려하여 그를 보면 누구나 두번 다시 보게 된다. 그런데 교산 허균에 대한 역사기록에는 흔히 《성품이 몹시 경박하고 행실에 절조가 없으며 선비들속에서 버림받아 하층배들속에서 침체》 하는 인물로 전해오고있다. 그래서 당대사회에서 허균이 하면 《괴물》, 《패륜아》, 《기인-별난 사람》 등으로 불리우며 조소의 대상으로 되었다고 한다. 하기는 량반세도가의 자손으로 당대사회의 고루한 모든 것을 탈피하여 마음 가는대로 자기류의 생활을 하며 그 어떤 꿈을 꾸었으니 그럴만도 한 일이다. 그는 리달의 제자로서 시에 뛰어나고 문장에서도 새로운 경지를 개척한 독보문장가였으니 고루한 벼슬아치들이 그를 피박한 인간으로 본것이 무근거한것은 아니다.

교산 허균은 학문에서도 유가, 불가, 도가의 학설에 정통하여 그 교리까지 달관하고있을뿐더러 중년기이후에는 서학까지 깊이 익힌 박식가로서 진보적학자였다.

허균의 집안은 당대에 손꼽히는 명문거족이다.

그의 아버지 허엽은 서경덕의 문생으로서 대사헌, 승지, 부제학 등을 지냈으며 한때 《동인》의 종주로서 정계를 주름잡아 쥐락펴락하던 거물이였다. 그의 형 악록 허성은 벼슬이 리조판서까지 오르고 한때 명나라, 일본을 왕래하며 명성을 떨치던 외교관이기도 하다. 그가 바로 황윤길, 김성일 등과 함께 서장관으로 일본에 갔다와서 도요도미 히데요시가 반드시 침입하리라고 우려하던 사람으로서 선조가 죽을 때에는 《유교칠신(왕의 유언을 받은 일곱명의 신하)》중의 한사람으로 어린 영창대군의 앞날을 부탁받은 사람이다.

둘째형 하곡 허봉은 교산 허균에게 직접적으로 많은 영향을 준 인물로서 그가 바로 《동인》의 제자로서 톨곡 리이에 대한 상소를 냈다가 계미(1583)년에 갑산으로 귀양을 간 《계미 삼찬》중의 한사람이다. 그는 성리학에도 밝아 국론을 토론할때에는 그를 당할 사람이 없었다고 하며 리익의 《성호세설》에서나 류성룡의 《란설헌집 발문》에 의하면 문학적재질도 일정하게 있는 사람이다. 그는 서른여덟이라는 창창한 나이에 귀양

살이 5년만에 풀려나와 세상을 한탄하며 방랑하다가 금강산으로 들어가 병으로 요절한 사람으로서 짧은 한생을 곡절속에 지낸 사람이다.

특히 허균이 성장기에 가정에서 영향을 많이 받은것은 문학사상 한시문으로, 너류시인으로 스물일곱의 꽃나이에 애석하게도 요절한 허란설헌이였다. 그는 누구보다도 동생 허균을 사랑한 사람이다. 그러나 그는 뛰어난 문학적소질을 가졌음에도 봉건적질곡속에서 《문벌이 좋은》 김성립의 안해가 되어 남편, 시어머니와의 불화, 거기에 두 아들을 잃고 상처받은 애수로 슬픈 나날을 보내다가 스물일곱에 련꽃처럼 지고말았던것이 다.

허균이 자라면서 란설헌에게서 많이 영향을 받은것은 주로 고루한 현실을 은연중 부정하는 그의 눈물겨운 애상에 혈육적동정으로부터 강하게 받은것이라 한다.

허균의 인생관과 사회관 형성에 큰 영향을 준것은 손극 리달이였다.

리달은 당시 란설헌과 허균남매의 필생의 스승으로서 박학다식하고 문장이 출중한 사람이였다.

아버지와 형들과 누이 그리고 스승을 존경하며 그들에게서 배워나가던 허균은 열두살때 아버지를 여의고 스물한살에는 자기를 가장 사랑하던 누이 란설헌을 잃었다. 그후 스물여섯살에는 문과에, 스물아홉살에는 문과중시에 장원급제하고 그후 예문관검열, 황해도도사, 형조정랑, 병조정랑, 사복시정, 수안군수를 거쳐 삼척부사를 지냈는데 그 어간에 이미 세번이나 파직을 당하였다.

그는 비상한 수재인 동시에 그자신의 자부심은 안하무인격으로 세상을 대하였으며 일찌기 아버지를 여윈 까닭에 엄격한 가정의 훈제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생활을 하였다. 그가 생각하는 모든것이 어딘지 모르게 교양없는 상사람의 사고방식같으면서도 인간세상의 깊은 철리가 담겨있고 허례와 허식, 공리공담, 고루와 사대, 침체에서 벗어나려는 활력넘치는 기상이 나태쳤다.

허균이 생존하던 시기는 조선봉건국가의 통치체제가 극도로 문란해지고 통치배들의 인민들에 대한 흑심한 억압과 착취로 말미암아 사회적모순이 고도로 격화되던 시기이다. 특히 그가 거사를 준비하던 광해조시기는 조선봉건왕조 500년사를 놓고볼 때에도 가장 문란하고 폐단이 많던 시기

이다.

16세기력대왕들가운데서도 연산군은 가장 횡포한 폭군이였을뿐아니라 사치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서 극악무도하였다. 그는 재위 10여년에 두번의 사화와 많은 사건들을 일으켜 수많은 지방출신의 관료들과 인민들을 악독한 방법으로 죽였고 인민들을 혹독하게 억압하고 착취하여 방탕한 생활로써 나라를 극도로 어지럽혔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시기의 모든 국왕들이 다 포악한 억압자, 가혹한 착취자였고 광해조시기에 이르러서는 그것이 더하였으며 봉건통치체제가 극도로 문란해졌던것이다. 이로 인하여 왕을 위수로 하는 량반계층과 량인과 노비를 타방으로 하는 계급적 대립과 모순은 극도로 격화되어갔다.

리씨왕조는 집권후 저들의 계급적지배를 계속 유지하기 위하여 각 신분층의 구성에서 일어난 이러저러한 변화에 상응하게 계급신분관계를 재편성하였었다. 그것이 15세기 이후 16세기~17세기초에 거쳐 량반지배층내에서의 땅과 노비를 차지하기 위한 과렴치한 싸움과 그들의 억압과 착취로 하여 피지배계층 인민들은 파산몰락되어 도탄속에서 헤어나지 못하였다.

이시기 피지배계층에는 량인과 노비의 두개 신분층이 기본을 이루고 이 두 신분층사이에 또한 잡다한 신분계층들이 있었다. 또한 우의 두개 신분층에도 다시 세분된 수많은 신분층이 있었다.

량반지배층에는 토지와 노비를 가지고 벼슬살이를 하는 층, 땅은 없이 벼슬만 하거나 땅만 있고 벼슬을 가지지 못한 층, 노비만 가지고있는 몰락한 량반층 등 크게 세부류가 있었다. 이밖에 지배계급의 신분에는 기술관벼슬(역관(통역), 의관(의사), 전문관, 지관(풍수쟁이), 산관(계산원), 툼관(법을 말아보는 관리), 화원(그림그리는 사람), 도류(도교에 대한 일을 보는 관리), 악공등)을 가진 신분층이 있었다. 그들은 서울 종로거리에 살면서 대대로 기술관벼슬을 하였다. 이들은 넓은 의미에서 지배계급에 속했으나 량반은 아니었다. (중인이라고 불렀음)

이밖에 하급관리인 아전들도 봉건지배계급에 속하였다. 이들은 크게 경아전(서울중앙관청의 아전)과 외아전(지방관청의 아전)으로 구분되고 이 두개 신분층에는 다시 세분된 여러 신분층이 있었다.

이렇듯 복잡한 신분층가운데 서얼이라는 신분층이 있어 량반가계내에서 무서운 인간고를 당하는 계층이 있었다. 서얼에는 두 부류가 있었다. 그 하나는 량반의 첩의 몸에서 낳은 서자이고 다른 하나는 량반의 비첩(신분이 천한 첩)의 몸에서

낳은 서자이다. 전자는 문과시험에 응할수 있었고 고작해야 중인들이 하는 기술관벼슬이나 할수 있었으며 후자는 그것이나마 출세의 길이 막혀있었고 다만 량인으로 될수 있는 길이 띄어있었을뿐이었다. 이것은 각종 공물과 세 그리고 역을 지우기 위한것으로서 기본 착취대상을 확대하기 위한것이였다. 이들 서얼들은 본처아들인 량반들로부터 심한 차별대우를 받았고 량반가문을 더럽힌 존재로 인정받아 량반지배층내에서 손가락질을 받는 대상으로 되였다.

조선봉건왕조시기에 들어와서 서얼들에 대한 박대가 고려조에 비하여 일층 강화된것은 리방원(3대태종왕)이 집권육에서 이복동생 리방석을 왕세자로 삼으려는 리성계와의 갈등에서 시작된것이다. 리방원은 방석을 살해한후 서얼출신 왕자뿐아니라 일반 서얼출신들이 벼슬길에 나서는것까지 막았고 인간대우를 바로 받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 인하여 서얼출신들은 명색이 량반자식일뿐 그가 정신적으로 당하는 고충이란 실로 가련한것이였다.

봉건사회란 일부다처가 허용되는 량반위주의 세사인만큼 서얼이란 대체로 량반들의 방탕한 축첩생활속에서 생겨난 불우한 인간들이였다. 그들은 출신이 량반의 자식인만큼 엄한 봉건적도덕규범에 얽매여 반항도 못하고 주위의 억압천대에 순종하면서 인생을 자신의 비운을 한탄하다 한생을 마치는것이 서얼들의 운명이였다.

허균은 가장 어지럽고 문란한 시대적배경앞에 보이지 않는 두각을 나타내며 무서운 우뢰를 가슴에 품고있었다.

허균의 이러한 남아다운 웅건한 기상과 호걸품은 누이의 영향도 있지만 기본은 스승 리달의 몸에서 풍겨나와 그의 몸에 배여 기질화된것이다. 스승의 가슴속에서 서자의 울분과 만민의 기회균등을 절규하는 그의 숭고한 인도주의정신을 그대로가 아니라 스승에 대한 뜨거운 존경과 동정으로부터 그의 숨은 아픔을 균은 그 무엇에도 구애됨이 없이 자유분방한 성격그대로 활화산인양 터뜨려 고루한 틀과 규범과 제약에 반항하여나섰고 적서를 가리고 귀천을 가리는 당대 신분제도의 모순과 사회악에 울분을 품고 그를 전복시킬 큰 뜻을 지니게까지 되였다.

그러면 허균에게 그토록 큰 영향을 준 그의 스승 리달은 어떤 사람인가?

리달의 자는 의지, 호는 손곡이다. 충청도 원주 사람으로 어려서부터 책을 즐겨 읽지 않은 책이 없다고 한다. 고죽 최경창, 옥봉 백광훈과 함께 《3결시인》으로 일러온 시인이다. 그가 한번 붓을

들면 청산류수로 시가 쏟아져 수백편의 시가 펼쳐진다고 한다. 그의 시는 청신하고 웅건하면서도 우아하여 3절들중에서도 더욱 뛰어나 일세의 대결로 세상을 풍미시킨 시의 거장이다. 그럼에도 그의 어머니가 천민이라는 이유로, 그자신이 서자라는 이유로 뛰어난 재질이 초야에 묻혀 썩고있었다. 서자들에게는 뛰어난 재능과 지식이 가정의 자랑으로, 기쁨으로 된것이 아니라 온갖 불행과 비극적운명의 화근으로 되었으며 그만큼 서자들의 가슴에는 원한이 맺히고 울분이 차있었던것이다. 그렇다고 하여 리달은 울적한 생활속에서 시들기만하는 위인이 아니었다. 그는 색다른 마음이 차츰 싹터 세상을 저주하며 벼슬아치들의 오만한 지조가 아니꼬와 서울을 떠나 농어촌으로 방랑하였다.

방랑길에서 험벗고 굶주리는 농민들을 보면 자신에게 그들을 구원할 힘이 없음을 탄식하였고 어촌에 들러서는 어민들을 도와 고기도 잡았다. 그는 어데를 가나 백성들을 동정하였고 그들의 존경을 받았건만 벼슬아치들과는 담을 쌓았다. 산수를 좋아하는 그는 대자연속에 몸을 묻고 자연을 즐기기도 하고 날아가는 기러기떼와 제비를 보고는 그와 함께 세상을 날으지 못하는것을 한탄도 하였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몸일망정 뜻은 크고 마음은 활량이라 우주를 한가슴에 안고 굴리고싶기도 했다. 그는 술을 즐겼으며 한번 길을 떠나면 지향없는 발길이었건만 팔도강산이 좁았고 걸식을 하다 못먹으면 굶는것으로 서자로서의 사회에 대한 울분과 불만을 되씹기도 하였다.

기우가 크고 기결한 시인인 그는 술을 입에 대면 한이 없었다. 취하고 또 취하여 취중세계에서 꿈을 꾸고 이 세상을 저주하였으니 가슴인들 얼마나 아팠으랴!

스승을 존경하는 허균은 리달이 품고있는 아픔을 자기 아픔으로 느끼고 뜨겁게 동정하였다. 그가 본의 아닌 술도깨비가 되어 들어오거나 온데 간데 없이 방탕하다 들어오는것을 볼 때마다 청년 허균의 가슴은 타서 재만 남는듯싶었다. 그 기발한 문장과 우아한 시의 주인공인 스승이 인간대접을 받지 못하고 가슴을 치는것을 볼 때마다 허균은 세상을 원망하였다.

속에 큰 뜻을 품은 허균은 다시 내직에 들어가 《총림》한 벼슬아치로 차츰 명성을 떨치기 시작하였다.

한때 좌참관을 할 때(광해가 아직 동궁에 있을 때)는 시강원(왕세자를 임금앞에 놓고 경서를 강의하는곳) 설서(시강원 정 7품 벼슬의 하나)도 하고 광해가 즉위한 다음해에는 형조판서를 했다.

이해에 《진주부사》로 명나라에 가서 천주교 기도문을 가지고오면서 그는 서학에 대한 새로운 안목도 가지게 되었다.

의협남아이며 정의감에 불타는 허균은 당시 피착취계급의 대표계층인 농민들에게도 깊은 동정을 보냈다. 그가 불우한 처지에서 한때 농촌에서 살때에는 억압과 착취속에서 모태기는 가련한 농민들의 생활을 목격하고 충심으로부터 그들을 동정하여 농민들의 수확고를 높여주기 위한 시도로부터 농기구의 개량 및 선진농기구도입, 종자의 선택 및 보관관리법, 알곡작물재배법, 각종 남새와 공예작물재배법 등 선진영농기술을 기본으로 하여 자신이 보고 체험한 농업기술적문제들을 농민들속에 보급시키면서 자신이 실험도 하였다.

그것이 부분별로 옮겨진것이 곧 허균의 유명한 《한정록》이다. 이 책은 비록 순수한 농업관계책은 아니지만 16세기 우리 나라 농업기술문제를 취급한 대표적저서이다.

이밖에도 허균은 해박한 지식으로 자기의 진보적사상과 견해를 담은 많은 책들을 썼다. 그는 우리 나라의 력대 시작품들을 선발하여 《국조시산》을 편찬하였으며 《공사》 100수를 비롯하여 《보는대로 적는다》, 《궁중의 첫여름》 등 많은 시작품들도 창작하였다. 뿐만아니라 문학과 관련된 짚막짚막한 단편들을 엮어 《성수시화》도 편찬하였는데 이것들은 창작에서 모방주의를 반대하고 뜻을 잘 표현할데 대한 견해를 비롯한 그의 진보적미학견해를 반영하고있다.

이외에도 그는 나라를 사랑하고 부강케 하려는 애국적인 사상으로부터 끊임없이 집필활동을 하여 《도문대작》에서는 우리 나라의 고유한 물산과 음식에 대하여 서술하여 애국적이며 진보적문인으로서의 좌표를 력사에 크게 찍어놓았다.

누이 란설현이 가난한 집 처녀를 동정한 시 《빈녀금》이 군에 이르러서는 피기름을 팔리며 무권리속에서 험벗고 굶주리는 농민들의 실생활을 돕는 《한정록》으로 일보전진하였으니 그의 뜻이 어찌 가륙타 하지 않겠는가.

이러한 허균에게는 벼슬이 소원이 아니었으나 지금까지 세상모르게 거사를 위해 련계를 취해오던 서얼출신 8명으로 이루어진 한무리(서양갑, 리경준을 비롯한 서족들 그중 심우영은 허균의 처삼촌으로서 일찍부터 허균과 뜻을 같이하여온 사람이였다)의 모반기도가 드러나 의금부의 추궁을 당하고 하나같이 처참되자 대거사를 설계하는 엄숙한 마당에서 허균은 우선 자신의 몸을 안전한 위치에 놓는것이 필요하였다. 그래서 그는 인차 리이첨에게 등을 대고 그의 세력권내에서 처

세를 하였다.

지금까지 동, 서 량파로 갈라져 당파싸움을 하던 끝에 동인이 집권해왔으나 그후 동인은 류성룡을 종주로 하는 남인(류성룡이 령남사람이기 때문에 남언이라 칭함)과 리산해를 종주로 하는 북인(리산해의 집이 서울에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북인이라 칭함)으로 갈라졌다.

그러니 남인은 극히 적었고 세력도 크지 못했다. 선조말년에 북인이 나라의 실권을 잡은지 10년만에 광해군이 왕위에 오르자 미구에 북인이 또 대북, 소북으로 갈라졌는데 폐모론을 주장하는자는 대북이 되고 이를 반대하는자는 소북이 되었던것이다.

대북에는 리이첨을 수위로 하여 정인홍, 허균, 박흥구, 김개, 한찬남, 리성, 백대형 등이 망라되었다.

인목대비 폐모론이 일어나자 조정이 발각 뒤집혀 대북, 소북 구별없이 폐모론 찬성파와 반대파 두파로 나뉘어져 싸우다 결국은 찬성파가 득세하여 조정에 남게 되었다. 호랑이 사라지자 토끼가 주인노릇을 한다고 《명신》들이 류배되거나 사형된후 리이첨을 중심으로 하는 주류파와 외척의 류희분파가 대립되었던것이다.

그러나 권력은 주류파의 리이첨이 완전히 장악하고있었다. 그래서 국왕인 광해까지도 권력의 제일인자로 등장한 리이첨의 어깨에 매달려 그의 눈치를 보며 행동하였다고 하니 리이첨의 권세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가히 알만하다 하겠다.

허균은 리이첨의 권력을 등지고 그 그늘속에서 동료들과 극비밀리에 거사의 준비를 끊임없이 갖추어나갔다. 실지에 있어서 그의 벼슬자리는 권력을 자기 목적에 부합되게 《람용》하는 터전인 동시에 일신의 안전을 도모하는 안식처였다.

그는 조정내부에서도 령의정 정인홍, 리조판서 조정, 좌의정, 박흥구, 도승지 한찬남, 사간 신헌업, 좌참찬 윤선, 포도대장 현웅민 등과 상통하는 관계속에서 리이첨의 비호를 받았던것이다.

리이첨은 허균을 자기파의 참모역으로, 그를 수하의 중진으로 믿고 모든 처사를 하였다.

이렇게 우로는 리이첨의 권력을 리용하고 아래로는 동료들을 비롯한 서열출신들에 의거하여 거사준비를 하며 이때에 와서는 내직에 있는 벼슬아치들과 성균관의 젊은 유생들, 권문가의 자제들까지 망라한 90여명과 유생 40여명의 그췌한 성원을 가지고있었으며 그밖에도 목숨바쳐 싸울 결의를 다진 서열들과 전민들이 헤아릴수 없이 많았다. 이렇게 대내, 대외적으로 물썰틈 없는 준

비를 갖추고 이제는 거사할수 있는 환경을 조성시키는 일만이 과제에 올라있었다.

대거사의 기회의 성숙을 노려오던 허균은 인목대비 폐모론을 둘러싸고 리이첨파와 류희분파가 다투는 어지러운 파쟁을 리용하여 단연 거사를 하자고 결심하였다.

선왕 선조는 적자가 없어 후궁의 몸에서 낳은 광해군을 왕세자로 책봉하였었다. 그런데 선조가 말년에 로쇠한 몸으로 당시 리조좌랑 김제남의 나이 어린 딸을 정실왕비(인목왕비)라는 명목으로 맞이하여 아들 《의》를 낳았다. 이가 곧 영창대군이다. 정실 왕비의 몸에서 낳은 아들이라 하여 선조는 그를 몹시 사랑하여 왕위를 그에게 넘겨주려고 하였다.

류영경이 정승을 하는 칠년간은 정권이 전적으로 소북파의 수중에 있었다.

류영경이 선조의 뜻을 받들어 영창대군을 왕위에 올려세우려고 하자 광해를 동정하는 대북파는 류영경을 탄핵하였다. 그러자 선조왕의 노여움을 사게 되어 대북파의 정인홍은 형변으로, 리이첨은 갑산으로 귀양가게 되었다.

그러나 며칠 안가서 선조왕이 세상을 떠나자 정국은 일변하여 정인홍, 리이첨 등은 귀양길에서 되돌아와 광해군을 받들어 왕위에 즉위시키고 즉시로 령의정 류영경을 없애는것으로부터 보복전의 첫걸음을 내디디기 시작하여 김제남과 영창대군을 허위의 역모를 날조하여 없애버렸고 인목대비는 서궁(경운궁)에 가두었던것이다.

이렇게 되어 광해왕은 왕위에 오르기는 했으나 인목대비(김제남의 딸, 곧 영창대군의 어머니)가 남아있는것으로 인하여 항상 불안하였던것이다.

그후 리이첨을 위수로 하는 대북파는 광해왕의 뜻을 헤아려 인목대비의 신분을 삭탈하자는 폐모론을 들고나왔다. 이것이 곧 령사에서 이르는 《인목대비 폐모론》인것이다. 그러나 중신들이 반대하여 뜻대로 되지 않게 되자 대북파의 리이첨은 광해왕에게 그들을 무고하여 적지 않은 사람들을 귀양가게 하였다.

선조말년부터 이때에 이르는 어간에 림해군살해사건, 서양갑일당의 서자사건, 부원군 김제남사건, 영창대군사건 등 큰 정변의 폭풍이 한번 지나갈 때마다 리항복, 리덕형 등 《충신》들이 추풍락엽처럼 사라졌다.

이런 과정을 더듬으면서도 폐모론은 매듭을 짓지 못하고있었다.

(다음호에 계속)

시조

조 국

-무역선 《송산》 호와 함께-

전병선

조 국

저기 아득히
운무속에 가리운 땅은
어느곳인가

알수 없는곳
알수 없는 기슭을 바라보면서도
이 가슴 몽클 후터워오누나
대양만리 헤쳐온 이몸은
한점 물을 봐도 조국이 그리워

저곳이
저곳이 만약
조국이라면
내 달리는 배우에서
물속에 뛰어들었으리

그리고
내 사는 항구도시에
날아드는 갈매기처럼
정다운 기슭을 향해
두팔 저으리

가다가다 힘이 진하고
창파에 부대껴
영영 물속에 묻힌다 해도
아, 조국!
조국을 부르며
내 헤엄쳐 대양을 건느리

그러나 조국이여
내 아니 할 말 한것만 같구나
태줄묻은 땅은 수만리에 있어도
공화국기발이 휘날리는 갑판
여기는 나의 초소
여기는 나의 조국

아프리카의 희망봉을 바라봐도
말라카의 해협을 지나도
이몸은 조국땅을 밟고
거치른 대양을 가고있구나
장군님의 사랑속에
주체의 항로를 가고있구나

열두살

열두살 어린것이
집을 집니다
열대의 폭양아래
부두에서 집을 집니다

잔뼈도 굳지 않은것이
마대자루에 눌리워
그 짧고 가느다란
다리를 휘청입니다

물어선 무엇합니까
어머니는 어디에 갔는가
한창 배울 나이에
글공부는 왜 버렸느냐고

묻고싶어도 물을수 없습니다
그 여우고 마른 불로

눈물이 쏟아져내릴가봐
차마 물을수 없습니다

어쩌면 이리도 모집니까
이리도 인정없는 세상입니까
이 땅도 분명 사람 사는 땅인데
열두살이 돈에 팔려 노예입니다

억이 막혀 말이 안나옵니다
이것이 우리 가는곳 어디서나
내가 본 남의 나라입니다
내가 본 열두살 모습입니다

아, 내 조국을 알게 하는
오늘의 인간세상
내 아들은 열두살에
붉은넥타이를 휘날립니다

선미에 앉아

배는 달리고
물결은 쉬임없이
갈라지누나
흰갈기 파도도 갈라지누나

이몸은
어언 대양건너
남의 나라 지경을 넘어선 몸
안개속에 조국은 보이지 않누나

물결이어
너 갈라질테면 갈라지렴
너 나와 헤어지겠으면
헤어지렴

멀어질수록
떨어질수록
마음속에 더 가까운것
조국이거니

배고물에
물결은 갈라져도
조국과 이몸은 못떨어져
헤어져 못사는 하나

선미에 앉아
보는것 대양의 물결뿐이여도
가슴에 안고가는 조국이 있어
나 홀로 가는 만리길이 아니구나!

누구도 모르나이다

어머니조국이여
내 술많고 검던 머리
어느덧 희어졌나이다
백설이 수북이 덮였나이다

마치도 해풍에 색이 바랜듯
바다물 휘뿌려 소금꽃 피운듯
살결은 타고
청춘의 나이 어느덧 지났나이다

나기는 물에서 났어도
한생을 물우에서 사는 몸이기에
어찌다 집에 들리면
손님을 대하듯 맞아주는 환영의 부두여

누구도 모르나이다
조국의 다심한 이 사랑
내 목메여 눈시울 적시는
이 순간의 심정을 무슨 말로 다 하리까

아, 조국의 기슭을 떠나
다시 돌아온 길은
대양과 대양을 건너
대륙과 대륙을 지나온 세월

아이들은 얼마나 컸겠나이까
거리엔 새집들이 우뚝우뚝 솟아
나를 새 손님으로 맞는듯
그러나 정은 낯설지 않나이다

그 어디에 갔다
다시 와도 낯설지 않는 정이
조국이나이다
조국의 깊은 정은 누구도 모르나이다

아, 십자성 바라보는
바다길을 갈 때도
새해 설맞이인사를 보내주시던
장군님의 손길이 조국이나이다

《로동의 새벽》과 열리는 새 시대의 지평

박종식

지금 격변하는 세계사흐름의 소용돌이속에서 역사는 다시한번 새 시대, 새 세계를 창조하는 크나큰 산고를 안고 사름치고있다.

몰려나는 낡은 세계와 등장하는 새 세계의 싸움속에서 태어나는 시대, 새 세계는 전진도상에 부닥치는 일시적시련을 이겨내야 한다. 오늘 새 세계를 창조하는 사회주의위업이 비록 일시적 시련을 겪고있지만 사회주의는 의연히 세계 진보적인류의 지향으로 되고있다는것을 세계사는 보여주고있다.

이 강도에서 철혹같이 어두운 식민지통치시기인 지난 20 년대에 망국의 지옥과 민족의 고통에 저항하던 한 진보적시인은 《새로운 세계, 하나를 낳아야 할줄 깨칠 그때라야 시인아 너의 존재가 우주에서 없지 못할 너로 알려질것이다.》라고 노래하였다.

시인에게 있어서 새로운 세계, 하나를 낳는다는것, 그것은 시인이 역사발전의 합법칙성을 인식할수 있고 또 시대발전을 추동할수 있는 역사의 참된 주인이 대제 누구인가를 인식할수 있는 그런 존재, 그런 단계로 자라났다는것을 의미한다. 20 년대 이 시인의 시는 이 강도에 새 세계, 사회주의 새 시대가 동터오르던 새벽에 그 자신의 시대감각과 지향 그리고 현실체험을 통하여 당시의 시대상황과 세 인간형의 탄생을 사실주의적시의 세계로 승화시킨 오늘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노래이다.

지금은 그때로부터 반세기가 지난 90 년대의 후반기, 조선반도의 북반부에서는 사회주의의 완전승리, 공산주의 리상을 지상에 실현하기 위한 투쟁이 조선로동당의 현명한 령도밑에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또한 남반부에서는 로동계급의 사회개혁을 위한 투쟁이 근 반세기를 지속되어온 낡은 통치체제를 밀뿌리로부터 뒤흔들고있다. 그리고 지금 일부 나라들에서는 사회주의가 좌절되고 붕괴되었다.

이 민족사와 세계사의 소용돌이 한가운데 서있는 우리는 남조선 로동현실속에서 자라나고 로동계급을 비롯한 인민대중의 절실한 념원과 지향을 대변하여 출현한 젊은 로동

자 시인 박노해 시집 《로동의 새벽》에서 한편으로 몰락하고, 한편으로 신생하는 력사발전의 진면모를 보고 그 미학적의의를 음미한다.

그러면 대체 무엇이 오늘의 력사에서 몰락하고 붕괴되고있는가? 력사의 꺾대기인가 력사의 알맹이인가.

그렇다! 자본주의, 낡은 력사의 꺾대기는 달락하고 붕괴되고있다. 새싹이 돌아나는 언저리에는 낡고 병든 꺾대기가 락엽되어 떨어지는 법이다.

60 년대중엽에 남조선의 현실 참여파시인의 한사람은 력사발전에서 《알맹이》와 《꺾대기》는 무엇인가를 확인했다. 다시말하여 그는 추동하는 력사발전의 《알맹이》의 항구성과 질곡으로 화석화된 《꺾대기》의 몰락과정을 력사발전의 필연적결과로 드림없이 인식하였던것이다. 그리하여 그는 서사시 《금강》에서/꺾대기는 가라/한나에서 백두까지/향그러운 흠가슴만 남고/그 모든 쇠붙이는 가라/하고 노래할수 있었다.

이 시인은 농민적세계관의 한계안에서 력사의 주체를 근로하는 인민대중으로 파악하는 선진적인 시적안목을 가지고있었다.

그러나 농민적세계관의 제약성으로 하여 그는 당해시대의 기본모순을 해결할수 있는 력량이 다름아닌 로동계급을 중주로 하는 인민대중이관점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즉 그는 현실개혁에 그 어느 계급보다 절실한 리해관계를 가진 계급이 다름아닌 로동계급이라는것을 리해하지 못하였고 또 리해할수도 없었다. 이것은 그가 세계관적제한성과 함께 시대적제한성을 동시에 가지고있었다는것을 말해준다.

시인이 살고 체험한 1960 년대에는 남조선에서 로동계급의 성장도, 로동운동도 거의 질식상태에 있었으며 따라서 현실 그 자체가 시인의 세계관의 형성과 발전에 보다 진보적으로 작용할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마련하고있지 못하였다. 이로부터 그의 세계관은 시대의 요구와 일정한 거리로 유리되고있었다.

시인의 세계관과 현실발전과의 불일치는 그의 서사시 《금강》에서/

우리에게도/생활의 시대는 있었다/(《6 장》에서)라고 노래하면서 오늘의 인민대중을 마치 원시공동체사회의 원시인같이 묘사하는데서 집중적으로 나타났다.

현실에 대한 관점, 세계관과 현실 표현방법사이에는 통일이 아니라 이처럼 불일치가 있었다. 결국 그의 사실주의적방법은 현실을 소극적량만으로 분석하는 약점을 띠지 않을수 없었다. 시대와 현실에 대한 이같은 부르조아적관점은 현실의 본질을 형상화하는 사실주의적방법에 그만큼 낡은 흔적을 남기었다.

로동계급의 세계관은 현실개조의 방법에 있어서도 로동계급적방법을 요구한다. 세계관과 방법의 불일치는 현실개조에 있어서 과멸을 초래한다.

현시기는 인민대중이 지배와 예측의 철쇄를 끊고 자기 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고 세계를 창조적으로 개조하는 자주성의 시대이다. 세계의 피압박인민은 이미 주체시대의 흐름과 함께 눈을 떴으며 혁명적으로 각성되어가고있다. 사회주의보루를 믿음직하게 지켜선 우리 인민은 주체사상의 기치밑에 사회주의위업을 견결히 옹호고수하면서 승승장구하고있으며 또한 붕괴된 사회주의의 《꺾대기》밑에서도 사회주의의 《알맹이》가 재생하고있다.

현시대의 가장 탁월한 사상리론의 영재이시며 우리 민족의 향도성이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격변하는 현시대의 추세를 과학적으로 통찰하신 기초우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경험이 보여주는바와 같이 사회주의위업을 옹호고수하고 빛내여나가자면 사회주의사상을 완성하고 그것으로 인민대중을 튼튼히 무장시켜 사회주의를 신념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금 남조선에서는 미제와 《문민》파쇼통치의 극악한 폭압속에서도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의 승리에 고무된 인민대중이 사회개조운동을 힘차게 벌리고있으며 그것은 막을수 없는 기세로 확대되고있다.

박노해 시집 《로동의 새벽》과 그의 창작과정은 남조선사회의

이같은 현실을 뼈에 사무치도록 진실하게 보여준다.

박노해는 자기의 많은 시작품들에서 낡은 세계를 허물고 새 세계를 창조하는 투쟁이 얼마나 간고하며 크나큰 피의 대가를 요구하는가 하는것을 일상적인 노동생활과 노동운동과정의 사실주의적화목을 통하여 감명깊게 보여주고있다. 다시말하여 그의 전반적시세계에서는 근로인민이 참으로 인간다운 삶을 향유할수 있는 새 세상, 그 가없이 맑은 푸른 하늘을 위하여 투쟁하는 평범한 노동자들의 투사적성장과정의 진실한 시적화목속에 펼쳐지고 있는것이다.

시인은 시집 《로동의 새벽》의 첫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있다.

...

아, 우리도 하늘이 되고싶다
깃누르는 먹구름 하늘이 아닌
서로를 받쳐주는
우리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
그런 세상이고싶다
(《하늘》에서)

무너지는 낡은 세계의 하늘이 아니라 신생하는 새 세계, 민족해방의 푸른 하늘아래 살고싶고 또 살아야 하며 투쟁해야 하는 절절한 희망과 결의가 이 시에서는 마치 혁명의 서곡처럼 울려오고있다.

그러면 이제부터 시집 《로동의 새벽》이 안고있는 시인의 시정신속에 보다 가까이 접근하여 그의 시세계의 의미와 진가를 알아보기로 하자.

1

박노해 시세계의 진가, 진면모는 어디에 있는가?

이를 깊이 이해하자면 그의 시가 나오게 된 조건을 정확히 알아야 한다. 이 사회력사적조건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그의 시세계가 가지는 참다운 모습을 파악할수 없다.

사물에 대한 과학적인식은 사물 그자체를 고립화시키고 절대화하는 형이상학적방법에 의해 얻어지는것이 아니다. 사물의 호상련관에 관한 변증법적방법만이 사물의 본질을 과학적으로 인식할수 있게 한다.

그러면 박노해의 시세계, 특히 여기서 그의 시집 《로동의 새

벽》을 낳게 한 객관적 사회력사적조건은 무엇이었는가.

박노해의 첫 시집 《로동의 새벽》은 1984년 2월에 출판되었다. 그러나 이 시집이 나오기 한해전부터 그의 시 《시대의 꿈》, 《로동의 새벽》, 《휴일출근》, 《지문은 부른다》, 《손무덤》 등 뛰어난 시들이 출판물에 발표되었다. 이 작품들은 발표되자마자 남조선 문학계를 뒤흔들었으며 노동자들과 학생들속에서 큰 충격과 흥분을 불러일으켰다. 그것은 생각컨대 《박노해》라는 새로운 시인이 세상에 나타났다는 사실 그리고 그의 시가 안고있는 시적체험세계의 특성 즉 지금까지 남조선문학계에서는 찾아볼수 없는 노동현실의 생동하고 진실한 형상이 독자들에게 사실주의적감흥을 안겨주었기때문일것이다. 당시 남조선의 한 노동자는 박노해의 시를 읽고나서 《박노해선배의 시가 우리에게 뜨거운 감동을 주는것은 그의 시가 우리들의 삶과 분노 그리고 투쟁과 희망을 가장 진실하게 그려주고있기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노동해방문학》 1989년 4월호 137페이지)라고 하였다.

그러면 박노해의 시세계의 사상예술성과 그의 시적체험세계를 규제한 노동현실은 어떤것이었던가? 그것은 남조선의 노동자, 농민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의 고통을 그 마지막 외 항방울까지 뱉아내는 외세와 야합한 박정희 파쇼독재의 《근대화정책》이 빚어낸 열악한 노동조건이었으며 인생막바지에 이른 빈궁상태였다.

자본주의 생존방식인 《부익부, 빈익빈》의 랑극화가 극한점에 이른 남경이같은 낡은 세계의 하늘이 남조선인민의 삶을 지지누르고있었다. 시인은 후일 당시의 이 《빈익빈, 부익부》 랑극화의 생활풍경을 파장과 가식이 없는 시적함축으로 이렇게 형상하였다.

...

나의 인생은 일당 4,000원짜리
그대의 인생은 얼마
우리 사장님은 하루밤 술값 10
0만원이라는데
강아지 하루 식비가 5,000원이
라는데
3천원을 쥐고 혼든 녀장부도 있
다는데
염색공 사촌형은 120만원에 자
살을 하고
열여섯 우리 동생 공장을 가고

오오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사랑,
우리의 생명은
얼마 얼마?

(《얼마짜리지》에서)

외세와 야합한 박정희의 《유신》파쇼폭압통치와 매관자본가들은 남조선의 노동계급을 비롯한 근로인민대중에게 인간이하의 삶을 강요하였고 그들의 피의 대가로 최대의 치부를 하여 호화생활을 누리고있었다. 노동자들의 생활이 부자집 개만도 못하다는것이 남조선 노동현실, 노동생활의 실상이었다.

그러나 1970~1980년대 전대미문의 폭압통치, 극악무도한 흡혈적착취속에서도 남조선 노동자들은 더욱 단련되고 각성되어갔다. 그리하여 노동계급의 대렬은 그 어떤 무지스러운 힘으로도 진압할수 없고 굽히지 못할 대군으로 점점 더 자라났다. 자본가계급의 횡포무도한 착취적전행이 자행되는대로 노동계급의 항거정신이 높아졌으며 전자가 비대해지면 질수록 후자의 삶을 위한 투쟁도 그만큼 커졌다.

박노해의 소년기, 청년기가 흘러간 1970~1980년대는 군사파쇼통치의 폭압정치에 편승하는 가장 악랄한 남조선 자본의 흡혈귀적착취속에서 그의 세계관이 형성되고 공고화되여간 시기였다. 다시말하여 남조선의 비인간적인 군사파쇼통치 및 착취제도는 이 노동자 시인의 세계관을 형성시키고 장성시킨 용광로였고 노동현장은 사회현실을 정확히 인식할뿐아니라 예리하게 분석평가할수 있도록 교양하며 불붙는 정의로 눈뜨게 한 진리의 학교였다.

박노해라는 이름도 다름아닌 여기서 생겨난것이다. 즉 이 이름은 그가 후일 노동자해방운동의 투사로, 《자생적혁명가》로 지명수배를 받고 피신다닐때 생겨났다. 《압박받는 노동자의 해방》이라는 혁명적구호는 그의 신념이었고 과학적세계관을 형성시킨 진리의 번개였다. 결국 《박노해》는 노동자해방을 갈망하여 뇌리에 새겨넣은 그의 좌우명속에서 솟아나온 변성명이며 가명이다.

박노해(본명 박기평)는 노동생활 초기부터 남조선사회의 모순을 해결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있었으며 노동현실을 깊이 체험하면서 그것은 차츰 하나의

사상적리념으로 심화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정치적리념은 그가 로동해방운동에 투신하고 실천하는 과정에 더욱 공고화되어갔다.

낯은 세계의 점차적봉괴로부터 사멸에 이르는 로정은 험난한 새 세계 탄생의 산고를 이어 성장고뇌의 긴 과정도 거치며 《굵고 썩지 않는 동아줄》(시《별불일 없는 나는》에서)로 꼬아진 단결, 단합, 투쟁의 불길의 타오르는 고난의 가시밭길이다.

박노해의 세계관은 닦고 조이는 로동의 고역속에서 형성되고 성장하였다. 그는 《시다》(잡역로동자)로서 천대를 받았고 가난에 지지리도 시달리었다. 또한 혹독한 겨울밤을 차디찬 쇠덩이밑에서 덩굴며 지새우기도 하였다.

그가 체험한 로동조건은 그야말로 가혹하고 비인간적이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그는 때로 막벌이 손수레군일도 해보았고 운전조수, 운전사일을 하며 직업전선에서 《빈익빈》의 동토지대를 눈물겹게 해매었다. 로동운동에 투신하기 시작한 후에는 해고에서 해고로 정처없이 방황하였으며 마침내는 장기수배생활을 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1980년대 이전의 이 모든 고역과 삶의 시련, 인생역정은 그를 자본의 권력이 살판치는 환경에 순종하는 존재로 만든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의 정신을 단련시키고 굳센 의지를 키워주었다. 낯은 세계의 어둠을 뚫고나와 새 세계의 탄생을 안고 몸부림치는 시인의 세계관은 동트는 새벽과 같이 시간의 흐름을 따라 붉게 다져져갔으며 그의 시세계에 표현되는 미학관 역시 죽음의 무덤을 허물고 소생하는 새 세계의 새벽을 예고하게 되었다. 약간 달리 말하면 그의 미학관은 로동현실의 혁명적 폭풍우속에서 형성되고 단조되었으며 자기이전의 진보적문학전통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 농축되어 미의 새 세계에 이르렀다. 이로부터 시인의 뜨거운 심장은 가장 진실하고 아름다우며 참다운 미학적리상이 싹터오르는 예언적빛말로 고동칠수 있었다.

《로동의 새벽》은 이 두 세계, 달라하고 신생하는 두 세계, 무너져가는 자본주의와 고고성을 올리는 사회주의 리상세계, 누가 누구를 하는 계급투쟁의 판가리 싸움가운데 배태되고 허물어져가는 자본주의세계의 위기속에서

옴튼 신생하는 사회주의 새싹들과 함께 자라났다. 그러니 시집《로동의 새벽》을 낳게 한 보다 직접적인 미학적산과역은 1980년대초에 남조선 로동현장에서 창작된 수기, 실화, 시 등 《로동현장문학》, 《로동문학》의 우수한 성과작들이 수행하였다.

류동우의 《어느 돌맹이의 웨침》, 석정남의 《공장의 불빛》, 송호순의 《서울로 가는 길》과 같은 장편수기들은 지상에 발표되자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끌었다. 이 수기들은 고역에 시달리는 로동자들의 생활과 체험, 로동자가 되어 가장 초보적인 의식이 눈뜨기까지의 과정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데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크게 감동시켰었다.(《로동해방문학》 1989년 11호 422페이지 참조) 이와 함께 1980년대초 이후에는 로동자들의 시적자기표현의 형식으로 씌여진 《로동시》가 쏟아져나왔다. 이같은 《로동문학》작품들은 박노해의 창작에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다.

그의 시집 《로동의 새벽》이 《로동문학》처럼 현실에 있는 그대로의 기록, 실재성을 기록하고 보고하는 형식을 다분히 띠고있는것은 이와 관련된다. 그렇지만 그의 시들은 실재성에 기초한 사실성을 갖추고있는 점에서는 《로동현장문학》과 현저히 구별된다. 여기에 박노해 시의 독자적인 특성이 있다.

그러면 이 실재성과 사실성의 미학적차이는 무엇으로 설명할수 있는가?

실재성의 실기문학은 작가의 미학적관점이 아직 현실에 극히 적게밖에 개재되지 않는 상태 즉 예술성이 형식과 통일을 이루기 이전의 내용측면이 보다 강하게 표면화된 상태의 기록이다. 실기와 같은 실재성의 기록은 소재와 종자에 대한 예술적가공이 미숙하거나 불완전한 상태의 문학임을 말해준다. 이와 달리 사실성은 실재성에 기초하면서도 실재성을 보다 생동하게 표출하여 진실성에 접근시키는 예술적가공, 예술적형식과의 통일을 요구한다. 무대우에서 잠자는 배우는 실제로 자버리는 실재성으로 예술적감흥을 주는것이 아니다! 잠자는 본질을 실감있게, 진실하게 형상하는데서 사실성은 표출되고 예술적감흥도 불러일으키게 되는것이다. 그렇지만 사실성을 표출하는 제 요인중에서도 력사

와 현실발전에서 새것을 포착하여 그것을 새로운 형식과의 통일속에서 표현하는것이 가장 본질적인 미학적의의를 가진다.

새로운 내용과 새로운 형식의 통일-이것이 예술성을 획득하는 근본요인이며 여기에 사실성의 미학적본질이 있다.

박노해의 시집 《로동의 새벽》은 로동현장의 실재성을 보고하는데 머물지 않고 이에 기초하여

현실의 본질을 반영한 새것의 사실성을 예술적으로 시화함으로써 《로동현장문학》, 《로동문학》의 제한성을 극복하였으며 이로써 1980년대 초반기 사실주의적인 《민중문학》의 높이를 조명하게 되었다. 참으로 박노해의 시집 《로동의 새벽》은 주체적세계관을 통한 새 세계 즉 로동계급이 주도하는 인민대중의 사회개혁운동과정에서 밝아오는 새시대가 요구하는 인민적과업들에 예술적해답을 주는 보다 높은 형태의 사실주의시문학의 싹이었다.

시집 《로동의 새벽》은 로동현실을 취급한 남조선의 선행문학이 도달할수 없었던 새 경지를 개척하는 새로운 단계를 의미하였다. 실로 박노해의 시집 《로동의 새벽》의 출현은 썩고 병들어 몰락하는 낯은 자본주의사회를 반대하는 치열한 싸움을 통해 썩트고 성장하는 사회주의 미학적리상을 압박받고 고통받는 대중층의 총체성속에서 시화하고 전형화한 남조선 시문학의 경이적인 사변이었다.

1960년대중엽에 새롭게 등장한 남조선 현실참여문학은 사실주의 의의를 거쳐 1970년대 후반기에는 민중문학으로 한계단 높이 올라서게 되었었다. 이러한 문학풍토속에서 그 사실주의 미학의 활력소를 섭취하고 성장한 박노해의 시문학은 1980년대 후반기에 급격히 장성한 로동운동과 혁명성을 띤 실천적대중운동의 현실을 반영하여 새롭게 솟아오른 로동계급의 진실하고 아름다운 인민적미학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시문학은 사람들의 커다란 경이감을 불러일으킬수 있었다.

그는 1960년대의 남조선의 현실참여시인인 신동엽과 김수영의 문학세계에서 그들의 민중적미학관을 이어받았고 당시 민중시인들인 신경림의 《농무》, 박재소의 《사평역에서》 등을 애송해 독하며 그들의 시가운데서 력사의 알맹이, 인민대중적힘의 생명

력을 섭취하여 로동해방의 미학관을 정립하여나갔다. 이리하여 시인 박노해는 식민지군사파썸통치의 사회정치적모순을 각성한 로동계급의 눈으로 폭로하고 로동해방과 사회주의리상을 높은 형태의 사실주의창작방법을 통하여 진실하게 구현함으로써 사회주의사실주의문학의 새싹으로 등장하여 남조선의 민중문학을 주도할수 있는 도표를 세워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말, 1990년대초 남조선의 적지 않은 평론가들은 그의 시문학이 가지는 획기적의의를 옳게 평가하지 못하였다.

그 구구한 평가들중에 반드시 지적해야 할것은 《로동자의 삶의 진실》을 담고있어 감동적이면서도 문학적형식의 미숙성》(《로동해방문학》 1989년 11월호 422페이지)을 주장하는 평론가 백락청의 평가이다. 그는 내용은 진실하고 감동적이라고 하면서도 그 형식의 미숙성을 지적하는것으로 내용과 형식을 분리하는 형식주의미학관의 오류를 범하였다.

그리고 시집 《로동의 새벽》을 《로동문학》의 초기 생산자들의 《수기》, 《실화》문학과 동일시하면서 《장르확산운동》의 한 단계로 보는 백진기의 견해와 그것을 《대중문학운동을 추구해나가는 경향》으로 평가하는 채광식, 김명인의 평가들도 일면성과 피상성을 면치 못한 견해들이다. 이러한 평가들은 모두 박노해의 문학적세계의 새로움을 몰리해한 견해들이라고 말할수 있다. 왜냐하면 박노해의 시집 《로동의 새벽》은 그 사상예술성에 있어서나 그것으로 인한 미학적의의에 있어서 그리고 해당 시대에 남조선 로동계급의 새로운 미학을 정립함에 있어서도 최고봉을 이루고 있음을 그 누구도 부정할수 없기때문이다.

그의 시세계는 새 시대와 새 세계를 창조하는 남조선 선진로동자의 삶의 총체성을 반영한 전형이라고 말할수 있다.

2

그러면 이제부터 시집 《로동의 새벽》의 시세계에 보다 깊은 접근을 시도해보기로 하자.

박노해의 시는 무엇보다먼저 로동자들의 일상적삶을 생활의 세부속에 진실하게 보여준다. 그들의 삶은 공장의 로동속에서 낮과 밤이 따로 없는 고역으로 이어진다. 그러니 그밖의 다른

생활이란 있을수 없다. 로동은 그들의 삶의 전부인것이다.

박노해는 소년기에 바로 자신이 이같은 비인간적인 착취로동에서 신음했다. 그만이 아니라 같은 운명에 있는 수많은 소년로동자들이 낮은 임금을 받으며 초과로동, 연장로동속에서 처음은 《슬픔》을, 다음에는 《분노》를 온몸으로 실감했다.

박노해는 후일 주간에는 로동을 하고 밤에는 《선린상고》 야간부에 다니며 공부하던 당시를 회상하는 글에 쓰기를 《...모든 인간세계에서 고립되고 단절된듯한 고독과 우울속에서 나는 슬픔에 울어야 했다. 그것은 나의 정신과 육체를 파괴하고 갇아내렸다.》고 하였다.

이 모든 로동자의 삶이 그 세대에 이르기까지 그의 시세계의 곳곳에서 추호의 가식과 허위도 용납없이 없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다. 이제 그 대표적실례를 잠간 살펴보기로 하자.

긴 공장의 밤
시린 어깨우로
피로가 한파처럼 몰려온다

드르륵 득득
미싱을타고 꿈결같은미싱을타고
두알의 타이밍으로 철야를
버티는
시다의 언 손으로
장미빛 꿈을 잘라
이룰수없는 헛된 꿈을씩둑 잘라
피 흐르는 가족본을 미싱대에 올
린다
끝도 없이 올린다

아직은 시다
미싱대에 오르고싶다
미싱을 타고
장군처럼 당당한 얼굴로 미
싱을 타고
언 몸통아리 감싸줄
따스한 옷을 만들고싶다

떨려오는 온몸을 소름치며
가위질 망치질로 다림질하는
아직은 시다
미싱을 타고 미싱을 타고
갈라진 세상 모오든것들을
하나로 연결하고싶은
시다의 꿈으로
찬바람 치는 공단거리를
허청이며 내달리는
왜소한 시다의 몸짓
파리한 이마우로
새벽별 빛나다
(《시다의 꿈》 전문)

서정시 《시다의 꿈》이 그 이 전 시들에 비하여 보다 새롭고
이채로우며 이로하여 사람들의
감흥을 불러일으키는 미학적요인

들중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특
징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실주의
문학의 본질적특징의 하나인 서
정적주인공 《시다》의 성격과
정황묘사의 통일을 생활세부묘사
속에서 달성하고있는 그 점이다.

시인은 서정적주인공 《시다》의 《꿈》이 이룰수 없는 꿈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그로써 《시다》의 내면적갈등속에 사회적모순을 은연중 반영하고있다. 바로 이것이 이 시의 형상적핵이다.

나어린 《시다》들은 이 착취사회의 본질을 아직 모르고 미성로동에서 손가락을 잘려가며(휴식도 없이 조는 상태에서) 동이 틀 때까지 가위질, 망치질, 다림질을 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런 고역을 당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장군처럼 당당한 얼굴로 미싱을 타고/언몸을 감싸줄 따스한 옷을 만들고싶다/는 꿈이 있다. 로동자들의 의식발전수준은 아직 낮은 단계에 처해있지만 그들은 착취와 빈곤에서 해방되는 보다 좋은 사회, 자주적인 사회에 대한 꿈을 안고 미싱을 타며/갈라진 세상 모오든것들을 하나로 연결하고싶은/시다의 꿈으로/의식성장을 보인다. 이 《시다》의 꿈은 일차적으로는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이룩하자는것이다. 그 다음단계에서는 빈부의 차가 없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고싶은 꿈으로 그들의 의식이 성장한다.

이렇게 시인 박노해는 시 《시다의 꿈》에서 밑바닥, 《시다》의 현장로동환경에 어울리는 《시다》들의 성격성장의 형상을 창조하였다. 그는 이 시적형상의 창조로 남조선 로동계급의 삶의 총체성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로동계급전형의 한개 유형을 창출하는데 성공하였다.

서정시 《시다의 꿈》에는 성격과 정황의 통일이 이루어져있으며 또한 내용과 형식이 분리됨이 없이 조화롭게 통일되어있다.

서정시의 내용과 형식의 조화로운 통일은 이밖에도 시집 《로동의 새벽》에 수록된 시 《한강》, 《그리움》, 《포장마차》, 《지문은 부른다》 등 적지 않은 서정시에 빛나게 구현되어있다.

많은 독자들과 문화인들의 찬사와 공감을 받고 사실주의적감흥을 불러일으킨 서정시 《지문은 부른다》도 서정적주인공의 성격과 정황의 통일을 달성한 대표적실례의 하나이다.

서정시 《지문은 부른다》의 첫련은 이렇게 시작된다.

진느까비속을
웅크려 헤쳐나가며 작업시간에
가끔 이렇게 일보러 나오면
참말 좋겠다고 웃음 나누며

우리는 동회로 들어선다

6년간이나 《가리봉동공단》에 파묻혀 손로동, 고역으로 뚫도 없이 삶을 이어가는 29 살의 사나이, 그는 동료 노동자들과 함께 경찰의 호출을 받고 작업시간에 동회로 지문을 찍으러 간다. 시인은 여기서 작업시간에/가끔 이렇게 일보러 나오면/참말 좋겠다고 웃을 나누며/라는 말로 노동자들의 휴식없는 노동생활을 살짝 비치었다. 그렇지만 둘째련에서는/뚫도 없이 죽음처럼 노동속에 홀려/한번쯤은 똑같은 《국민》임을 확인하며/주민등록갱신을 한다/고 노래한다. 이것은 서정적주인공-청년노동자가 아무런 목적지향없이 고역속에 세월을 보냈다는 그의 삶의 내용을 의미하는것이다. 그다음 서정적주인공은 이런 주민등록을 갱신할 때 지문을 찍는다고 답답하게 말한다. 결국 한생을 살아가는 동안 한번쯤은 누구나 똑같은 《국민》이란 허울좋은 명칭을 《보장》받고있는 셈이다. 그런즉 부자와 빈자, 가진자와 못가진자 사이의 《평등》은 이같은 형식적인 주민등록을 갱신하는 행사뿐이고 그밖의 모든 인간다운 삶이 물질적부의 생산자인 노동계급에게 있어 서는 소외되고있는것이 아닌가.

시인은 이렇듯 가난과 고역과 무권리로 신음하고있는 노동자의 삶의 내용을 현실에 있는 실재성 그대로의 형상적형식을 통하여 확인하고있다. 여기에는 그 어떤 예술적허구도 없으며 분석도 없다.

3련에서 시인은 생산노동자에 대한 련민과 궁지의 정을 생산하는 노동자의 《손》에 쏟아붓고 미화적평가를 내리며 이로써 자기의 노동계급성을 은근히 암시한다. 이렇게 그의 시에는 노동계급성이 추상적구조로 로출되고있는것이 아니라 시형상의 밑바닥에 깔려있다.

시인은 계속하여/평생토록 죄진적이 없이/이 손으로 우리 식구 먹여살리고/수출품을 생산해온/노동자의 그 자랑스런 손으로 지문을 찍는다는것을 노래한뒤에 시적 정황과 체험을 급격히 역전시킨다.

/아/없어 선명하게/없어/노동속에 문드러져/너와 나 사람마다 다르다는/지문이 나오지를 않아/없어, 정형도 이형도 문형도/사라져버렸어/하고 지문이 없다는것을 강조한 시인은 여기에 방점을 찍는다.

생산하는 노동자의 손바닥과 손가락에서 지문이 없어졌다는것은 노동속에서 지문도, 청춘도,

사람이 사람으로 갖추어야 쓸 증표로서의 그 존재조차 잃어버렸음을 말해준다.

지문이 나오지 않는 화학약품 공장 아가씨들은 비감에 잠기며 자기 존재마저 상실한 처지를 알고 끝내는 북받치는 울음을 억제치 못한다.

박노해는 초기 시들에서 종종 노동자의 비감어린 삶의 슬픔을 노래하고있으나 그 슬픔은 슬픔으로 끝나는것이 아니라 슬픔을 짓밟고 일어서는 분노 혹은 희망, 꿈, 갈망의 표상과 결부되고있다. 《한강》, 《어디로 갈거냐》, 《통박》 등이 그러하다.

그의 초기 시에 나타나는 이러한 특징은 실재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실성의 시적화폭속에서 보다 좋은 삶을 희구하는 인간의 본성적욕구가 형상화되는 적극적량만성이 숨쉬고있다는것을 보여준다. 다시말하여 그의 사실주의 시문학에는 자주성과 창조성을 지향하는 노동계급의 보편적요구가 반영된 적극적량만성, 혁명적량만성이 높뛰고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서정시 《지문은 부른다》가 이를 웅변으로 증언하고있다...

...

선명하게 되살아난
지문을 부르며
노동자의 푸른 생명을 부르며
되살아난
너와 나의 존재
노동자의 새봄을
부르며 부르며
진눈개비속으로
타오르는 갈망으로 간다
(《지문은 부른다》 끝련)

박노해의 시의 이같은 특징은 1960~1970년대 민중문학과 1980년대초의 《로동문학》, 《로동현장문학》에 비하여보면 서정시에서 새 세계의 개척이라는 의미를 띠고있다. 그러므로 이것은 그의 시문학이 가지는 혁신적의의를 조건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의 초기 시의 이같은 혁신성은 남조선시문학에서 전혀 새로운것이였다. 그러므로 이 새로운 서정시들은 당시의 시문학체를 비롯한 사회제에 소재상의 참신성을 선보였으며 시적내용과 형식에 있어서도 그 혁신성으로 하여 독자들에게 충격을 불러일으키었다.

그러면 박노해의 많은 시들에 표현된 내용과 형식의 혁신성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우선 그 내용에서 서정시 영역의 시야밖에 있던 노동자대중의 삶의 현장성을 세상에 부각

시키여 지금까지 감추어지고 파묻혀있던 현실의 비밀을 시화한 것이며 또한 노동자의 삶의 내면세계를 추호의 가식도 없이 진실하게 형상한 내용상의 혁신이다.

그의 서정시들은 내용상에서뿐 아니라 시의 형식에 있어서도 내용과 조화로운 통일성을 보장하는 형식의 혁신성을 보여주었다.

시집 《로동의 새벽》 이전의 1970 년대의 민중시는 많은 경우 조선봉건왕조후기의 가사와 판소리의 4.4 조를 기본으로 하는 형식을 채용하고 답습하는것이 많았다. 그러나 시집 《로동의 새벽》에 실린 서정시들에서는 4.4 조 정형시의 흔적을 조금도 찾아볼수 없다. 이는 노동현실을 소재로 하는 그의 서정시적내용이 이를 요구하지 않았고 또 노동생활의 소재 그자체를 4.4 조 정형으로 표현하는것이 적당치 않았기때문일것이다.

시인은 당시의 부르조아형식주의의학, 모더니즘의 유행성에 조금도 감염되지 않았으니 박노해의 시에서는 모더니즘의 아류인 《해체시》의 영향을 전혀 볼수 없다. 그의 서정시에는 독자적인 시풍도 보이지 않으며 1960~1970 년대의 민중시에 흔히 있는 관조성도 없다.

시 《전쟁터같은 현장》(《남성 권력기》)의 운율조성은 산문시에 가까우나 산문시가 아니라 새로운 로동의 서정을 안고있는 서정시이다.

나의 두눈에 눈물이 맺히고
우리는 현장을 돌며
메마른 가슴들을 한덩어리로
뜨겁게 일으켜세워
전쟁터같은 현장은 일시에
긴장된 침묵만이 감돌고
허둥대며 퍼렇게 고통치는
주임부장의 발악에도
내 가슴은 난생 처음
평온한 대지가 되어
생명의 죽순이 파랗게
기운차오른다
(《전쟁터같은 현장》에서)

산문을 토막친것 같아도 이 시에서는 서정시, 자유시의 내재를 이상으로 운율이 파동치고있다.

《눈물》과 같은 비감어린 시어들도, 비감만을 자아내지 않고 《생명의 죽순이 파랗게 기운차오른...》것처럼 소생의 낙천적힘을 안겨준다.

박노해의 서정시는 이와 같이 그 형식도 내용에 맞게 혁신적이다. 이 혁신성으로 하여 그의 시는 첫 출발부터 사람들의 경이감을 불러일으키고 이목을 집중시킬수 있었다.

다 아는바와 같이 시집 《로동

의 새벽》을 안고 키운 1980년대는 인민대중의 주체의식이 높뛰는 전진의 시대였다. 근로인민들이 력사무대의 전면에 등장한 이 자주성의 사상정신적기류를 타고 민중문화이 솟구쳐올랐고 민중문학은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민주주의적이며 사실주의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남조선진보적문학운동을 주도해나갔다. 박노해의 시세계도 그 영향밑에서 발자국을 떤였으며 노동자대중속에 발을 붙이고 마침내는 새로운 경지로 치달아올랐다.

시집 《로동의 새벽》에 들어있는 대부분의 시는 노동현실 그 자체발전과정을 진실하게 반영하는 사실주의적방법으로 그 내용과 형식에 있어서 새로운 세계, 새시대를 반영하고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노동계급의 력사적진출을 노래하고있다. 이것이 곧 박노해시의 커다란 미학적혁신성이다.

이 노동자시인은 사회와 노동현실의 본질을 예리하게 투시하고 노동계급의 지향을 대변하였다. 당대 남조선 진보적문예운동의 선두에 서있던 《민중문학론》자들까지도 시대발전추세의 본질을 도출하기 위해 적지 않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1980년대 중반기부터 남조선사회의 저변에서 소용돌이치며 힘차게 진출하는 노동계급의 발구름소리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지는 못하였다. 이로 하여 결국 그들은 남조선 노동운동의 태내에서 움이 트고 자라나 노동계급의 지향을 대변하여 등장한 시집 《로동의 새벽》이 가지는 경이적인 미학적혁신성을 옳게 리해할수 없었다. 그래서 박노해의 시세계를 《...통상의 노동운동이 제기하고있는 슬로우전 이상의 시적결말에 이르지 못하고말았어요》(《실천문학》 1985년 봄호 37페이지)하는 식으로 내용은 좋으나 그 형식은 그에 맞지 않는다고 그릇되게 평가하고 그의 시를 《슬로우전주의》로 낙인하고 말았다. 말하자면 《민중문학》진영의 진보적문학인들까지도 내용과 형식을 분리시켜 평가하는 형식주의미학관에 사로잡혀있었던것이다.

박노해 시세계의 새로움은 비단 시의 내용과 형식의 조화로운 통일에서

만 이루어지고있는것이 아니다. 이 시인은 남조선에서 처음으로 새 시대, 자주성의 시대가 요구하는 노동계급의 본성적요구인 민주주의적률리의식을 가정세계생활의 세부를 통하여 형상화하였다. 그는 이것으로 사람들의 더 큰 주목을 끌고 경이감을 불러일으켰던것이다.

시인 박노해는 낡은 세계의 룬

리의식과 도덕관념을 타파하고 노동계급의 새로운 사랑관계를 사회개혁운동의 실천속에서 혁명동지관계와 결합시켰다. 이는 그의 시가 가지는 또 하나의 혁신성이다.

《천생연분》, 《이불을 꿰매면서》, 《어쩌면》, 《당신을 버릴때》, 《진짜 노동자》, 《로동의 새벽》, 《사랑》, 《어머니》 등 그의 적지 않은 서정시들에서는 인간의 근원적인 사랑에 기초한 새로운 룬리도덕관계로서 동지와 동지들에 대한 려대의식, 단결의 송가가 닮은 세계의 파멸적인 인간관계를 부정하고 벽찬 새날을 위한 싸움으로 부르는 목소리로 힘차게 울려나오고있다.

서정시 《천생연분》에서 시인은 부부간의 사랑은 생명력을 일깨워주는 고상한 동지애로 형상하였다. 다시말하여 동지애로 결합되고있는 사랑은 죽지 않고 《우리》의 사랑으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력이라는것이다.

내가 동료들과 슬망태가 되
여와도
며칠씩 자정넘어 동료집을
전전해도
건강걱정 일격리에 다시 기
운이 솟고
결혼후 3년넘게 그 혼한 세
일야쓰 하나 못사도
짜장면 외식 한번 못하고 로손 하
나로 1년넘게 써도
항상 새순처럼 웃는 당신이 좋소
...

밤하늘 별처럼
흐르는 시내처럼
들의 꽃처럼
소곤소곤 평화롭게
살아갈 날을 위하여
우린 결말도 못보고
눈감울지 몰라
저 거친 발굽아래
무섭게 소용돌이쳐오는
타류속에
비명조차 못지르고
휩쓸려갈지도 몰라
그래도 우린 기쁨으로 산다
이 길울
그래도 나는 당신이
눈물나게 좋다 여보야
...

나는 당신이 좋다
듬직한 동지며 려인인 당신을
이 세상에서 젤 사랑한다
나는 당신이
미치게 미치게 좋다
(《천생연분》에서)

노동운동속에서 맺어진 서정적
주인공의 사랑-그것은 노동자는
평생 로동으로 죽어야 한다는 로

동의 속명관을 까부시는 동지애의 찬가이며 자기가 속하고있는 노동자집단과 노동계급의 혁명위업에 대한 희생성, 헌신성으로 일관된 숭고한 정신이다.

낯은 임금과 장시간로동과 억압속에 시들은 노동자의 속명을 사랑으로 까부시고 행복하게 살아갈 그날을 위해 싸우며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정신, 이 혁명적락관주의는 다음부분에서 더욱 아름다운 서정의 세계로 개방된다. 참다운 삶의 길, 투쟁의 길에서 사우다 죽는것은 결코 슬픈 일이 아니라고.

그리하여 시인은 가장 순결한 마음, 밝은 얼굴로 이렇게 노래한다.

...
도중에 깨진다 해도
우리속에 살아나
죽음의 려사를 넘어서서
이른 봄비가 당신은 개나리
나는 진달래로
삼천리 방방곡곡
흐드러지게 피어나
...푸성귀같은 웃음을 터뜨리는
젊은 노동자의 모습을 보며
그옥한 눈물로 지자 여보야

이렇듯 순결하고 뜨겁고 열렬한 사랑은 죽음의 려사를 넘어 아름다운 꽃으로 피어나는 사랑이며 감동어린 눈물속에 밝은 웃음 터뜨리는 미래를 바라보는 랑만이다. 시인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이 고결한 동지애의 정신을 근로대중의 해방을 위한 투쟁과 결부시켰으며 나와 네가 《우리》속에 살아나는 보다 높은 정신으로서의 보다 높은 자기희생성의 사람으로 승화시키었다.

그의 시 《이불을 꿰매면서》에는 이같은 새로운 인간관계의 숭고한 리념이 가정생활의 세부속에서 진실하게 형상되고있다.

투쟁이 길어갈수록 실천속에서
나는 저들의 찌꺼기를
배설해낸다
노동자는 리운남는
기계가 아닌것처럼
안해는 나의 몸종이 아니고
평등하게 사랑하는
친구이며 부부라는것을,
우리의 모든 관계는
신뢰와 존중과
민주주의적이어야 한다는것을
잔업 끝내고 돌아올
안해를 기다리며
이불효청을 꿰매면서
아픈 각성의 바늘을 찌른다
(《이불을 꿰매면서》의 끝편)

이 시에서 시인은 낡은 세계의 룬리도덕관념을 청산하고 로동

계급의 새로운 룰리도덕관계, 호상신뢰와 존중, 민주주의적인 관계가 실천속에서 새롭게 형성되고있음을 밝히고있다. 사랑의 인간성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새로운 룰리도덕관계의 발생, 이는 로동계급문학의 계급성의 발현이다. 낯은 룰리도덕의 청산이 없이 새로운 룰리도덕관계의 발생 발전이란 있을수 없다. 혁명은 새것과 낯은것의 투쟁이며 낯은 것에 대한 새것은 중국적승리를 의미한다. 새형의 인간탄생은 낯은 세계의 부단한 극복과정에 그 맹아적 형태로부터 성장과정을 거쳐 완성에 이른다. 새것의 성장은 낯은것의 모든 《찌꺼기》를 극복하는 부단한 투쟁을 동반한다.

《는물로 씨뿌린 사람들이 기쁨으로 곡식을 거두리라》는 합언은 새싹이 반드시 기름진 땅에서만 솟아나지는 않는다는것, 척박한 땅에서 솟는 새싹도 그것을 가꾸는 농군의 땀과 피와 고뇌가 깃들면 풍만한 결실을 본다는 뜻을 담고있다. 마찬가지로 한 로동자가 생존의 벼랑에서 삶의 방향을 사회주의로 선택하고 그 실현을 위해 생의 마지막까지 굴함 없이 투쟁한다는 박노해서정시의 사상감정은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를 타승하는것이 비록 역사발전의 움직임일수 없는 법칙이지만 이같은 승리도 반드시 역경을 극복하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현실발전의 필연적진리를 예술적으로 확인한것이다. 이 신념은 사랑의 인간성에 기초한 로동계급의 새로운 룰리도덕관계의 발전에서 공고화되며 계급적누대와 단결의 실천과 자본주의와의 투쟁을 통하여 성장한다. 그리고 그 정신은 투사의 의지를 단련시키며 궁극에 가서는 세계에 대한 과학적인식어로 이끌어간다.

박노해의 시집 《로동의 새벽》은 역사의 찌꺼기와 껍데기를 없애는 간고한 투쟁속에서 새것이 탄생하고 그 새것은 중국적으로 승리의 지점에 도달한다는 진리를 시적형상으로 보여주는 남조선사회개혁운동의 서곡이었다.

시인은 우선 진실하고 생동한 서정적형상창조로 낯은 세계의 탁류를 뚫고 솟아오르는 새 인간의 전형적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중에서도 서정시 《어머니》는 낯은 세계속에서 새형의 인간이 태어남을 예고하는 전주곡이었다. 그것은 시 《어머니》가 ① 남조선로동운동이 아직은 낮은 단계에 처해있는 역사적상황을 반영하고있으며 그러므로 어머니의 성격은 낯은 봉건적부르조이적인 룰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한 형상

이란것, ② 어머니의 형상이 일반적인 어머니의 묘사에 머물고있는 특성을 가지고있다는것, ③ 아들-서정적주인공의 형상은 남조선의 로동운동과 사회개혁운동의 선구자이며 그와 같은 새싹으로서의 전형이란것, ④ 따라서 어머니와 아들사이에서도 낯은것과 새것의 투쟁이 진행되고있다는것 등등으로 설명된다.

...

오! 어머니
당신속엔 우리의 적이
있습니다
어머님의 념원을
오손도손 평온한
가정에의 바램을
잔혹하게 짓밟고 선자들은
간교하게도 당신의 기원속에
굴종과 리기주의와 탐욕과
안일의 독사로 도사리며
각일각 적의 가장 집요하고
공고한 허바닥으로
우리의 가장 약한 인륜을
파고들며 유혹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단 한사람
어머니 가슴에 못을 박습니다
어머니의 간절한
소원을 위하여
이 땅의 모든 어머니들의
비원을 위하여
짓눌리고 빼앗긴 행복을
되찾기 위하여
오늘 우리는 불효자가 되어
저 참혹한 싸움터로 울며울며
당신의 곁을 떠나갑니다
...

우리들의 소중한 평화를 쟁
취하고자
피투성이 싸움속에서
승리의 기발을 드높이 펴리며
빛나는 얼굴로 돌아와
큰절 올리는 그날까지
어머님, 우리는 천하의 불효
자입니다
당신속에 도사린 적의 허바
닥을
맹혹하게 적대적으로 끌어버
리는

진실로 어머니를 사랑하옵는
천하의 몸쓸 불효자되어
피눈물을 뿌리며 싸움터로
나아가합니다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에서)

이러한 어머니의 형상은 1980년대 중반기까지 남조선의 진보적민중민족문학이 거둔 가장 큰 성과의 하나이다. 이 형상은 로동운동과 사회개조운동의 낮은 단계에서 흔히 볼수 있는 보통 어머니의 전형인것이다. 전형은

흔히 있는 인간의 성격에 새로운 특징을 부여하는것과 새싹을 신속히 발굴하여 그것을 일반화하는 두개 류형이 있으며 전형은 시대와 함께 발전하는 시대적전형이라는것을 여기서 강조해준다.

로동자 시인 박노해는 서정시 《어머니》의 평범한 인간적형상에 머물지 않고 1980년대 후반기에는 한걸음 더 나아가서 싸우는 남조선어머니의 형상을 로동운동의 발전에 상응한 시대적전형으로 승화시키는데 성공하였다. 그것은 시인의 세계관의 성장과 현실발전의 제요인이 어머니형상창조에 크게 작용한것과 관련된다.

아아 딸아 내 딸아 우리의 딸아
너는 이 에미도 모르게 커서

로동속에 커서
끈끈한 육심이 주름진
좁은 내 몸을 떠나
네 말대로 로동해방투사가
되었구나
빛나는 민중의 큰딸이
되었구나
네 모습 빛나서
사무치게 빛나서
내가 웨치는 구호소리를
함께 부른다

...
...
땀땀하고 사랑스럽게
네가 혼신으로 웨치는 말씀을
울며 악을 써 함께 부르짖는다
(《저 아이가》(1989)에서)

여기서는 낯은 봉건적 부르조아적도덕 및 관습에 얽매인 어머니의 형상을 보여준 서정시 《어머니》와는 달리 그 낯은 인물관계를 탈피한 로동계급의 로동해방투쟁의 정서속에서 어머니의 시대적전형을 창조하는 방향으로 한걸음 전진하고있다.

시집 《로동의 새벽》의 새로운 혁신성이 가지는 의의는 보다 적극적인 사실주의적전형창조를 달성하는 동시에 로동계급의 집단적형상과 민족해방투쟁의 승리를 담보하는 《단결》의 미학을 확립하고 로동계급의 계급성을 로동자들의 해방을 위한 문학의 형상체제속에 구현하였다는데 있다.

로동자시인 박노해는 창작활동의 초기에 있었던 개인중심의 《경제주의》를 극복하고 점차 집단주의정신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는데로 나아갔으며 이로부터 참다운 삶의 가치를 향유하는 각성된 계급의 미학을 창조하였다. 이렇게 되어 그의 사실주의미학은 《나》의 미학에서 《우리》의 미학으로 승화되었고 남조선사

실주의미학발전의 보다 높은 단계를 장식할 수 있었다.

시집 《로동의 새벽》의 3편에 수록된 《삼청교육대 I》은(계거품물고 침몰해가는/아 여기는 강계수용소인가 생지옥인가/하는 부르조아적인류도덕의 파면상, 낡은 세계의 몰락상을 고발하였고 그밖의 모든 시편들은 로동계급의 집단주의정신을 긍지높이 노래하고있다. 《시정》, 《바람이 돌더러》, 《밤을 찾아》, 《떠나가는 노래》, 《아름다운 고백》 등 수많은 그의 서정시들에는 로동계급의 집단주의정신이 진정으로 감명깊게 노래되어있다.

...

좌절과 허망속에 그쳐
일하고 먹고 자고 취하고
산다는 의미조차 없이
겉멋과 향락만 동경하며
내 한몸조차 존키 어렸네
로동운동을 하고부터
동료와의 깊은 신뢰와
나눔과 사랑속에
참말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네
나의 존재를 인정받고
신뢰와 사랑속에
동료를 위해 사는 것처럼
큰 회일이 어디 있을가
라면 한개 쓴 소주 한병을
논아먹어도 웃음꽃이 피고
불안함과 경계가 없이
너나가 우리로 다 함께
환히 열린 하나됨속에서
기쁨을 나는 맛보네

...

나의 눈물이 동료들의
웃음이 되고
나의 고통이 동료들의
기쁨이 되고
나의 아픔이
우리들의 희망이 된다
이 또한 얼마나 아름답고
뜻깊은 생인가
(《아름다운 고백》에서)

서울 고교(야간부)를 졸업한후 성수동의 한 공장에 첫발을 들여놓은 박노해는 불과 3개월만에 《불온분자》로 해고되었었다. 그후 1984년 6월에는 경기도 안양소재 안남운수에 입직하여 3년간 운전수로 일하면서 틈틈이 시를 썼다. 이때에 쓴 시를 묶은 시집이 곧 《로동의 새벽》이다. 그가 로조활동을 적극 벌린 시기와 시를 쓰기 시작한 시기는 거의 시간적으로 일치한다.

그는 자기 시에 표현한것처럼 로동운동에 참가하여서야 동료들 사이의 깊은 신뢰와 사랑속에서 참말로 인간다운 삶이 무엇인지를 알았다. 이는 로동자 시인이

동물적삶의 세계를 벗어나 자기운명을 자주적으로 개척하는 새인간으로 탄생함을 의미한다. 그는 집단속에서 생의 보람을 찾았으며 집단을 위하여 그것을 빛내어나가는, 투쟁하는 새 인간으로 되었던것이다. 이때부터 그는 벌써 현실에서 모순구조를 체험하는데 그치는 인간이 아니며 그 모순의 해결에로 나아가는 투사이다.

...

나는 한마리 새처럼
아늑한 보금자리
찾아가는것이 아니네
죽음의 연기 뿜어내는
저 거대한 굴뚝속을
폭탄뚫고 추락하는 새라네
어야 디야
상여같은 가슴메고
나는 떠나네
어야 디야
우리 다시 만나세
사랑 가득한
높낮이 없는 새 땅을 위하여
깃들려진 육신
갈라진것들이 하나로
제모습 찾는
싸움속에서 다시 만나세
(《떠나가는 노래》에서)

그의 시에 높뛰고있는 집단주의정신은 그 자체속에 갈라진것들이 하나로 제모습을 찾는 로동계급의 단결의 미학을 생명력으로 안고있다. 시인은 자본의 억압을 반대하여 일어난 근로대중의 투쟁을 직접적인 체험된 사상감정으로 힘있게 노래한다. 여기에는 가장 아름답고 고상한 단결의 미학, 승리의 씨앗을 품은 미학이 자리잡고있다.

시인 박노해는 민족의 자주성을 위한 투쟁, 인민의 념원을 실현하는 투쟁에서 단합하면 승리하고 흩어지면 망한다는 혁명의 진리를 다음과 같이 노래한다.

로동하는 우리의 땅
우리들의 매일
우리들의 꿈으로
온 세상 하나가되어
손에 손잡는
빅찬 새날을 위하여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는
저 달콤한 허깨비를
부시며 나갈것이다
(《허깨비》 끝편)

로동하는 사람들이 주인이 되는 새 시대, 새 세계는 오직 모두가 집단주의정신을 지니고 단결하여 투쟁할 때만이 기쁨으로 안아올수 있다는 신념의 목소리가 여기에 힘차게 곱이치고있다. 그리고 《온 세상이 하나되어

손잡는》 사회적리상을 지상의 현실로 전환시키기 위해 굴함없이 싸워나갈 굳센 결의도 장중한 음향으로 울려온다.

박노해의 시집 《로동의 새벽》은 웃음과 아름다운 빛을송두리채 빨아먹는 (《어쩌면》)강도배들에게 짓눌려 실패의 아픔과 절망, 크나큰 슬픔의 몽환에 잠겨있던 남조선 근로자들이 드디어 잠을 깨어 단결된힘을 합치고/갈라진것들이 하나로 제 모습을 찾는/싸움속에서/우리 모두 서로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그런 세상, (《하늘》), 자주, 민주, 통일의 그날에 이르고야말겠다는 민중정서를 역센 노래에 담은 비장한 진군가이다.

그의 열화같은 서정시들은 독립분산적이고 미자각상태였던 로동자들이 점차 자각하고 의식화하여 집단을 위하여, 인간다운 삶을 위하여 투쟁하는 모습을 노래하고있으며 탐욕스러운 흡혈귀들을 반대해 모두가 한결같이 일떠선것을 호소하면서 그들을 복된 삶이 약속된 미래, 새 세계의 중국적승리로 부르고있다.

남조선로동계급문학의 정당성, 진정한 위력은 이 문학이 력사의 주체인 인민대중의 편에 서고 그의 미래, 자주적인 새 세계의 승리를 굳게 확신하는데서 표현되고있다. 이제 남조선로동해방문학도 신구세력의 불상용적대립과 갈등만을 대상으로 삼는것이 아니라 근로인민대중의 진보적지향이 물질적으로 발현되는 구체적현실속에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의 미래를 내다보는 경향을 띠게 된것이다. 특히 로동계급이 1987년 6월에 온 남조선땅을 뒤흔든 대중투쟁을 거쳐 민주운동의 주도적세력으로 등장하고있는 조건에서 로동해방문학은 그 계급적성격(당파성)이 더욱 뚜렷해졌다. 당시 이같은 진보적문학의 선두에서 가장 견결히 나아가는 사람은 로동자 시인 박노해였다.

그러나 박노해의 시집 《로동의 새벽》은 그 특출한 력사적의의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시대적제한성과 세계관적약점을 가지고있다.

첫째로 시집 《로동의 새벽》은 당대의 로동계급 대중운동의 력사적제한성과 내적모순을 그대로 반영하고있다. 다시말하면 로동계급이 아직 경제투쟁의 울타리안에서 맴돌고 시인의 세계관적시야도 대중의 정치적각성에 뒤떨어져있는것으로 하여 그의 서정시들은 민족해방민주주의혁명단계의 파업을 일부 외면하였으며 이로써 그 제한성과 약점을 두드러지게 나타내고있는것이다.

시집 《로동의 새벽》에서는

민족해방혁명의 과업, 반제반미 투쟁의 시적형상화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더우기 이 시집이 1980년초 광주인민봉기와 미국《문화원》방화사건 이후에 나왔다는 것을 고려할 때 이 제한성은 비단 시대적한계에만 머물지 않는 시인의 세계관적약점, 그 시야의 협애성을 반영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그의 미학적리상이 대중 추미적 미학관에 머물러있었고 1920~30년대 항일혁명문학과 카르문학, 해방후 40~50년대 남조선민족문학의 교훈과 경험, 그 혁명적자양분을 섭취하지 못한 약점과도 관련이 있다.

시집《로동의 새벽》이 세상에 나타나자 당시 민족문학, 민중문학진영에서 이 시집에 대한 평론들이 놀랄만치 많이 속출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그중에서 평론가 백락청은 시집《로동의 새벽》에 수록된 서정시들을 내용과 형식의 통일의 관점, 작품의 사상의식과 예술성의 각도에서 정당하게 보면서도 새롭다고 하기에 아직 모자란다고 평가하였다. 그의 평가는 대체로 옳으나 예술성을《재미》,《맛》등 형식적측면에 치우쳐 고찰하는 것으로는 언연중 형식주의미학에 감염되어있음을 보여주었다.

시집《로동의 새벽》에 대한 평론들중에서 채광석의 평가는 우리의 주목을 끌고있다.

시집《로동의 새벽》에 실린 많은 시들은《피와 살에 뼈대를 더하듯 구체적현장성에 실천적운동을 가하여 감성적소호나 단순한 고발의 차원을 벗어나 민중해방의 정서와 의지로 발돋움하고있으며 민중적리얼리즘의 위대한 승리를 창출해내고있는것이다.》(《로동해방문학의 논리》 203페이지)라고 격찬하고있는 채광석의 평가, 이 평가에 대하여 우리는 덮어놓고 닷냥 금새가 아닌 일정한 한계안에서 옳은 평가라고 말할 수 있다. 분명히 시집《로동의 새벽》은 당시《로동현장문학》에서 큰 시인의 출현으로,

또 새로운 세계의 등장으로 볼 수 있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 그러나... 시인은 시대의 요구와 과업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을 평론가도 간파하고있음을 어찌하랴. 하물며 박노해는 노동계급의 전위시인으로서 당면한 민족해방의 과업을 해결함이 없는 민중해방과업도 성취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리고 하지 않은것 같다.

둘째로, 시집《로동의 새벽》은 노동계급의 생활을 여러 측면에서 형상화하고 현실과 운동성을 옹기 결합하였으며 자본주의 사회의 기본모순을 작품의 기본

갈등으로 설정하여 그 해결에로 지향하고있으나 시인의 세계관적 시야의 협애성으로 하여 그안의 모든 서정시 작품들에 반영된 계급투쟁의 진폭이 좁아지고있다.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은 경제투쟁만이 아니라 정치투쟁을 동반해야 한다.

남조선에서 제국주의의 문화적침투, 부르조아반동사상의 공세는 현시기 더욱 악랄성을 띠고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레를 들면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을 마비시키려고《대중문화》의 간판밑에 리념과 중심을 해체하고《다양성》,《다국화》를 들고나오는 포스트모더니즘과 같은 반동사상과의 투쟁도 현시대를 살고있는 노동계급의 계급투쟁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있는것이다. 그렇지만 시집《로동의 새벽》에서는 반동사상과의 투쟁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셋째로, 조국통일에 대한 민중의 절절한 소원과 지향이 시집《로동의 새벽》에는 아주 미미하게 반영되고있다. 이것은 시인이 자주, 민주, 통일의 호상관계를 경시하고 자기의 초점을 노동현장과 노동해방의 정서에만 집중하며 이 3자의 변증법적호상관성을 등한시한 결과이다. 조국의 분열은 이 땅의 모든 불행과 고통의 화근이다. 남조선노동계급이 착취와 억압, 장시간 노동의 고역을 강요당하고있는것도 다 이때문이다.

분열의 콩크리트장벽은 과연 누구의 리익을 고수하기 위한것인가.

남조선 노동계급의《각성된 눈》은 자주와 통일의 성문을 열어제끼는 정치투쟁에 집중되고있으며 7.4 북남공동성명 이후 이 운동은 모든 운동의 전면에 부상되어 현실의 중심에서 소용돌이치고있지 않는가. 하지만 시인 박노해에게는 통일에 바치는 웅근시 한편이 없는것이다.

...

갈수록 무겁고 힘찬,
치밀하고 확실한
노동자의 전진을 내어딈는다

우리들의 숙명인
저인금과 장시간로동이
사라질 때까지
억압과 착취와
분단의 장벽이
사라질 때까지
(《장벽》의 끝연)

시인은 이 시의 첫 연에서는/ 내가 길들여진 노동자였을 때/저인금의 음달속을 장시간 로동에 지쳐/감각한 장벽을 운명으로 알고 살아왔었다/고 노래한다. 그리

고 계속하여 노동의 불행과 고통, 비인간적인 삶의 장벽을 깨부시는 눈을 떴을 때 민족분단의 장벽은 이 모든 노동의 장벽을 지키기 위하여, 또 그것으로 하여 더욱 호사한 생활을 누리기 위하여, 영구장점을 위하여 더욱 굳게, 더욱 높이 민족분열의 콩크리트장벽을 쌓아올렸다고 노래하고있다. 과연 시인이 노래한것처럼 분단의 장벽을 노동대중이 미처 깨부시기전에는 다른 모든 노동의 장벽이 더욱 높아질것이고 치밀하고 확고한것으로 될것임을 분단 반세기의 력사가 웅변으로 증언하고있다. 이처럼 자주통일은 노동계급의 생활과 생존과 운명에 관련되는 가장 절박한 문제이다. 그런데 우의 시에서는 분단의 장벽이 모든 노동장벽서열에서 마지막 서렬로 밀려나고있는것이 아닌가.

시집《로동의 새벽》 이후의 시들, 1987년 이후 시인이 수배생활중에 쓰고 실천투쟁속에서 창작한 작품들은 그의 세계관적 시야가 훨씬 넓어지고 사실주의 문학의 중심과제로 되는 전형성 문제도 많이 해결되며 노동계급투쟁의 진폭이 넓어짐에 따라 그 총체성의 시적형상화도 확대되고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시집《로동의 새벽》에 국한하여 보는것으로 그치고 그 이후의 시에 대해서는 여기서 언급을 보류하겠다. 다만 시집《로동의 새벽》 이후의 시들에 대한 많은 평론중에서 박노해 시의 변모를《좌익모험주의》로 평가하는 문제에 대하여 간단히 소견을 표명하기로 한다.

자본주의사회의 기본모순이 해결되지 못한 사회에서는 시에서도 보편적전형에 머물러야 함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새색의 전형, 전위의 전형이 나타나게 될 때는 좌경모험주의라고(박노해의 후기 창작을 말함) 한몽둥이로 치는 따위의 평론에는 동의할수 없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리상을 지상에 실현하는 노동계급의 혁명투쟁이 현실적으로 전개되고있고 그를 지도하는 전위적조직부대가 있는 조건에서 민중적리얼리즘(사회주의사실주의 새색단계)은 가능하기때문이다. 실제로 박노해는 시집《로동의 새벽》과 그 이후의 창작에서 이 두개의 전형을 다같이 활용하였다. 그러므로 현단계에서는 대중의 전진속도를 앞질러나가는 선진로동자를 대변하는 새색의 전위적형상을 좌경모험주의라고 질타하는 평론들이 우경적편향을 범하고있는것이 틀림없다. 그것은 시문학의 선도적역할을 강하게 요구하는 오늘의 시대적조건에 비추어

보면 더욱 그러하다. 결국 박노해의 후기 시를 《슬로우건주의》(슬로우건-표어, 강령)로 매도하는것은 우익보수세력, 어용문학인들의 순수문학장단에 춤을 추는 격으로 된다. 1980 년대를 넘어 90 년대에 들어서면서 우익반동세력들은 1980 년대에 쌓아올린 진보적문학유산을 헌신짝처럼 짓밟고있고 부르조아문학과 민중문학 사이의 경계선도 《예술성》의 이름으로 없애버리며 하고있다. 《로사협조》사상과 개량주의풍조가 남조선 문단풍토를 어지럽히며 만연되고있다. 그들은 투쟁하는 로동계급문학, 로동해방문학의 기치에 도전하고 반격을 가한다. 낡은 자본주의세계, 썩고 병든 부르조아사회를 보라 빛연막으로 감싸는 부르조아감상주의문학과 복고주의문학, 문학의 계급성을 마비시키는 《인간구원과 화해》(문덕수)라는 구호가 개량주의 기발을 휘두른다. 포스트모더니즘에 넋을 빼앗긴 저질의 《대중문학》-색정문학이 범람

한다. 낡은 세계는 이렇듯 자기의 허물어져가는 령지를 지켜주는 부르조아사상전선의 머슴군들을 동원하여 문학의 주체성을 와해시키려고 발악하고있다. 그렇다고 하여 모든것이 그들의 뜻대로 되는것은 아니다. 오히려 낡고 병든 사회를 부지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파산을 면치 못한다는 력사발전의 합법칙성을 반증할뿐이다. 낡은것은 어디까지나 낡은것이지 그것이 새것으로 둔갑한다고 하여 그 몰락과 파멸의 운명이 달리되는것은 아니다. 박노해시문학의 영향력을 없애보려고 아무리 비난하고 갖은 비렬한 수단들을 동원하여 헐뜯어도 남조선의 진보적문학에 큰 자극을 남긴 그 가치와 의의는 매몰할수 없다.

우리는 더 이상
허깨비에 홀리지 않는다
...
저 달콤한 허깨비를
부시며 나갈것이다

(《허깨비》에서)

위대한 주체의 진리로 각성된 로동계급과 인민대중이 지향하는 새 세계, 사회주의는 우리 공화국북반부에서 수령, 당, 인민대중의 일심단결로 위력떨치고있으며 근로인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등장한 《이민위천》의 나라, 주체조선에서 찬연한 빛을 뿌리며 승승장구하고있다. 우리 조국 남반부에서는 《허깨비》에 더이상 홀리지 않는 자주성으로 각성된 로동계급과 근로인민대중의 투쟁이 힘차게 벌어지고있다. 그들은 시인 박노해가 노래하였던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푸른 하늘이 되는/그런 세상이고싶다/는 새 시대, 새 세계를 향하여 한걸음 두걸음 나아가고있는것이다. 그리하여 그 행복의 세계, 사회주의는 자주적 지평우에 불타는 노을로 아름답게 비껴온다. 박노해의 시집 《로동의 새벽》은 이 진리를 시화한 진군의 우렁찬 서곡이다.

우리는 붉은기의 기수들이다

리종덕

혁명의 먼 첫기슭에서
감감하던 이 강토를 밝히는
해불인양
우리 수령님
주체의 기치로 높이 추켜드신
《ㄷ. ㄷ》의 붉은 기발

바로 그날부터 이 기발들고
혈전만리를 헤치고
천만선행을 넘으며 날려온
주체위업의 진군길을
생각하노라

아, 준엄한 《고난의 행군길》
찬 얼음장을 깨물면서도
항일의 투사들 높이 들고온
붉은기
열백번 쓰러지면서도
한걸음도 놓지 않은 이 붉은기

어찌 다 헤아릴수 있으랴
얼어죽고 맞아죽고 굶어죽어도
이 기발 끝까지 들고갈 맹세를
안고
멀고 험난한 혁명의 장장 만리
걸음걸음 피로 물들인 이 기발

락동강의 격전장에서도
불타는 351고지에서도
쓰러지면 다음의 전우가
또 쓰러지면 또 다음의 전우가
받아들고
끝내는 승리의 고지우에
휘날린 이 기발

아, 우리 장군님
주체의 노을로 지구를 덮을
필승의 맹세를 이 기발에
새기셨나니
홍악한 원수들의 광풍을
쳐몰리치며
오늘도 억세게 날리는
혁명의 붉은기

억천만번 죽더라도
기어이 가야 할 주체의 길
그대가 이 기발 들고가다
쓰러지면
내가 있고
내가 쓰러지면
나의 동지가 있나니

혁명의 길에 죽음을 각오한
우리
이 세상 당할자 그 누구냐
불바다 막아서도
이 기발 놓지 않으리
만리 폭풍속에서도
이 기발 흔들리지 않으리

어려워도 힘겨워도
래일을 위한 오늘에 사는
주체의 인생관을 지니고
천만시련도 달게 삼키는
우리는 수령님의 전사
수령님의 제자

오, 수령님의 첫 맹세가 새겨진
이 붉은기
장군님 필승의 맹세로 불타는
이 붉은기
주체위업완성의 그날까지
운명으로 지키며 끝까지
들고갈
우리는 성스러운 붉은기의
기수들이다

영원한 나의 손님

홍철진

신발수리공
나에게는 손님이 많더라
머리 흰 로병도
인연깊은 나의 손님이고
장난 세찬 아이들도
나에게는 친숙한 손님이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신발수리소의 문턱을
즐겁게 넘어섰던가
얼마나 많은 웃음들이
출입문의 돌쩌귀마다 실려있는가

허나 그대만은
한번도 나의 손님으로
되어준적 없었구나
단한번도 주문봉사 나의 수첩에

이 아침도 삼륜차를
타고지나는
영예군인동무여,
내 비록 그대 이름 알지 못해도
뜨거운 마음으로
그대의 삼륜차 멈춰세워보나니

그대 군화신고 땅을 힘껏 디딜 때
어느 보병사단의

근위병이었던가
어느 군단의
손꼽히는 정찰병이었던가
총천 병사의 의무 자각하며
철새없이 달리고 또 달리던
그대의 무쇠군화가
어찌 벗겨졌는지
묻지 않은들 그 누가 모르랴

오늘 삼륜차의 두바퀴가
그대의 두발 대신한대도
그대 군화를 벗지 않았거니
장군님 높이 모신 승리의 연단앞을
더 보무당당히 걸어가려
그대 군화끈을 더 바싹 당기고있거니

이제라도 불쑥 그대
내 정든 일터에 들어서며
병사의 마음처럼
윤기나게 군화를 닦아달라고
다정히 웃으며 말도 건넬듯

아, 영예군인동무여
우리 비록 인사말 나눈적 없어도
그대는 나의 손님이거니
병사의 군화를 한생토록 신고살
그대는 영원한 나의 손님이라

약 속

리수덕

사람은 한생을 살면서 자신과 한피줄을 나눈 가족들과 친척들은 더 말할것도 없고 늘 같은 초소에서 일하는 혁명동지들이나 마을의 이웃들 그리고 생활의 이런 또는 저런 환경과 정황속에서 술한 사람들과 제나름으로 인간관계를 맺게 되며 그 과정에는 수시로 약속을 맺거나 그것을 리행하게 된다.

이런 의미에서 인간의 생활, 사람의 한생은 못사람들과 못약속을 하고 부단히 그것을 실행해가는 과정의 련속이라고도 할수 있을것이다.

어떤 약속은 한순간이나 하루이틀새에 만족스럽게 실현되어 서로의 우정과 리해를 도답게 해주는 그런것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것은 조국과 민족의 운명과 련관된 숭엄한것이어서 오래동안 가슴속에 생동하면서 생활행로의 굽이마다에서 마음의 탕개를 조여주는 그러한 약속도 있는것이다.

나는 약속의 생리, 약속의 룰리를 두고 생각할 때마다 30여년간 나와 함께 한초소에서 일하던 혁명동지, 이미 세상을 떠난 남녘이 고향인 심동무와 생전에 한 약속을 되새겨보며 깊은 상념에 잠기곤 한다.

통일의 열기로 끓어번지던 8.15범민족대회를 앞두고보니 생각은 더욱 깊어졌다.

어느날 저녁 나는 불현듯 통일을 것처럼 바라던 심동무 생각이 나서 묵은 일기책을 들춰보았다. 일기장을 뒤적이던 나는 한대목에 시선을 박은채 한동안 멍히 앉아있었다.

심동무가 생전에 입원치료를 받고있던 그 어느날 병문안을 간 나와 잊지 못할 약속을 한 사연이 적힌 일기의 한토막이 내 눈의 망막에 비껴들었던것이다.

…8월 15일 (맑은 날씨)

예상외로 심동무의 기분상태는 매우 좋았다. 아마도 오늘이 바로 그가 의용군에 탄원하여 남진하는 인민군대오를 따라 고향을 떠났다는 그날이어서 그런지 그의 이야기는 다분히 남녘의 고향땅에 대한 향수에 젖어있었다.

충청북도의 깊은 산협에 자리잡은 보은이 고향인 그는 이런저런 이야기끝에 고향의 특산물인

대추에 대해서 신이 나서 자랑했다.

《우리 공화국북반부에선 평안남도의 성천약밤이나 강원도 안변의 감이 유명하듯이 내 고향엔 보은대추가 이름났다오.》

이렇게 말쑥지를 뻔 심동무는 보은대추가 그로록 소문난것은 대추알이 별로 커서 살이 많고 맛이 꿀같이 달뿐만아니라 벌레도 먹지 않아 썩는 법을 모르는데 있다고 하면서 예로부터 보은땅의 처녀들은 시집갈 때에 의례히 제 고향의 특산물인 대추를 레물로 가지고 가는게 하나의 풍습으로까지 되어왔다고 껍 인상적인 이야기도 했다.

《이런 연고로 내 고향 보은땅엔 대추와 관련한 민요도, 전설도 전해지고있지.

그런데 지금 남녘엔 미국식문화와 생활양식, 왜색왜풍이 횡행하고있으니 고향의 그 미풍량속과 문화유산도 여지없이 짓밟히고있을게요.

리동무! 이제 조국이 통일된 그날엔 우리 함께 내 고향땅에 꼭 가보자구.》

뜨거운 감회와 열정이 어린 심동무의 이 말속에는 단순히 제고향을 자랑하고싶은 욕망만이 아니라 조국산천에 깃든 전설들과 구전민요수집에 늘 관심이 깊은 나에게 좋은 자료를 안겨주려는 진정이 담겨져있었다.

당부를 받고보니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내나름으로 머리속에 그리여본 대추나무 무성한 보은땅의 화폭이 금시 내 눈앞에 펼쳐지는것 같았다.

내 가슴속에는 어서 그의 고향으로 달려가고싶은 충동이 무중 피어올랐다.

《심동무! 약속하기요. 조국통일이 되면 내 첫 손님으로 심동무의 고향에 꼭 같이 가겠소.》

나는 부푸는 가슴을 걸잡지 못하며 그의 손을 뜨겁게 잡았다.

우리 둘은 북과 남의 겨레들이 50여년 긴긴세월 생리별끝에 다시 만나 감격에 울고 기쁨에 웃을 통일의 그날을 그려보며 한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공화국 품에 안긴이래 당의 은정속에서 전문대학과정을 거쳐 지방예술단체의 재능있는 안무연출가로 자라난 심동무는 지난 기간 민속무용 《룡강기나리》를 비롯한 여러편의 특색있는 무용소품들을 세상에 내놓은 경험을 살려 고향땅과 남녘

의 여러 고장들에 지금껏 파묻혀있던 민족문화유산들을 더 많이 발굴해낼 결심을 열기를 떠고 말했다.

나도 그와 함께 남녘의 곳곳을 편담하며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자랑이 깃든 구전전설들과 민요들을 찾아내어 민족문화유산을 계승발전시키는데 기여할것을 약속했다.

아! 우리의 이 약속이 실현될 그날, 통일의 그날은 과연 언제일가.

그날의 일기는 여기서 끝을 맺었으나 나는 점도록 일기장에서 눈을 뗄수가 없었다.

지난 기간 내가 심동무와 같이 일하며 생활하던 나날에 있었던 가지가지 못을 일들이 주마등처럼 피끗피끗 뇌리에 떠올랐기때문이었다.

그 어디에서 빨간 대추열매나 대추나무만 보아도 나서자란 고향이 못건디게 그리워지고 기기에 두고온 부모형제들에 대한 생각이 사무치게 되살아난다면 심동무의 그 석식한 목소리가 금시 귀전에 울려오는것만 같았다.

전화의 그날 정든 고향을 떠날 때 대추나무을 창한 앞남산 등성이길까지 따라나서는 어머니에게 《어서 들어가세요. 어머니! 조국을 통일하구 내 인차 돌아오겠어요.》 이 한마디 약속을 남기고 온것이 어제같은데 어느덧 예순둘 생일상을 받게 되었다고 그렇듯 절통해하던 생일잔치날의 그 모습도 가슴아프게 안겨왔다.

공화국의 따뜻한 품에 안기여 우리는 행복이 크면 클수록 외세에 짓밟힌 고향이 그림고 생리별을 강요하고있는 가증한 원쑤놈들에 대한 저주와 분노의 감정이 솟구쳐올라 온몸이 그대로 불덩이가 되던 심동무. 매일 매시각 분렬된 조국을 자각하며 통일을 앞당기는 마음으로 말은 일에 정열을 쏟던 나의 벗은 지금 내곁에 없다.

아쉽게도 그는 얼마전에 불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던것이다.

생전에 남녘의 고향땅에 나와 함께 가자고 다짐했던 그 언약의 당사자는 곁에 없지만 그와의 약속은 남아있다.

그 약속은 어제도 오늘도 배가의 의무감과 도의감으로 나의 심장을 때없이 자극하고있다.

한것은 친구와 맺은 그 언약이 그저 범상한 생활의 일상사가 아니라 민족의 지상과업과 련관된 숭엄한것이고 당사자가 없는 그 약속의 리행자

가 다름아닌 나라는 자각이 늘 가슴에 못박혀있기때문이다.

그래서인지 나는 요즈음 조국통일과 관련된 약속을 놓고 자주 깊은 생각에 잠기군한다.

국토량단과 민족분렬의 비극을 시시각각 피부로 느끼며 사는 우리들에게는 생활의 이모저모에서 공화국복반부를 방문한 남녘의 인사들이나 청년학생들, 재일동포들과 여러 대륙의 해외교포들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만날 기회가 많다.

그때마다 우리는 상봉의 자리에서나 작별의 장소에서 자주 이런 말을 나눈다.

-조국통일을 위해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싸워갑시다.

-조국통일의 그날 우리 다시 만남시다.

이것은 너도나도 결코 레사롭게 번질 인사말이 아니다. 여기에는 조국과 민족앞에 다지는 맹세가 어려있고 그 기저에는 약속이라는 고결한 뜻이 깔려있다.

약속은 언제까지나 신의와 의리에 기초해야 하며 드림없는 실천을 전제로 하여야 한다.

약속이 한갓 약속에 머물고 맹세가 그저 맹세로 끝난다면 그 어찌 신의가 있고 도리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수 있으랴.

하물며 그것이 평범한 생활속의 레사로운 약속이 아니라 민족지상의 과업인 조국통일과 잇닿은 약속일진대...

나는 심동무와의 약속이 기록된 일기장을 덮으며 이렇게 마음을 다잡았다.

조국통일, 이것은 결코 어서 오라 피타게 부르고 애타게 소원한다고 해서 저절로 찾아오는것이 아니다. 간절하게 바란다고 해서 그 누가 안겨줄 선사품도 아니다. 조국통일, 이것은 오직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투쟁으로 쟁취하여야 할 민족최대의 과업이며 북에 있건 남에 있건 해외에 있건 7천만 온 겨례의 어깨우에 그 무게가 실린 지상의 과업이다.

내 이것을 언제나 통절히 자각하며 살리라.

그리고 남녘에 고향을 둔 혁명동지와 한 그 약속을 늘 잊지 않고 그의 뒤편까지 합쳐 맡겨진 혁명과업수행에 분발 또 분발하리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실 드넓은 통일의 광장을 반석으로 다져가는 일에 매일 매시각 하나의 조약돌, 한줌의 모래와 세멘트를 보태는 그런 심정으로!

더 작은것이라도

유영하

집난이 살림살이 돌보듯
집집을 돌아보는 인민위원장앞에
너인은 이야기했네
나라에서 쌀을 주고 집을 주면 됐지
우리가 무엇을 더 바라겠는가

귀밑머리 희숙한 인민위원장
너인의 진정어린 그 말에
다시 이야기했네
하나를 주면 열백을 주고싶은것이
부모들의 심정이 아닌가고

친정아버지앞에 선듯
너인은 어려움을 잊고 말했네
아이들의 밥사발에
고운 꽃무늬나 꽃송이를
좀 더 많이 놓아주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는 웃으며
우리 집에 아이들이 셋인데
때식때면 밥상에 마주앉아
문양 고운 밥사발을 놓고 하는
싱갱이질이 여간 아니라고

하고싶은 말 다하고난

너인의 눈빛엔 행복이 넘치고
그 말을 귀담아 소중히
가슴에 새긴 인민위원장은 고맙다네
중요한 문제를 제기했다네

그렇다, 그것은
창건 첫날부터 우리 당이
귀기울여 정책에 담던
이 나라 인민의 목소리였다
그래서 언제나 허리굽혀 듣는
인민의 요구였다

위원장과 너인의 이야기는 끝났어도
나의 심장은 뛴뛴 뛰며 웨친다
무엇이든 더 요구하라 인민들이여
그것은 우리 당이
그대들에게 안겨준 권리이거니

더 작은것이라도 요구하라
인민위원장은 벌써 마음속에
새로 만든 꽃사발을 안아보며
흐뭇한 미소를 짓는다
좋은 인민 참 좋은 제도
세상에 이런 나라 또 어디 있으랴

보통날의 퇴근길에서도

김수철

노을 불타는 이 저녁
극장으로 가는 처녀들인가
색갈도 갖가지
문양도 갖가지
옷자랑에 신났구나
웃으며 까불며

색갈이 밝아 좋다고
꽃무늬 고와 좋다고
세상행복 다 안은듯 처녀들은 흥떴건만
후더워오는구나
그 천을 짜낸 방직공 이 마음은

저들이야 어찌 다 알랴
자애로운 그 사랑

해빛처럼 웃으시며 공장에 찾아오신
경애하는 **김정일**동지
가실길도 미루시며
열번 다시 보시고
백번 다시 헤아려 골라주신
그 꽃무늬가 제옷에 피어난줄

일잘하는 우리 처녀들
이런 꽃무늬옷을 입히면
누구나 선녀같겠다 하시며
웃음많은 처녀들 웃음이 더 많아지고
거리가 더 밝아질게라고
그리도 기뻐하시던 그이의 미소가
지금 너희들의 얼굴에 활짝 꽃핀줄
어찌 처녀들께뿐이라

손자애와 함께 걷는
저 할아버지의 외투색갈도
그이께서 골라주신 색깔
상점에서 안고나오는 저 아주머니의 모포도
그이께서 이롭지어주신 《마안산모포》

둘러보면
거리엔 그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고
매대엔 그 사랑이 산처럼 쌓였으니
아 정녕
그이를 어버이로 모신 우리 인민은
알고 받는 사랑보다
모르고 받는 사랑이 더 많은게 아니라

어버이수령님의 그 사랑을 안으시고
그이께서 때없이 찾아오시여
하나하나 가르치심을 주실 때엔
내 또한 미처 몰랐던 그 높으신 뜻이
나날이 이처럼 꽃피고있구나
세월따라 더더욱 만발하고있구나

레사로운 저녁
처녀들의 레사로운 옷자랑속에서
뜨거운 감사에 젖고젖으며
더 많은 천을 짜고짜서
경애하는 그이 밝혀주신
경공업제일주의를 꽃피워갈
한마음 노을처럼 타오르는 이 저녁은 좋구나

틀어진 주먹속엔 하얀 손수건 외 1편

허 일

그 언제인가
어머니가 울다 옷고름 적시고
누이도 울고울어 두눈이 부었다는
미제를 고발하는
여기 신천박물관

그래서 내
처음으로 찾은 박물관의 문턱을 넘어서며
나도 눈물이 쏟아지면 어쩌랴
은근한 위구심에
주머니의 손수건 꺼내들었건만

울수 없었다
피를 줄이는 처참한 사진들앞에서
아름도 넘는 무명의 녀인들 머리칼앞에서
피에 착은 아이들의 꼭지손가락과 팔뚝이 앞에서
승냥이 이발같은 고문장의 흉기들앞에서

울수 없었다
하얀꽃 다발다발 삼가 놓은
원한의 봉분
400어머니묘와 102어린이묘
산같은 수천명 렬사들의 합장묘앞에서
원암리 밤나무꽃 화약창고와
시신으로 차넘쳤다는 방공호앞에서

오늘 나는 울지 않았다
허나 틀어진 주먹속의 손수건은
젖어있었다 화락하니
슬픔의 눈물에 아닌
복수로 뿜어번지는 심장의 그 열물에
비장한 각오의 그 서술에
아, 손수건은 눈물에만 젖는것 아니였다

사실 나는 지각생이였다

남들은 이미
인민학교시절에
고등중학교시절에
그것도 여러번씩 갔었다는
신천박물관이고보면

진정한 의미에서
나는 지각생이였다 변명할수 없는...
조선사람으로 태어나

나이 서른이 다된 오늘에야
여기 신천박물관을 찾았으니

그래서 내
걸음걸음 박물관이 가까와울수록
바재이는 마음속에 빌고팠다
신천이여
관대한 용서를, 용서를...

허나 탓하지 않았구나
되려 마중나온 박물관강사는 나더러
오느라 수고했다고!-
아 정님친 인사에
숙여지는 마음이여

신천이여, 신천이여
벌에 둔덕에 불어에는 봄날의 혼풍마저
렬사들의 원한의 절규가 실려있는듯
그래서 이 땅에 삶을 둔 사람이면
누구도 신천과
인연이 있다 없다 론함이 없이
가까이에서도 멀리에서도 찾아오는것

그것이였구나 신천이여
서른이 다된 나이에
진정 인제야 찾아온 이 병사를
지각생이라 벌 세워
꾸중하지 않음을

아, 신천이여
부디 믿어다오 이 병사를
내 비록 참관의 길엔 늦었어도
복수의 길에선 아니되리라 지각생이
징벌의 대오엔
세번째 두번째도 아닌
첫번째 복수자가 나는 되리라

통일의 붓을 들어

장원준

내 어머니 무릎에 누워
하나 둘... 밤별을 세어보던 시절
아버지 만들어준 하얀 연우에
빨간 수채화로 《통일》이라 써넣기도 했노라

아침이면 긴 두렁에 서서
넓은 벌판위로 훨훨 연을 띄우며
내 목메여 불렀나니
소년의 이 작은 가슴에도 크나큰 소원으로
깃들던
오 통일이여 통일이여

끝내는 고향을 못가고 숨지는이들이
자식이라도 가보라고
가서 어머니 산소에 술 한잔 부으라고
작은 동네가 비긴 고향락도를 그려줄 때
마지막 그 펜아래 흐른것은
날이 새도록 흘러내린것은...

아아 통일이여!
사무침에 비껴든 이 시인의 붓끝을 고루어달라
반백년토록 뼈속에 악물어진
분단의 한을 풀고저
너를 부르다 먼저 간 그 령혼들을
어서 와 잠재워달라!

벌써 반세기다
세여보기조차 숨찬 이 세월
분계선 패말을 쑥 뽑아 붓인양 잡고
통일갈망을 천만번도 더 적어보는
나는 분렬강토의 청춘시인
어머니조국이 나를 낳고도 서른해가 넘었으니

내 기어이
통일조국의 시인이 되련다
그 어느 계급보다 민족은 높고
하나돼야 할 내 조국은
그 어떤 정견과 신앙보다 우에 있거늘

오, 위대한 수령님 몸소 작성하신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의 기치아래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힘있는 사람은 힘을 바쳐
통일대성업에 한사람같이 나서야 할 때는 왔다

진정, 피는 물이 아니어서
동족의 혈로우에 장벽은 못쌓아
우리 세대 필봉높이 통일의 다리를 놓으며
《백두-한나대행진》을 거행하는
북남청년학생들의 저 힘찬 발걸음은 못막아

아, 통일이여!
하얀 연우에 너를 그리던 그 시절처럼
통일은 웨쳐서 울것이 아니다
내 젊은 어깨우에 세대의 사명으로 얹혀져
싸워서만 이룰수 있는 하나된 내 조국!

그렇다 정녕
분렬당한 민족의 아픔우에
벼루인양 내 지금 붓끝을 갈아친다
하여 통일의 날 기쁨에 울고웃을 우리자신들처럼
북남의 하늘가를 자유로이 훨훨 날아갈
내 마음의 하얀 연우에 깨끗한 연우에
이 붓도 더운 눈물 떨구며 통일의 환희를
새기리라

아아! 우리 농민회

김성순(남조선)

아아! 우리 농민회 농민의 벗
그 이름우에 영광있으라
부러진 뼈 먼지처럼 쌓인 죽음의 골짜기마다
그대는 바람처럼 불어가거라!
속삭이는 봄의 미풍
때로는 성난 폭풍우로
모든 악과 거짓을 부시고
이 땅의 생명을 소생케 하라

아 그대는 듣는가 지금도
갑오농민들의 아우성소리
기미년 독립만세소리
4.19학생들의 웨치는 소리
광주민중봉기 시민들의 피울음소리

아 진정 나만 살겠다는

허망한 생각을 벗어버리자
아 그대는 어떤 지위 어떤 제복일지라도
이 순간 겨레의 량심으로 되돌아가자
살고저 하는자는 죽고
죽고저 하는자는 영원히 산다
어둠속에 타오르는 해불!
새벽을 알리는 진리의 사자!
보무도 당당히 나아가리라

부러진 뼈 먼지처럼 쌓인 죽음의 골짜기마다
그대는 바람처럼 불어가거라
속삭이는 봄의 미풍
때로는 성난 폭풍우로

아아! 농민의 벗 우리 농민회
그 이름우에 영광 있으라!